

세 도시, 세 가지 맛
충북



RUN STEADY.



ARC'TERYX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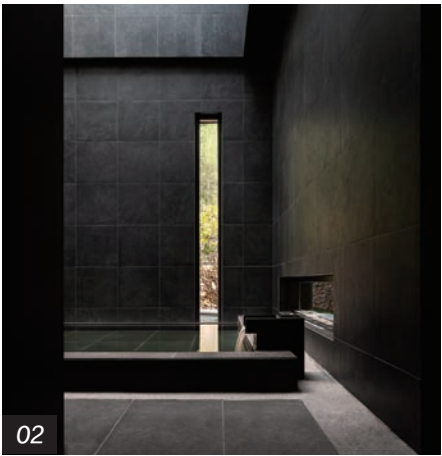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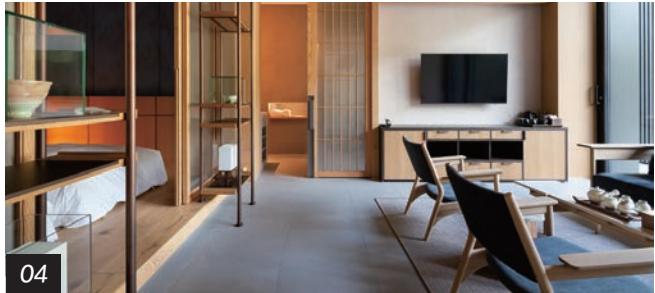
01



02



03



04



05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온전한 휴식이 있는 여름 휴가 장소, 유원재

무더위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더하는 유원재의 휴식, 그 섬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올여름, 겸화 객실에서 추가 비용 없이 1인 추가 숙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루에 마련된 포근한 침구 위에 누워, 솔솔 불어오는 여름 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에 쾌청한 여유를 불어넣는 유원재의 여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십시오.

겸화 객실 1인 무료 추가 투숙 이벤트

- 기간 : 7/1~8/31(입실 일자 기준)
- 내용 : 겸화 객실 기준 인원(최대 2인)에서 추가 1인 투숙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프로모션에서 확인)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이달의 여행 040 세 도시, 세 가지 맛 충북

충북의 세 도시 제천, 영동, 청주가 색다른 여행 방식을 제안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과 자연을 경험하는 미식 여행이다.



표지 이야기

제천 의림지의 수경 분수

충북 제천의 대표 명소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 시설인 의림지. 무지개 다리를 사이에 두고, 순주섬이 있는 큰 호수와 수경 분수가 있는 작은 호수로 나뉜다. 세 개의 수경 분수가 물줄기를 높이 뿜어 올리면, 주변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잔물결이 퍼져 나간다. 물줄기에 부딪힌 햇살은 무지개로 되돌아오고, 남은 빛은 호수 표면을 따라 반짝인다.

NEW GLOBAL EDITIONS BY

DUNHILL



오직 한국을 위한 특별한 맛의 여정 글로벌 에디션 바이 던힐

BAT로스만스가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이는 글로벌 에디션 바이 던힐은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담은 감각적인 브랜드, '뉴욕 에디션', '파리 에디션', '런던 에디션' 총 3종으로, 한국 소비자 취향에 맞춰 폭발적인 풍미의 강렬한 캡슐을 세련된 디자인에 담았다.

NEW YORK EDITIONS X DUNHILL: 타르 3.0mg, 니코틴 0.20mg PARIS EDITIONS X DUNHILL: 타르 3.0mg, 니코틴 0.20mg LONDON EDITIONS X DUNHILL: 타르 1.5mg, 니코틴 0.10mg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 - 9030



022 촬영지 여행

무지개 다리 건너 강아지숲 동산으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애뜻한 재회 장면을 강원도 춘천의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에서 촬영했다.

024 여행자의 공간

문화유산의 정신 잇는 '더 헤리티지'

서울 한복판에 한국 전통문화와 글로벌 브랜드가 공존하는 공간이 탄생했다.

026 여행자의 물건

여름으로 한 발짝

더위가 시작되는 달을 맞아 화사한 패션 아이템을 골랐다.

030 시절, 풍경

초여름의 실루엣

존재의 존재함을 일깨우는 여름 초입의 명징한 장면을 포착했다.

036 전국 행사 달력

6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초록이 짙어지는 6월, 전국 곳곳의 행사를 모았다.

066 여행의 발견

나의 여름 은신처, 해남

전남 해남의 가장 눈부신 풍경을 찾아 청신한 숲길과 정원, 땅끝관광지를 다녀왔다.

082 기차안 세계 여행

라스베이거스 로컬 탐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다운타운과 허버햄의 미드 호수에서 현지인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을 경험했다.

090 함께 여행

나를 위한 덜어 냄, 제로 웨이스트 여행

전북 전주에서 쓰레기 없는 숙소 '모악산의 아침' 운영자 모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여행을 떠났다.



066



082



090



BOOK in BOOK

made in

GOSEONG

no.06

BOOK
in
BOOK

made in GOSEONG

강원도 고성의
일곱 가지 변화

바닷가 풍경만큼이나 아름답고 예술적인
고성의 공간과 사람들을 만났다.

제주를 오롯이 담은 자연색



AHILO

아일로만의 고유한 25년 린넨 컬렉션을 전국 아일로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www.ahilo.co.kr | 대표 전화 02 2256 7901 | 개실 문의 02 2254 4903

- 114

인터뷰

분노 어린 종이 인간, 신민

2025아트 바젤 홍콩에서 떠오르는 신진 작가로 주목받은 신민. 그가 종이 인간으로 전하려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 122

전시 보러 갑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그림으로 가득 찬 푸르른 세계를 유영했다.
- 130

에디터의 눈

비움과 채움의 시간, 유원재

객실 하나가 한옥 한 채인 유원재에서 온전한 쉼의 의미를 배웠다.
- 148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읽을 맛 나는 이색 책방

서울 연남동과 연희동에서 독서 욕구를 자극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책방을 찾았다.
- 154

KTX타기 1시간 전

판교에서 발견한 초록빛

기차에 오르기 전 자투리 시간을 책임질 경기도 판교역 근처의 흥미로운 장소를 탐색했다.
- 160

지식 더하기

슬기로운 AI 생활

AI의 명암이 분명한 지금,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제안했다.
- 162

트렌드 읽기

돌고 돌아 한국의 흥

송소희부터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까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 164

이달의 선택

에디터가 추천하는 6월의 콘텐츠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더할 6월의 콘텐츠를 선정했다.
- 176

플레이리스트

허회경과 떠나는 음악 여행

담백한 위로로 건네는 싱어송라이터 허회경이 기차 여행에 어울리는 노래를 골랐다.
-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2025
국가유산주간
국가유산, 일상에 스며들다
2025.5.30^{FRI} - 6.22^{SUN}

2025년 6월호

KTX MAGAZINE

제22권 제6호 통권 제252호
2025년 6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김수진 ksj@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이지혜 이제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강태선 kenkkang@naver.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Panasonic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을사년 6월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특별 프로모션

최대 200만원 상당 혜택! | 기간 : 6/1 ~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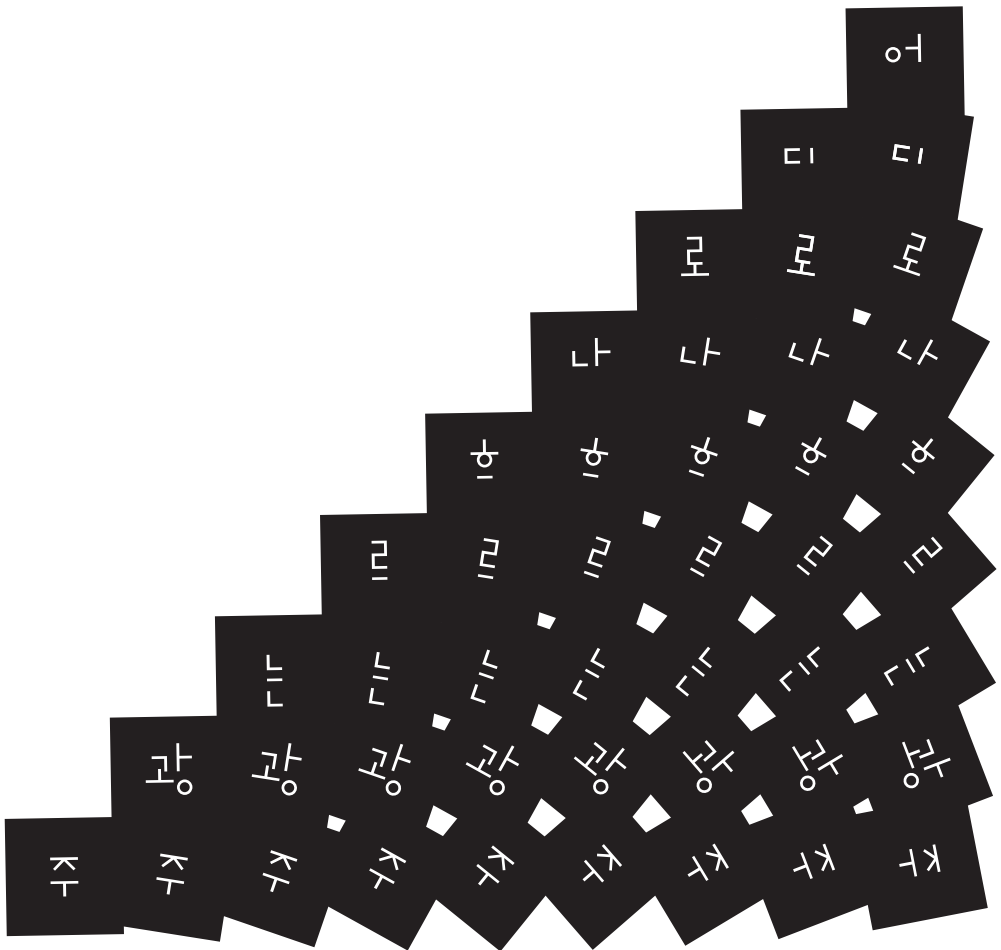
상세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panasonic.co.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02)542-8452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 파나소닉 중인프라자 (051)255-0222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 금호월드 (062)350-8397 | 롯데 백화점 본점 | 롯데 백화점 잠실 | 롯데 백화점 강남 | 롯데 백화점 일산 | 롯데 백화점 센텀 | 롯데 백화점 대전 | 롯데 백화점 광주 | 롯데 백화점 인천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 현대 백화점 목동 | 현대 백화점 판교 | 현대 백화점 여의도 | 현대 백화점 대구 | 현대 백화점 중동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 신세계 백화점 본점 | 신세계 백화점 강남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 신세계 백화점 대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사 司 書

2025.
6.14(토) — 6.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강현주
연출

사 私 로 우

콘셉트
연출
무대미술
전극

2025.
6.20(금) — 6.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작정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마음

어쩌다 보니 올해로 3년째, 벚꽃이 지고 나뭇잎이 연둣빛으로 물들 때면 ‘나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첫 해는 순전한 호기심으로, 이듬해는 못다 한 아쉬움으로, 그다음 해는 좋았던 순간을 잊지 못해서 전 남 순천의 송광사로 향합니다. 4년 전 취재차 방문한 송광사에서 하룻밤 묵은 것이 계기가 되어 매년 더 깊이 템플 스테이에 빠져들고 있어요. 보통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은 예불과 108배, 스님과의 차담 등이 포함된 체험형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휴식형으로 나뉩니다. 저는 늘 휴식형을 선택하는데 요,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산사에 머무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떠나는 2박 3일 여행.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저는 단출하게 짐을 싸서 지하철과 KTX, 버스를 타고 꼬박 7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송광사에 머무는 동안 제가 몰두하는 건 딱 두 가지, 부지런히 걷고 수시로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처음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섭렵할 것처럼 철학서며 소설, 시집까지 책을 바리바리 싸고 일기장에 노트북까지 챙겼지만, 깊은 산중 천년 고찰에서 혼자 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나를 놓아 두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작정 없이 사찰 이곳저곳을 걷다 보면 아침저녁 천지를 깨우는 법고 소리에 넋을 잃기도 하고, 법정 스님이 건넨 무소유길 대나무 숲에서 때 이른 여름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송광사를 벗어나 조금 더 먼 곳으로 가 보면 어떨까.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조계산 등반도 해 보았습니다. 송광사에서 선암사를 잇는 6.5킬로미터 등산로를 세 시간 동안 부지런히 걸었죠. 올해도 길을 나섰지만, 김장하 선생의 등산 방식처럼 ‘사부작사부작 뚝지락뚝지락’ 걷다 보니, 선암사까지 절반도 못가 벌써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두 배 이상 시간을 들이는 동안 몸의 감각은 두 배 이상 섬세해진 느낌이었어요. 햇살을 받아 잎맥이 투명하게 비치는 나뭇잎을 보며 돌계단을 오르고, 폭신한 흙길을 만나면 바위에 기대앉아 바람이 지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 하나, 내가 나를 지켜보는 기분으로 몸과 마음을 한껏 풀어놓는 것.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 끝까지 걸어가고, 우주밖 저 너머까지 무한대로 생각을 펼쳐놓는 것. 이런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우리의 시절은 조금 더 말랑하고 상냥하며 빛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길에 한 꼬집의 산뜻한 영감이 필요하다면, 이달 더욱 흥미로운 <KTX매거진>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충북의 세 도시 제천, 영동, 청주에선 각 지역의 독특한 맛의 세계를 경험하고, 전남 해남에선 땅끝마을과 땅끝담을 잇는 꿈길랜드를 걸거나 정원 가득 만개한 수국의 황홀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서울 연희동에선 파란 책, 파란 스피커, 파란 컵 등 온통 파란 것들로 채워진 서점 ‘쏘블루’를 만나고, 경기도 판교의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선 아이들과 함께 그림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분이 전북 전주에 간다면 ‘모악산의 아침’ 주인 모아가 만든 비건 지도를 꼭 눈여겨 보세요. 아시아 최대 아트 페어, 아트 바젤 홍콩에서 올해 가장 빛나는 신인으로 주목받은 신민 작가와의 인터뷰는 매섭도록 강렬하고 설득력 있어 묵직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의 6월이 느긋하게 술렁이고, 빠근하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편집장 최현주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jusogum

각기 다른 속도와 형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생기는 풍요로움. 이번 여행은 전주국제영화제 덕에 많은 걸 얻었다. 기차에서의 시간을 알차게 만들어 준 <KTX매거진>도 고맙다.
#KTX매거진 #전주국제영화제 #행사#인터뷰

@easternlightness

<KTX매거진>에서 발견한 강원도 강릉의 옥계해변. 사진과 경험 중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아니지, 추억을 떠올리는 지금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겠다.
#강릉 #옥계해변 #KTX매거진 #시절풍경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민정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KTX매거진> 5월호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전시 중인 론 뮤익의 작품은 사진으로 봐도 압도적이라 섬세한 표현을 실제로 마주하고 싶었다. 기차는 동해를 향해 달렸지만 내 마음은 또 다른 여행지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6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6월 11일까지

한재빈 부산시 남구 용소로
책 대신 기차 안에 비치된 잡지를 펼쳐 읽다가 텍스트랩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끝까지 정독하고 나니 독서에 대한 애정을 뽐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에는 언제나 그랬듯 독서를 사랑하며, 6월에 새로 나올 잡지를 기다려야겠다.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돌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쏟비치 남해 오픈기념, 무기명 5,100만원 회원권 선착순 한정 모집!

I. 한정구좌

소노리움은 한정상품으로 소진시 판매가 종료되는 선착순 공유제상품입니다. 회원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II. 객실할인 10년

객실 50% 할인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노리움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소노리스 회원 대우를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노리스 객실 | 가입혜택 미적용]

III. 평생 회원권

골프,스키,워터파크,직영식음업장 등 200여곳 부대업장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누리는 회원혜택을 경험 하십시오.



▲ 쏠비치 남해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4140-6540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쏠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소노캄 고양 · 여수 · 거제 · 제주 · 경주(예정) | 소노로 해운대 | 소노벨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 소노휴 양평

상담문의 02)2222.5917

서울·경기도



- 경동시장 서울웨미리
- 전통시장 사이에서 주목받는 레트로 먹거리 맛집
-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36길 3



- 이대앞상점가 이화52번가
- 꿈꾸는 청춘들의 활기가 가득한 이화여대생들의 비밀 아지트
-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수원 영동시장 28청춘
- 28가지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 전통과 현대의 즐거움 만남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 안산 신안코아전통시장 소소플래닛 신안
- 청년 상인들이 모여 만든 특별한 공간, 신안시장 속 뉴트로 앳플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15



- 안산 다농마트전통시장 소소플래닛 다농
-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밝은 에너지의 청년들이 모이는 곳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 통북시장 청년숲
- 청년 사업가들의 꿈터, 개성 가득한 평택 청년들이 모이는 곳
- 경기 평택시 통북시장로25번길 10

젊은 에너지 활기찬 핫플

청년몰



충청도



- 관아골상가 소소한시장

- 불거리, 먹거리, 체험 모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 충북 충주시 관아1길 14



- 천안청년몰
홍농발전소

- 젊은 감각과 맛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흥나는 홍미로운 시장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5-4



- 금산금빛시장 금빛청년몰

- 새로운 마스코트 금빛이와 함께 활력이 넘치고 쾌적한 시장
- 충남 금산군 금산을 금산전길 98

전라도



- 군산공설시장 물랑루즈 201

- 전통시장의 새바람을 불러오는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



- 전주서부시장상점가 청춘시전

- 문화, 쇼핑, 불거리가 융합된 전통시장의 새로운 반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4-12



- 진안고원시장 청마물

- 구룡도 쉬어가는 고원시장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활동
- 전북 진안군 시장1길 16



- 삼례시장 삼삼오오

- 60년의 역사를 가진 삼례전통시장의 청년 놀이터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6



- 김제전통시장 아리락

- 김제를 즐기고 싶다면 전통과 젊음이 함께하는 아리락으로
- 전북 김제시 요촌동 417-2



- 익산중앙시장 상상노리터

- 먹거리 가득한 익산 여행 필수코스 익산 상상노리터
- 전북 익산시 중앙로3길 27



대구·경상북도



- 연풍백년도깨비시장
현이와 풍이의 청춘신난장

- 근심걱정을 삼니다! 장난기 가득한 도깨비가 살아있는 시장
- 대구 달성군 연풍읍 연풍로6길 5



- 산격종합시장 신다림길

- 대구의 뜨겁고 매운 맛을 느낄 수 있는 맛만 시장
- 대구 북구 대동로1길 34



- 선산봉황시장 황제청년몰

-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구미의 새로운 랜드마크
- 경북 구미시 선산을 단계동길 24



- 문경중앙시장
오!미자네 청년몰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경의 전통시장
- 경북 문경시 중앙로 87



- 북부상가시장 율로몰

- 오랜역사와 함께 도전정신과 젊음이 넘치는 시장
- 경북 경주시 금성로396번길 7



- 안동중앙신시장 오고가게

- 전통시장의 인심이 넘쳐나고 창의적인 테마가 융합된 공간
- 경북 안동시 중앙시장1길 54



- 김천평화시장 포도락

-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으로 다양한 오토존이 공존하는 랜드마크
- 경북 김천시 김천로 100

강원도



- 원주중앙시장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

- 문화와 예술을 거래하고 체험하는 강원도 전통 문화 관광형 시장
-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길 6



- 옥림고개상점가 옥림고개

- 40년 경력 노포와 참신한 신포가 어우러진 춘천 현지인 추천 코스
- 강원 춘천시 중앙로77번길 35



- 삼척중앙시장 청춘해

- 건강안 생활 속 즐겁고 편리한 창업 문화 공간
- 강원 삼척시 진주로 12-21



- 사북시장 별애별청년몰

- 정이 가득한 사북시장 내 젊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곳
-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0

울산·경상남도



- 신정평화시장 키즈와 맘

- 키즈와 맘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놀이공간을 위한 곳
- 울산 남구 봉월로67번길 17



- 김해동상시장 동춘씨

- 활력의 맛,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다채로운 공간
- 경남 김해시 구지로180번길 25



- 진주중앙지도상가 황금상점

- 반짝반짝 황금처럼 빛나는 창의적 아이템과 문화가 있는 시장
- 경남 진주시 진양대로 1035



- 진주중앙시장 비단길청년몰

- 맛있는 진주의 문화를 전달하는 다양한 맛과 개성있는 시장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53



- 거창전통시장 와락

- 루프탑과 포토존이 공존하는 재미가 가득한 랜드마크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40

제주



- 동문공설시장 B1

- 동문공설시장의 몸과 마음을 녹일 온기가 가득한 공간
- 제주 제주시 동문로4길 9

MARKET TOUR

새로운 내일의 기회 새내기 중장년



경력지원제, 지금 신청하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란?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일경험 기회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운영수당을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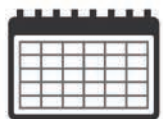
1~3개월 간 유망자격·훈련분야* 실무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참여 중장년 혜택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지원!



참여 기업 혜택

운영지원금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금 받아보세요~!



Go 경력! Go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 ☒ 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한 경우



최대 1,080만원 지원!

1인당, 월 30만원 X 최대 3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 STEP 1**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 운영(1년 이상)
사업주
- STEP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사업주
- STEP 3**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사업주 ▶ 지방노동청
- STEP 4** 계속고용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분기별)
사업주 ▶ 고용센터
- STEP 5**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고용센터 ▶ 사업주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찾임과 소리꾼의 노래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다원을 촉촉히 적십니다. 찾아임 위로 툭툭 떨어지는 빗방울의 장단에 맞추어 울려 퍼지는 구성진 판소리 한 자락에 귀 기울여 보세요.

QR코드를 찍으면 전남 해남 설아다원에 내리는 빗소리와 '녹차 아리랑' 한 소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 건너 강아지숲 동산으로

해맑게 뛰어가는 한 무리가 모두 강아지로 변한다. 천국에 도착한 사람과
동물이 애뜻하게 재회하는 이곳은 강아지숲 동산이다.



80세의 모습을 한
해숙과 30대로 돌아간
남편 낙준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해숙
역에 김혜자, 낙준 역에
손석구가 출연하는
이 드라마에는
재미와 감동, 교훈이
공존한다.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주인공 해숙은 지옥에나 가라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서도 아랑곳 않고 일수를 받으러 다닌다. 집에 돌아와서는 사고 이후 침대에만 누워 지내는
남편 낙준을 보살피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스물에도 예뻐고 마흔에도 예뻐지만 당
신… 지금이 제일 예뻐요. 하루같이 살면 하루더 정이 쌓여서 예쁜 건가.” 낙준의 말에 감동
한 해숙은 천국에서 80세의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살겠다고 결정한다. 하지만 남편을 포함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젊은 모습을 하고 있자 한없이 속이 상한다. 그러다 천국지원센
터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는데, 주인이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런 생
김새를 택했다는 그의 말에 고개를 가웃거린다. 이때 반대편 무리를 향해 반갑게 달려가던
사람들이 돌연 강아지로 변하는 게 아닌가. 견주와 반려견이 재회하는 장소는 강원도 춘천
의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이다. 드라마 속 천국지원센터 건물은 강아지숲 박물관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강아지들이 주인을 맞이한 곳은 강아지숲 동산이다. 푸른 동산에서 서
로를 꼭 끌어안는 장면을 보니 여기가 바로 천국임을 실감한다.

© 강아지숲 JTBC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GAC 강릉아트센터
GANGNEUNG ARTS CENTER

DANO, Le Sacre du printemps

단오, 봄의 제전

'단오'의 숨결, '봄의 제전'의 맥박
두 개의 제의가 하나의 몸짓으로 이어질때
춤은 풍유가 되고
감각은 진실을 꿰뚫는다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김진미**
작/연출 **임형진**
무용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
연주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_정민)**

2025.
6. 7. SAT 17:00
6. 8. SUN 15:00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GANGNEUNG ARTS CENTER 강릉아트센터 기획공연

티켓 R석 20,000원 S석 10,000원(초등학생 이상) 예매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 문의 033)660-6800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관 강릉아트센터 제작 강릉아트센터

문화유산의 정신 잇는 ‘더 헤리티지’

90년 역사를 간직한 옛
조선저축은행이 시공간을
초월한 문화예술 & 쇼핑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남대문시장과 명동 거리, 한국은행 본관이 자리한 서울 한복판에 흥미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지난 4월 9일 신세계백화점이 개관한 ‘더 헤리티지’가 그것. 총 6층 규모 건물에 샤넬 매장과 역사관, 전통 공예품 전시관과 한식 디저트 카페, 야외 정원 등이 들어섰다. 그리스 도리스 양식의 웅장한 기둥, 격자무늬 창문과 꽃 모양의 화려한 석고 부조 등이 돋보이는 이 건물은 90년 역사를 간직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일제강점기 엔 조선저축은행으로, 10년 전까진 제일은행 본점으로 쓰이다, 2015년 신세계백화점이 매입해 더 헤리티지로 다시 태어났다. 무려 10년에 걸쳐 보존·복원 작업을 진행한 신세계백화점은 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한 이후에도 근대 건축문화유산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 회의를 30여 차례 여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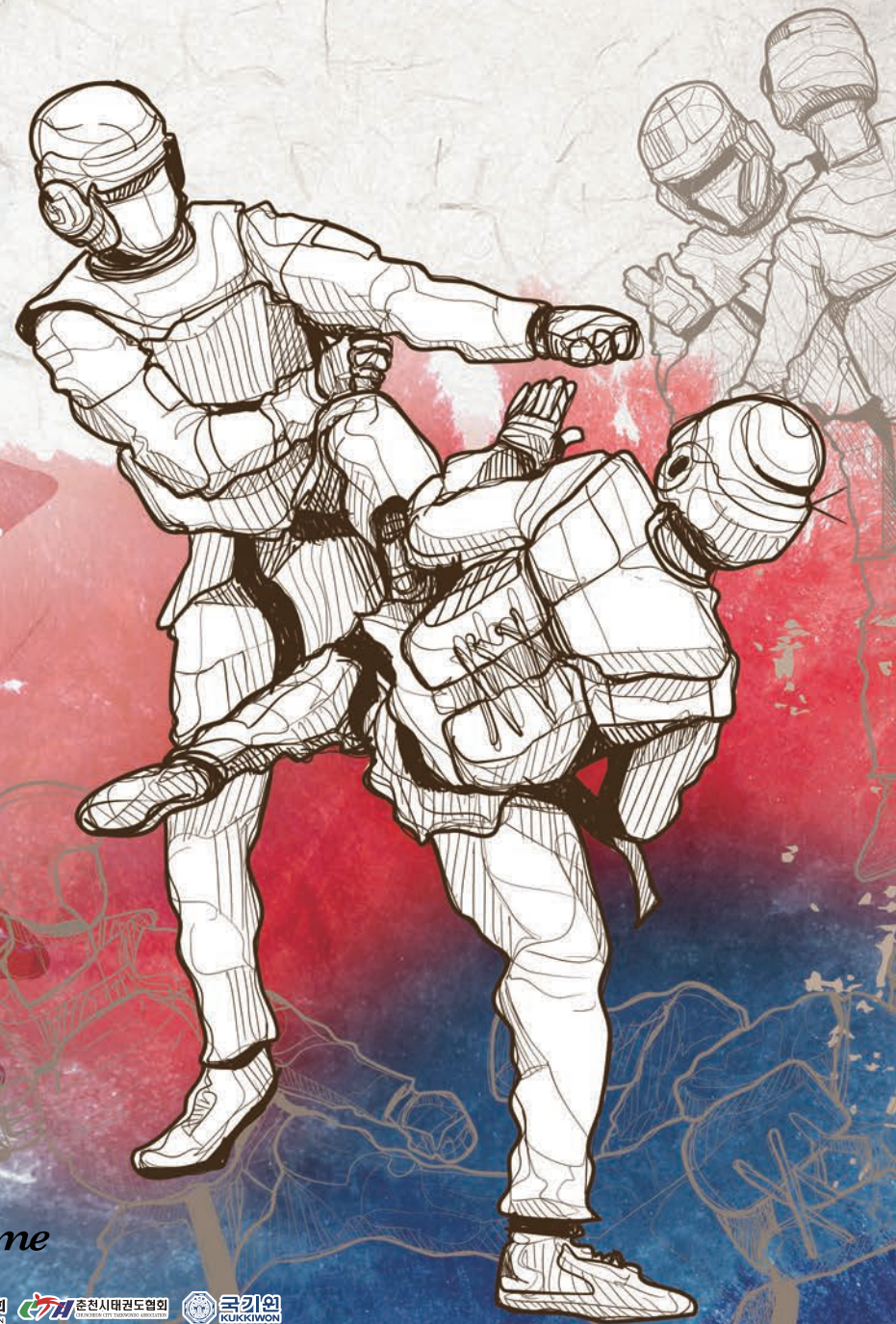
더 헤리티지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한국의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1, 2층에 들어선 샤넬 매장은 7미터 높이 천장의 꽃 모양 석고 부조 등 더 헤리티지의 건축 요소를 보존하면서 파리의 세련미와 장인 정신, 과감한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담아냈다. 3층은 올해 하반기 개점을 위해 비워 뒀고, 4층에는 한국 유통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관과 더 헤리티지 뮤지엄을 마련했다. 개관전으로 선보인 <명동 살롱: The Heritage>전은 1950~1960년대 명동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당시 유행했던 살롱 문화를 재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5층에는 한지, 버선, 누비 등 한국적 소재와 기술을 탐구하는 문화 체험 및 전시 공간인 ‘하우스 오브 신세계 헤리티지’가 생겼고, 신세계 한식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한국의 디저트 메뉴를 소개하는 ‘디저트 살롱’도 마련했다. 디저트 살롱과 연결된 옥상 정원은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전망대에 서면 명동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주소 서울시중구 남대문로 42



2025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2025
Chuncheon Korea Open
Inter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2025. 7. 15. - 7. 20.

Songam Sportstown Air-dome





여름으로 한 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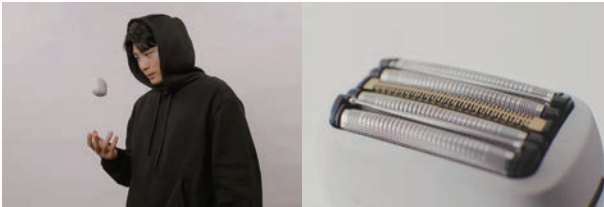
뜨거운 햇빛도 화사하게 맞이할 아이템.

싱그러운 식물 아트워크가 돋보이는 버킷백, 가방과 함께 매칭하면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 완성되는 코튼 소재 모자는 모두 헬렌카민스키.

문의 헬렌카민스키 1899-0417



메이저리거에서 맹활약 중인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그루밍 기어로 파나소닉의 램대쉬 폼인을 선택했다. 램대쉬 폼인의 세련되고 콤팩트한 디자인, 뛰어난 휴대성, 강력한 절삭력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이정후 선수의 스타일을 한층 더 빛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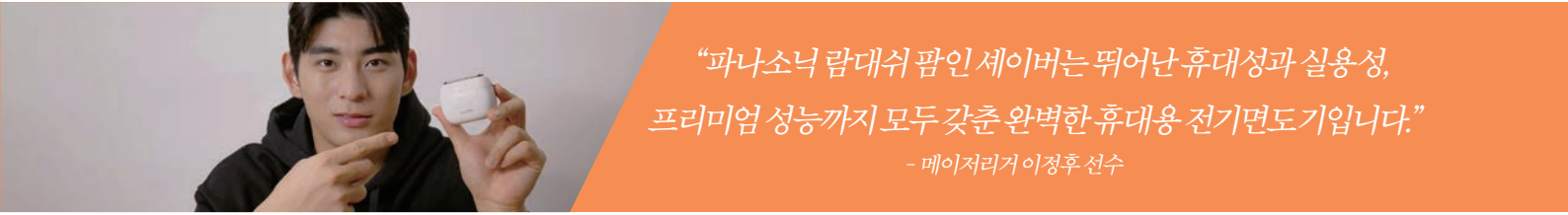
145그램의 가벼움, 5중 날의 묵직함

145그램 초경량에 손바닥보다 작은 콤팩트 사이즈. 프리미엄 5중 날과 30도 나노 에지로 빈틈없는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 분당 회전 수 약 1만 4000회의 초고속 리니어 모터를 탑재해 잔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제거한다.



USB-C 충전 및 방수 기능

USB-C 타입으로 전용 충전기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해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다. IPX7 등급 방수로 샤워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한 세척으로 위생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다.



“파나소닉 램대쉬 폼인 셰이버는 뛰어난 휴대성과 실용성, 프리미엄 성능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휴대용 전기면도기입니다.”
- 메이저리거 이정후 선수



1 고양이의 살짝 올라간 눈을 닮은 디자인의 화이트 프레임 선글라스는 특유티컬. 2 레트로한 스퀘어 타입으로 빈티지한 옷차림에 어울리는 애쉬 베이지 선글라스는 스포링스트링스.

문의 특유티컬 02-3016-8090 스포링스트링스 070-8866-5077



파나소닉 최상위 안마의자 REAL PRO MA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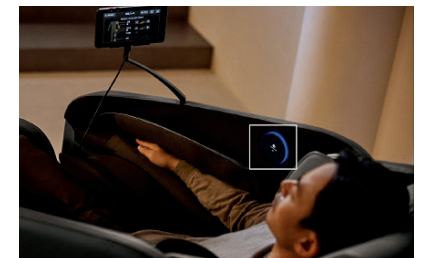
1 새로운 프레임

마사지 볼 도달 부위를 목에서부터 척추, 엉덩이, 허벅지까지 확장한 S프레임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 전신을 감싸는 셀 디자인

몸 전체를 감싸는 셀 형태 의자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끼며 궁극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 nanoEX 탑재

일반 음이온의 1000배 이상 수분을 간직한 나노이 입자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탁월한 탈취 효과를 제공한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REAL PRO'란?

'REAL(실제)'과 'PRO(전문가)'를 합친 **REAL PRO**는 파나소닉의 최상위 안마의자 시리즈 브랜드다. **REAL PRO**가 추구하는 궁극의 안마의자는 실제로 전문가가 마사지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전하는 것. 파나소닉의 '휴먼 핸드 마사지 기술'은 최소 10밀리미터 폭까지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과 실제 손의 체온과 같은 온열감을 구현한다.

올사년 6월,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특별 프로모션

퍼스트 클래스 안마의자 브랜드의 선두 주자, 파나소닉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할 절호의 기회. 이벤트 기간에 **REAL PRO MAN1**을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 6월 1일~30일 문의 www.panasonic.co.kr



이른 저녁, 호숫가에 햇살이 드리우면 투명했던 물이
돌연 푸른색을 띤다. 색을 갖지 않았기에 어떤 색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유연성. 실크처럼 찰랑이는 여름날의 풍경.

2025년 5월, 충북 제천 의림지

초여름의 실루엣

사물 그 자체보다 물에 담긴 실루엣이 실체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존재의 존재함을 일깨우는 초여름의 명징한 장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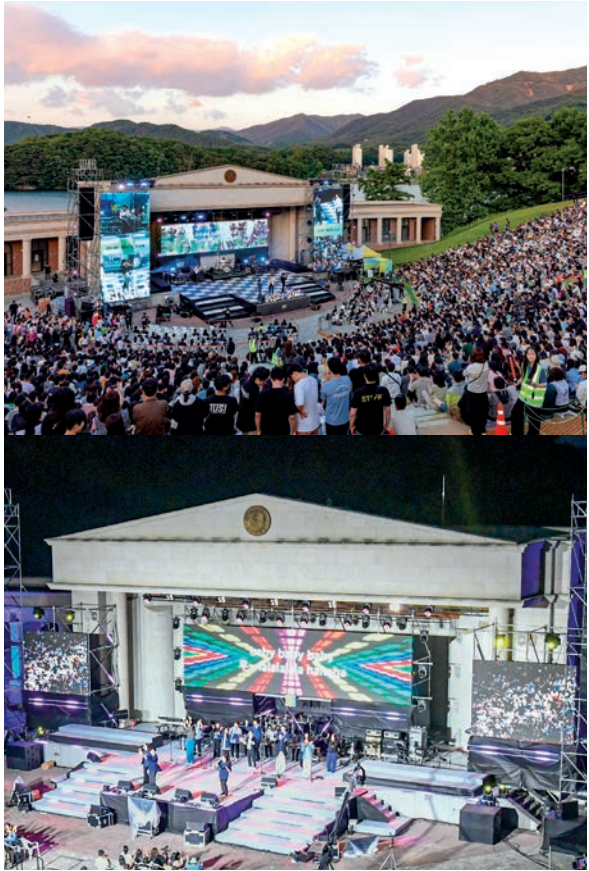
연중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가 되면 꽃말도 어여쁜 치자꽃이 핀다.
샛노란 열매 품은 새하얀 여섯 잎.
황금색 태양 담긴 꽃들의 풀장, 그 한없는 즐거움.
2024년 6월, 경북 청도 운문면 계곡



봄의 끝, 여름의 입구에서 꽃을 잃고 헐벗은 뱃나무는 다시금 초록빛으로
차오른다. 호수에 담긴, 흐드러지게 형형했던 벚꽃의 시절.

2024년 5월, 강원도 속초 영랑호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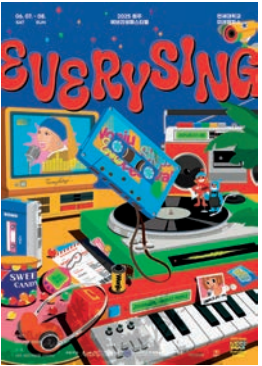


2025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

원주 06.07~08

강원도 원주 지역 뮤지션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 올해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2개의 야외 스테이지를 마련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아마추어 쇼카이어 합창단 경연에 참가하는 10개 팀과 황가람, 소란, 정승환, 라포엠이 첫날 무대에 오른다. 딕펄스, 부활, 너드캐క్ష션 등이 2일 차 라인업에 포함됐고,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 로버스와 원더랜드, 정지마을 등 18개 팀도 참여한다.

장소 강원도 원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문의 033-760-9885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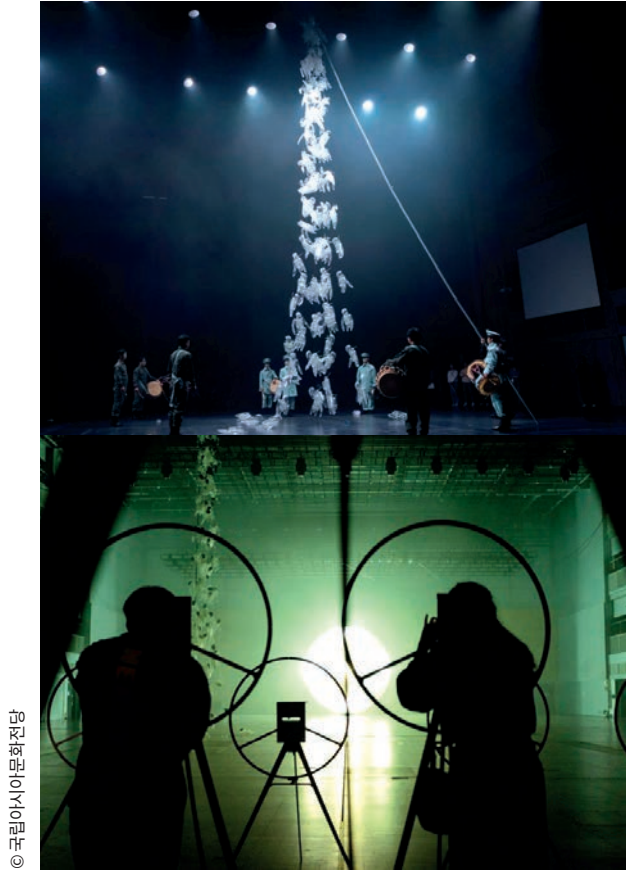
울산 06.07~29

매년 6월이면 울산 장생포 일대가 3만여 그루의 수국으로 장관을 이룬다. 2022년에 시작한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지난해 약 56만 명이 다녀가며 명실상부 울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장생포 수국에 흠뻑 물들다'. 수국 불꽃 쇼와 화관 만들기, 수국 포토 미션 투어, 수국 마켓, 사진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고래문화마을 전 구간에는 스트링 라이트를 설치해 밤에도 형형색색의 수국을 감상할 수 있다.

장소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 문의 052-226-3403



SHOW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광주 06.20~22

미약한 존재였던 시민들이 위대한 정신을 탄생시킨 광주의 5월.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성경의 창조 신화를 바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실험적인 방식으로 풀어낸다. 공연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1~7일과 종말 등 총 8막으로 구성되며, 이 중 1~6막에 금남로와 전일빌딩 등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무대 바닥에 흩어진 사람 형상 오브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단단한 나무 형상을 이루고, 관객은 광주 시민의 얼굴이 인쇄된 가면을 쓰고 극에 직접 참여한다.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의 1899-5566



EXHIBITION



〈기후 위기의 경계 1.5℃〉

양평 04.30~09.07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인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김선우, 변대용, 이채원 등 11명의 국내 작가가 회화, 영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시각화한다. 단순히 재난의 재현을 넘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기후 위기의 풍경을 포착한다.

장소 경기도 양평 구하우스 미술관 문의 031-774-7460



〈축제〉

서울 04.09~07.06

동서양의 신화와 역사, 문학 등에서 영감을 아스케치 없이 즉흥적인 붓질로 화폭을 채우는 독일의 현대미술 작가 소피 폰 헬러만이 '축제'를 주제로 한국 첫 개인전을 연다.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와 한국 문학작품 <진달래꽃> <춘향전>에서 영감을 얻어 20여 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이 중 전시장 밖에 그린 가로 80미터, 세로 9미터의 대형 벽화는 밝고 경쾌한 색채로 축제의 활기찬 에너지를 표현했다.

장소 스페이스K 서울 문의 02-3665-8918

이채원, '시막의 밤 Night in Desert', 2023, Oil and acrylic on canvas, 72.6×100cm

© 스페이스K 서울



FESTIVAL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 06.14~22

경북 포항의 철강 산업을 상징하는 '불'과 '빛'을 테마로 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3개국...
장소 경북 포항 형산강 체육공원 외 포항시 일원
문의 054-289-7852



EXHIBITION

<Folding Cosmos>

서울 05.22~06.28

일본 미디어 아트 선구자 미야자마 타츠오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간의 순환, 삶과 죽음의 가치를 꾸준히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1부터 9까지 숫자가 역순으로 점멸하며 불교의 윤회 사상을 형상화한 'C.T.C.S. k'in' 시리즈를 비롯해 13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장소 서울 갤러리바톤
문의 02-597-5701



FESTIVAL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

전주 06.06~07

밤의 운치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열린다. '밤의 전주, 역사를 걷다'를 주제로 빛·문화유산·이야기·그림·공연·음식·여행·홍정 등 여덟 술사가 안내하는 14개 메인 프로그램과 씨름 대회, 한옥마을 골목길 투어 등 사전 예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소 전북 전주 풍남문, 전라감영, 풍패지관 및 한옥마을 일원
문의 063-232-9937



SHOW

<제25회 대전국제음악제>

대전 06.05~28

지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 대전국제음악제가 5월에 개막한다. 올해 주제는 이탈리아 작곡가 비발디의 협주곡에서 착안한 '조화와 영감'. 금난새의 평화콘서트, IMK 스트링 트리오, 아메리칸 컴포서스 등 오케스트라와 체임버 시리즈 총 8개 공연을 준비했다.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문의 1544-3751



SHOW

<암! 암! 암!>

전국 05.04~07.27

국립현대무용단이 어린이의 감각과 상상력을 춤으로 풀어낸 공연 <암! 암! 암!>을 무대에 올린다. '수의 춤' '자연의 춤' '시간의 춤' '뱀뱀! 춤' '나, 너 춤' 등 다섯 장면을 통해 어린이 관객을 무대의 일원으로 초대한다.
장소 전국 공연장
문의 02-3472-1420



2025 Korea Yeongdong World Traditional Music & Arts Expo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
2025.09.12(금)~10.11(토)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 일원
Includes QR codes for Instagram, Facebook, and YouTube, and logos for Chungcheongbuk-do and Yeongdong-gun.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
2025 제천국제한방 천연물산업엑스포
2025. 9. 20. (토)~10. 19. (일) 30일간
장 소 |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제천한방엑스포공원
Includes QR codes for Website, Instagram, and YouTube, and logos for Chungcheongbuk-do and Jecheon-si.

세 도시, 세 가지 맛 충북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인 충북은
햇빛과 바람, 땅과 시간이 빚어내는 자연의 맛을 두루 품은 곳이다.
서로 다른 맛을 지닌 제천, 영동, 청주 세 도시를 다녀왔다.

제천 지원 충북도청

가는 방법 청주에서 가까운 역은 오송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50분 정도 걸린다.

제천 가스트로 투어

충북 제천의 도심 골목부터 의림지까지, 지역의 맛을 음미하고 풍경을 따라 걷는
'가스트로 투어'는 단순한 한 끼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한다.



의림지 가스트로 투어 B 코스

**11:00
의림지 공용 주차장**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나 방문할 음식점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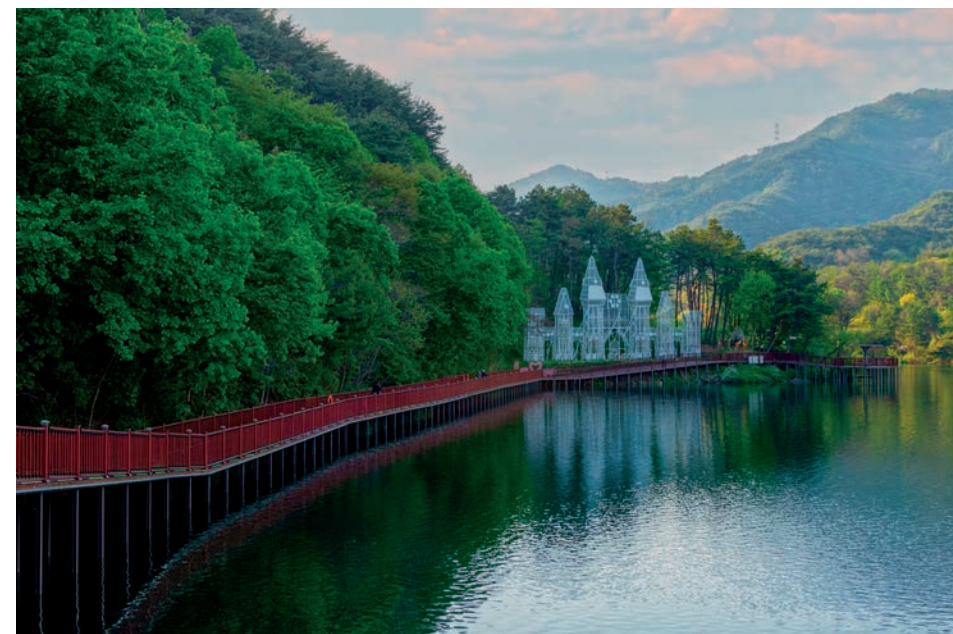
**11:10
오디향**
'건강한 자연 밥상'을 내는 한정식집. 오디를 올린 술밥에 뽕잎나물을 포함한 각종 나물을 비벼 먹는다.

**12:05
카페 피노**
술밭공원 옆 갤러리 같은 카페에서 홍차나 커피와 함께 의림지를 형상화한 디저트를 맛본다.

**12:45
비룡담저수지**
'제2의 의림지'라 불리는 제천의 대표 산책 명소.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13:15
카페 꼬네**
'2024 블루리본 서베이'에 이름을 올린 로스터리 카페. 다양한 원두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다.

**13:55
약선재**
한식 디저트 전문 카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정성 가득한 다과를 즐긴다.



'제2의 의림지'로 불리는 비룡담저수지.

입안에 머무는 풍경

여행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낯선 골목을 헤매기 위해 떠나고, 어떤 이는 지난 시간 속으로 스며들기 위해 떠난다. 충북 제천으로 떠난 이유는 '맛'이라는 감각을 쫓기 위해서다. 오래전부터 약초의 도시로 알려진 제천은 가스트로 투어(gastro tour)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각의 지도를 넓혀 가고 있다. '가스트로'는 위장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가스트로 투어는 음식을 매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경험하는 미식 여행이다.

2020년 6월 제천 시내에서 처음 시작된 이 투어는 단순한 맛집 순례가 아니다.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에 더해 오랜 세월 제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 위에 오른다. 참가자들은 A, B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2~3시간 동안 도심의 골목과 전통시장을 걸으며 다섯 곳의 식당에서 다채로운 음식을 맛본다. 해설사는 음식 하나하나에 얹힌 자연과 지역의 풍습 등을 들려준다. 덕분에 한 점시의 음식이 단순한 끼니를 넘어 삶과 문화를 배우는 경험이 된다.

가스트로 투어의 식당 선정 기준은 명확하다. 현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단골집이자 관광객에게도 입소문 난 맛집만 골라 리스트를 완성한다.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덩실분식' 참쌀떡은 오픈과 동시에 품절되기 일쑤지만, 투어 참가자에게는 기다리지 않고도 그 귀한 맛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내토전통시장에선 빨간 양념을 입힌 어묵이 침샘을 자극한다.

올해 4월부터는 새로운 코스로 의림지 가스트로 투어가 추가됐다. 제천의 대표 명소인 의림지를 시작으로 술밭공원, 비룡담저수지 등을 산책하며 주변의 맛집들을 방문한다. 평일에도 긴 줄이 늘어서는 원조크림 탕수육 식당인 '낭만짜장'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생곤 드레팝이 소개된 뒤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호반식당'도 바로 입장할 수 있다. 근처 '약선재'에서는 명인의 손맛을 전수받은 주인이 직접 만든 궁중다과상이 정갈하게 차려진다. 제천의 가스트로 투어는 단지 먹는 즐거움만 주는 투어가 아니다. 음식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천천히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다.

의림지도 식후경

의림지 가스트로 투어를 앞두고 A 코스와 B 코스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생콘드레밥과 크림 탕수육, 궁중 쌍화차가 포함된 A 코스는 근사한 미식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감성적인 카페 탐방이 중심인 B 코스는 나들이하는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민 끝에 마음이 끌린 건 밥보다 빵, 식사보다 커피였다. 한 끼 식사와 디저트 그리고 여유로운 산책까지, 이 모든 경험을 2만 원대 후반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투어는 오전 11시에 시작했다. 의림지 주차장 건너편, '가스트로 투어' 안내판 앞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났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오늘의 동선과 음식점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고, 첫 번째 장소인 '오디향'으로 향했다. 오디향이라니 이름부터 건강한 느낌. 간판 옆에는 '제천시 인증맛집'과 '의림지대표맛집'이라는 문구가 나란히 붙어 있다. 이곳의 특징은 직접 재배한 오디와 꾸지뽕, 아로니아를 식재료로 쓴다는 점이다. 상 위에는 이미 뽕잎 비빔밥 정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다. 오디를 곁들인 샐러드, 탕글 탕글한 삼색 묵, 뽕잎 장아찌, 한 입에 먹기 좋은 두 종류 전도 식욕을 자극한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술밥 위에는 큼지막한 오디와 버섯이 올라가 있다. 밥을 푸고 뽕잎 나물과 함께 비벼 한 숟가락 크게 입에 넣었다.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 씹을수록 오디의 은은한 단맛과 상큼함이 배어나온다. 속이 편안해지는 맛. 정성이 느껴지는 한 끼다.

다음 장소로 향하는 길에 배도 꺼뜨릴 겸 술밭공원을 산책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술향이 스치고, 발아래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힌다. 10분쯤 산책을 즐긴 후 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카페 피노(Fino)에 도착했다. '피노'는 스페인어로 소나무를 뜻한다. 앤틱와 빈티지 스타일로 꾸민 카페에는



1 의림지는 삼국 시대에 축조됐다고 추정되는 인공 저수지로 제천10경 중 제1경으로 꼽힌다. 둘레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2, 3 프랑스 자수 공방도 운영하는 카페 피노에서 홍차와 대파 스콘, 티그레를 맛본다. 4 의림지 가스트로 투어는 의림지 주차장 건너편 안내판 앞에서 시작된다. 5 오디향에서는 직접 재배한 뽕잎과 오디를 활용한 뽕잎 비빔밥 정식을 낸다.





프랑스 자수로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과 소품이 전시되어 있다. 프랑스 자수 공방을 겸한 카페에선 의림지의 낮과 밤을 형상화한 디저트 티그레와 대파 스콘을 선보인다. 먼저 맛을 볼 건 대파 스콘. 성인 여자 주먹만 한 크기의 스콘에 대파가 콕콕 박혀 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콘에서 대파의 단맛과 고소한 버터 향이 느껴진다. 이어 나온 티그레는 프랑스식 구움 과자로 아몬드 반죽 안에 말차와 초콜릿 두 가지 맛의 가나슈가 채워져 있다. 말차 맛은 의림지의 고요한 낮을, 초콜릿 맛은 그윽한 밤을 상징한다는 설명에 미소가 지어진다. 두 조각을 먹는 사이, 의림지의 낮과 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오감 만족, 가스트로 투어

의림지 가스트로 투어의 진짜 매력은 식사와 디저트 사이, 숨을 고르는 산책 시간에 있다. 지그재그로 뻗은 뚝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시야가 트이면서 비룡담저수지가 잔잔한 수면을 드러낸다. 저수지 둘레를 따라 난 비룡담길은 무장애 나눔길인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의 일부여서 경사 없이 평탄하다. 누구에게나 열린 둘레길을 걷다 보면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윤슬과 새소리만 존재하는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다.

목이 살짝 마를 때쯤 다음 장소인 카페 '꼬네'로 향한다. 2008년 문을 연 이 로스터리 카페는 '2024 블루

1 카페 피노는 잔디가 깔린 야외 테라스 공간을 갖췄다. 2 전통 약선의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약선재에서 전통 다과를 즐긴다. 3 카페 꼬네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질 좋은 커피를 맛본다. 4 술밭공원에서 지그재그로 난 뚝을 오르면 비룡담저수지에 도착한다.

리본 서베이에 이름을 올렸다. 입구에 들어서자 고소한 원두 향이 먼저 방문객을 반긴다. 박주성 대표가 직접 로스팅을 하는데, 묵직한 보디감이 특징인 다크 그린 라인 2종과 산뜻한 산미가 인상적인 오렌지 라인 3종, 화사한 꽃 향의 스페셜 라인 1종을 선보인다. 투어에 포함된 아메리카노는 브라질, 과테말라, 콜롬비아 세 가지 원두를 블렌딩해 단일 원두에서 경험하기 힘든 복합적인 향미가 느껴진다. 고소함과 단맛, 산미가 기분 좋게 균형을 이룬다.

커피 한 잔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뒤 다시 길을 나선다. 15분쯤 걷다 보면 마지막 장소인 약선재에 닿는다.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고자 2024년 문을 연 이곳은 강미경 대표가 전통 약선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강 대표가 손수 빚은 금굴정과와 콩고물을 문힌 도라지정과 등이 식용 꽃과 함께 소반에 정성스레 차려진다. 도라지를 찌고, 당침하고, 다시 삶아 말린 도라지정과와 씹을수록 도라지 특유의 씹싸름한 향이 입안에 감돈다. 금굴정과는 투명한 겹질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듯한 색감을 지녔다. 입안에 넣으면 새콤함과 은은한 단맛이 순식간에 퍼진다. 약선재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다과를 맛볼 수 있는 건강 대표의 남다른 노력 덕분이다. 그는 윤숙자 명인을 포함한 여러 전통 한과 장인을 찾아다니며 궁중병과를 배웠다. 겨울철 금굴을 대량 구매해 1년 치를 준비하고, 정과 하나에만 3~5일을 매달리기도 한다.

가스트로 투어를 마친 뒤에도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 것은 특정한 맛뿐만이 아니었다. 저수지에서 느낀 평화로움, 공원의 소나무 향, 그리고 정성 어린 음식에서 전해진 손의 온기도 있었다. 가스트로가 단지 위장을 뜻하는 것만은 아닌, 감각 전체를 아우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Jecheon Gastro Tour

Jecheon invites you to travel a little differently.

Under the name Gastro Tour, this city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offers a unique way to experience the harmony of nature, people, and food.

A Feast for the Senses

More than a food crawl, the Gastro Tour is a culinary journey that weaves together local ingredients, community stories, and cultural heritage. First launched in June 2020 in downtown Jecheon, the tour turns each dish into a narrative—telling the story of the region and the lives rooted in it. Participants choose between two courses, A or B, and spend 2 to 3 hours exploring alleyways and traditional markets with a cultural guide. Along the way, they visit five eateries, each stop offering a different local specialty. Guides share the tales behind the dishes, local customs, and the people who bring them to life. Restaurant selection is deliberate—only local favorites with strong reputations made the list. Highlights include Deongsil Bunsik, known for its chapssaltteok (sweet rice cake with red bean filling); the red fishcakes at Naeto Traditional Market; and craft beer brewed right in Jecheon. A new course launched in April this year: the Uirimji Gastro Tour. Starting at the iconic Uirimji Reservoir, the tour continues on foot through Biryongdam Reservoir and Solbat Park, stopping at beloved cafes and restaurants along the way. There are two themes to choose from: the Authentic Culinary Tour, which features stops like Nangman Jjajang (famous for original-style cream sweet-and-sour pork), Yagseonjae (where guests are served traditional Korean sweets), and Café Cogne (offering hand-roasted specialty coffee); and the Emotive Café Tour, which focuses on Jecheon's most atmospheric dessert and coffee spots. Each tour requires a minimum of four participants to begin.



영동 와인 여행

충북 영동. 예부터 포도로 이름난 이 고장에서 비건 와인을 처음 맛본 뒤,
청수 품종의 화이트 와인에 매료되었다.
와인은 이 땅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한 모금의 서사다.

1 영동와인터널 입구. 길이 420미터의 터널에 와인 문화관과 세계 와인관, 레스토랑과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 2 와인 체험관에서는 영동 지역 35개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을 판매한다.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예술

포도밭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 주는 곳이다. 늦은 봄엔 연둣빛 새순이 얼굴을 내밀고, 초여름엔 포도나무 줄기가 하늘을 향해 뻗는다. 한여름의 강렬한 햇살 아래 잎은 더욱 진해지고, 이삭처럼 맺힌 포도알이 하나둘 부풀어 오른다. 그러다 햇살이 부드러워지고, 바람에 약간의 서늘함이 감돌기 시작하면 수확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나하나 손으로 딴 포도송이는 바구니에 담겨 다음 여정을 준비한다. 그 끝자락에 와인이 있다. 어두운 와인 터널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는 와인은 침묵을 견디며 숙성의 시간을 보낸다.

충북 영동은 대한민국에서 포도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고장이다. 그 양이 전국 생산량의 12.7퍼센트를 차지하는 4만 1000여 톤에 이른다. 영동의 포도밭에선 캠벨얼리와 머스캣 베일리 에이, 충량, 거봉, 샤인머스캣 등 식용 품종은 물론 청수, 청포랑, 델라웨어, 머스캣 오브 알렉산드리아 같은 와인 제조용 포도도 자란다. 영동의 포도는 향이 유독 진한 것이 특징. 둥글고 단단한 알갱이는 과하게 화려하지 않고, 담백한 빛깔을 품고 있다. 밤낮의 기온 차가 큰 영동의 기후는 포도를 단단하게 키우고, 단맛과 신맛의 농도를 진하게 만든다.

영동에서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술을 ‘빚는다’기보다 ‘기다린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 직접 키운 포도 열매 하나하나에 햇살을 입히고, 맛을 고르고, 다시 병 속에서 계절을 재운다. 사람의 개입이 적을수록 와인 맛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느림과 절제가 이 지역만의 맛을 완성한다.

영동 와인의 역사는 1960년대에 포도 농가에서 직접 포도를 으깨고 발효시켜 가족끼리 나눠 마신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95년에 본격적인 와이너리 육성이 시작됐다. 현재는 농가형 와이너리만 35곳인데, 농가마다 재배하는 포도 품종과 발효 기술, 숙성 기간이 달라 각기 다른 개성의 와인을 맛볼 수 있다. 땅과 사람 그리고 계절의 합주. 한 병의 와인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길을 떠난다.

영동 와인의 모든 것, 영동와인터널

영동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2018년에 문을 연 영동와인터널. 영동의 와인을 알고 싶은 여행자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다. 입구에 다가서자 오크 통을 닮은 외관과 커다란 와인병 조형물이 이곳이 와인을 주제로 한 공간임을 알려 준다. 터널 길이는 총 420미터. 실제 동굴이나 페터널을 활용한 국내 다른 지역의 와인 터널과 달리 이 와인 터널은 인공적으로 조성됐다.



1

천천히 터널 안으로 걸음을 옮긴다. 가장 먼저 만난 곳은 와인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와인 문화관. 영동 와인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영동 와인관과 전 세계 와인을 소개하는 세계 와인관, 실제 와인 저장고를 옮겨 놓은 듯한 와인 저장고도 차례로 만난다. 와인이 나오는 영화 장면을 보여 주는 전시관과 와인 레스토랑, 포토존 등 그 외의 볼거리도 다양하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와인의 역사와 제조 과정, 나라별 특징도 인터랙티브한 전시물 덕분에 흥미롭게 다가온다.

가장 인상 깊은 곳은 터널 벽면을 따라 와인병이 길게 늘어선 영동 와인관이다. 전시된 와인은 영동 지역 35개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것으로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와인의 맛이 궁금해 와인 체험관으로 향했다. 오늘의 시음 와인은 샤인머스캣으로 만든 소계리 와인과 깔끔한 맛이 매력인 르보까쥬 드라이 와인, 그리고 은은한 단맛의 봉황 스위트 와인 세 종류. 하나같이 향이 풍부하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데 타닌의 뽀얀맛도 적어 와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즐기기가 좋다.

비건 와인을 찾아서, 갈기산포도농원

와인 터널을 나와 갈기산 자락으로 향한다. 초록빛이 번지기 시작한 초여름의 포도밭 사이로 갈기산포도농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2022년 국내 최초로 비건 와인 인증을 받은 포엠 로제와 포엠 화이트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다. 비건 와인은 와인 생산 과정에서 동물성 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와인을 말한다. 포도밭을 일구는 과정부터 특별하다. 동물성 퇴비 대신 식물성 퇴비를 사용하고, 병을 밀봉할 때

1영동 지역 35개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이 전시된 영동 와인관.
2, 3 갈기산포도농원에서는 로제·화이트 비건 와인과 레드 와인을 생산한다. 1층 공간에서는 와인 시음과 와인 하이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남기현 갈기산포도농원 팀장이 증류기를 살펴보고 있다. 올 하반기엔 고도수의 증류주가 출시된다.
5장밋빛을 띠는 포엠 로제 와인. 2022년 비건 와인 인증을 받았다.

쓰는 왁스나 접착제도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다. 가장 어려운 건양조과정이다. 보통 와인을 맑게 만들기 위해 동물성 청징제를 사용하는데, 이곳에선 자연 침전 방식이나 식물성 여과제만 고집한다.

“시아버지께서 1990년부터 무농약으로 포도를 재배했고, 2000년부터는 유기농으로 전환했어요.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출발점이었죠. 비건 와인도 같은 이유예요. 수확한 포도에 비해 생산되는 와인의 양이 적고 관리도 까다롭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한지현 갈기산포도농원 대표의 말이다. 덕분에 이곳의 비건 와인은 아시아와인트로피 골드상과 우리술품평회 과실주대상 등 국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갈기산포도농원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모두 다섯 종류. MBA 품종 포도와 토종 머루를 블렌딩한 포엠 레드 드라이와 포엠 레드 스위트, 킹텔라웨어 품종으로 만든 포엠 로제, 청수 품종의 포엠 화이트, 그리고 2022 세계지식포럼 건배주로 선정된 ‘또다른 시선’이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건 로제 와인이다. 국내



2



3



4



5



에서 킹델라웨어 품종을 재배해 사용하는 곳은 갈기산포도농원이 유일하다. 병을 열자마자 과일 향과 꽃내음이 은은하게 퍼지고, 한 모금 머금자 시트러스 계열의 산뜻한 산미가 입안을 가득 채운다. 한 잔의 비건 와인에 땅을 지켜 온 시간과 세대를 이어 온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시나브로’ 매력에 빠지다, 불휘농장

영동 와인 여정의 종착지는 불휘농장이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한 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말 그대로 ‘소믈리에 패밀리’ 와인너리다. 불휘농장의 이근용 대표는 와인의 힘은 품종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농장에서 재배하는 포도는 10여 종. 이 대표는 2007년 귀촌해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실험하고 있다.

국내 와인너리 대부분이 캠벨엘리 품종으로 레드 와인을 만들던 2000년대 후반, 그는 청포도 한 송이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청수, 청명하고 맑은 산미를 지닌 이 품종은 당시만 해도 양조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는 청포도의 투명한 매력을 와인에 담아 내기로 결심했고, 2012년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가 탄생했다. 청수로 만든 브랜드 ‘바야흐로’도 있다. 와인을 다섯 병 이상 증류해야 한 병이 나오는 귀한 술로 해마다 단 500병만 생산한다.

이 대표가 국내외 와인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청수 화이트 와인 한 잔을 권한다. 먼저 청포도의 싱그러운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뒤이어 잘 익은 과일의 단맛이 입안에 번진다. 차갑게 즐기면 상큼한 첫인상과 청량한 피니시가 ‘이것이 바로 여름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불휘농장에서 생산하는 와인 종류는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를 포함해 레드 3종, 화이트 2종, 스파클링 4종이다. 스파클링 라인업은 이 대표의 아들 이병욱 씨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사과, 샤인머스켓, 나르샤, 청수와 모스카토 블렌딩까지, 매년 새로운 조합이 등장하며 불휘농장의 와인 세계가 넓어지고 있다.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뒤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와인 족욕, 뽕쇼·샹그리아 만들기, 소규모 양조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순우리말처럼 불휘농장은 오늘도 부지런히 와인을 빚고, 한 병 한 병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1 이근용 불휘농장대표는 청수 품종을 포함해 10여 종의 포도를 재배한다. 2, 5 불휘농장에서는 와인 족욕, 포도 따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3 2012년 출시한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 와인. 잘 익은 과일 향이 특징이다. 4 불휘농장의 와인 브랜드 ‘시나브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Yeongdong Wine Journey

Long known for its grapes, Yeongdong, Chungcheongbuk-do Province is now being reborn as a land of wine and sweeping vineyard landscapes. In Yeongdong, wine is time, wine is season, and wine is the voice of the soil.

The Art Completed by Patience

Yeongdong is Korea's largest grape-producing region. In addition to table grapes like Campbell Early, Muscat Bailey A, Kyoho, and Shine Muscat, wine-dedicated varieties such as Cheongsoo, Cheongpolang, Delaware, and Alexandria are also cultivated here. The wine culture in Yeongdong began in the 1960s, when local farmers would crush and ferment their own grapes to share among family members. It wasn't until 1995 that full-fledged winery development began, and today, there are over 35 small-scale, family-run wineries. Each farm produces wines with distinct flavors and aromas, shaped by their unique grape varieties, fermentation methods, and aging periods. Among them, two wineries are especially worth visiting: Galgisan Grape Farm, which in 2022 produced Korea's first certified vegan wines—Four M Rose and Four M White; and Sinabro Winery, which uses the Cheongsoo grape to craft its Sinabro Cheongsoo White and the brandy Vallajro. Visitors can enjoy more than just tastings—there are also experiences such as wine foot baths and mulled wine-making. To discover everything Yeongdong wine has to offer, head to the Yeongdong Wine Tunnel, opened in 2018. This 420-meter-long tunnel features a Wine Culture Hall that explores the origins of wine, a Yeongdong Wine Hall showcasing the identity of local wines, a World Wine Hall presenting wines from across the globe, as well as a wine restaurant and dedicated photo zones. At the Wine Experience Hall, visitors can sample three different types of wine free of charge.

청주 쌀을 찾는 여정

소로리 들녘에서 발견한 한 줌의 법씨. 충북 청주는 인류가 수확한 가장 오래된 야생 벼의 출토지다. 쌀의 도시 청주에서 쌀로 빵을 굽고, 술을 빚는 사람들을 만났다.

1 소로리쌀상회의 인테리어 소품은 모두 쌀이다. 소로리 마을에서 수확한 쌀과 잡곡, 이삭이 달린 벼단이 종류별로 놓여 있다. 2 충북대학교 박물관 1전시실에 소로리에서 출토된 고대 벼와 야생 벼, 유사 벼의 법씨를 전시한다.



세상 모든 벼의 고향

1만 5000년 전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법씨 하나. 충북 청주 소로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야생 벼인 소로리 법씨가 있다.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시간을 따라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 향했다. 1970년에 개관한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보물 김길통 좌리공신교서를 포함한 국가유산과 매장유산 등 5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1전시실 가장 안쪽 진열장에 인류가 수확한 가장 오래된 야생 벼인 소로리 법씨가 있다. 그 시기가 중국 후난성 옥섬암 동굴유적에서 출토된 법씨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섰다. 소로리 유적 A 지구 토탄 II 구역에서 출토된 고대 벼 18알, 유사 벼 41알 등 총 59알은 충북 일대에서 다양한 야생 벼가 자라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법씨와 함께 출토된 흙날연모(돌칼)에는 벼를 자른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이 벼를 수확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을 나서면 자연스레 소로리 마을로 발길이 향한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소로리쌀상회는 이 작은 곡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을에서 수확한 쌀로 빵과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카페는 베이커리를 넘어, 쌀의 다채로운 변주를 보여주는 전시장에 가깝다. 쌀의 또 다른 모습은 장회도가에서 만날 수 있다. 청주의 초정리 약수, 생명력을 간직한 쌀, 그리고 장인의 기다림이 어우러진 양조장에서는 약주와 탁주가 탄생한다.

술잔을 비운 뒤, 청주 외곽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공간’을 찾았다. 거대한 정원에 자리한 이 카페의 테마도 쌀이다. 쌀과 홍국을 반죽해 구운 식빵, 쌀가루로 빚은 쫄깃한 단팥빵이 인기 메뉴다. 소로리 법씨에서 출발한 여정은 1만 5000년 전 누군가가 베어 낸 벼 한 포기, 쌀 한 톨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 준다.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이야기, 소로리쌀상회

소로리 마을에 도착하자 모내기를 앞둔 논두렁 사이로 아담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쌀을 주제로 한 카페이자 마을 재생 사업의 거점, 소로리쌀상회다. 3년 전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芒種,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를 뿌리기 좋은 시기로 6월 6일 무렵)에 문을 열었다. 소로리쌀상회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다. 마을 주민과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만든 로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쌀 두 알이 겹친





모양의 소로리쌀상회 로고는 이 공간의 특징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드러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먼저 방문객을 반긴다. 소로리마을에서 수확한 쌀로 만든 빵과 간식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입에 넣자마자 바삭하게 부서지는 범씨 쿠키, 쫄득하게 씹히는 쌀식빵, 담백한 향이 입안에 오래 남는 치아바타, 그리고 촉촉한 쌀 바게트까지, 쌀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중 지난해 청주시를 대표하는 관광 기념품으로 선정된 빨간 쌀 식혜는 꼭 맛봐야 한다. 햅쌀과 유기농 발효 보리 새싹으로 만든 엿기름, 직접 담은 생강청에 빨간 쌀가루를 더해 고운 붉은빛의 식혜를 완성했다. 은은한 생강 향이 퍼지고, 혀끝에선 달콤함과 구수함이 뒤섞인다. 카페의 인테리어 소품도 온통 쌀이다. 소로리마을에서 수확한 쌀이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고, 한쪽에는 커다란 쌀 리스와 벃단도 걸려 있다. 더 인상적인 건 카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빵을 굽는 이도, 커피를 내리는 이도 모두 마을의 어르신들이다. 그리고 서툴지만 빵을 담아 주는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진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이정하 대표가 있다. 그는 소로리가 범씨의 출토지라는 점을 기반으로 마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늘 고민한다. 2029년 소로리의 옛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 자리에 선사박물관이 들어선다. 소로리 마을 사람들에게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 박물관에는 소로리 범씨의 출토 과정과 선사유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1, 2, 3 소로리쌀상회는 이정하 대표를 포함해 소로리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한다. 이들은 쌀로 빵을 만들거나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 주기도 한다. 진열대에는 빵 재료인 쌀과 곡물을 함께 전시했다. 4, 5 하루에도 수차례 갓 구워 낸 빵을 먹을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 공간.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를 따라 테이블이 놓여 있다.

빵 굽는 정원, 공간

청주에서 쌀 카페를 언급할 때 '공간'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홍국쌀빵. 붉은 누룩인 홍국과 쌀로 구워 낸 식빵은 칼로자를 필요가 없다. 손으로 툭툭 뜯어 한 조각 먹으면 담백한 곡물 향이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진다. 쌀 단팥빵도 빼놓을 수 없다. 쌀가루로 만들어 쫄득하고, 단팥 소는 달지 않고 구수하다. 찰기 있는 식감도 재미있다.

쌀 메뉴 외에도 바삭한 결이 살아 있는 소금빵, 부드러운 플레인 수플레, 돌돌 말린 페이스트리에 시럽을 듬뿍 뿌린 몽블랑, 계절 과일을 가득 담은 케이크 등이 대표 메뉴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차도 있다. 정원에서 자라는 소나무 순을 따서 청으로 담근 솔순차인데, 매년 봄에 3개월만 한정판 매한다. 소나무 순이 듬뿍 담긴 전주자뚜껑을 열자 향긋한 솔향기가 풍긴다. 첫 모금은 쌉싸래한 풀향이 돌고, 다음 한 모금은 입안에서 은은한 숲 향이 번진다.

카페 공간은 2019년 충북 민간정원 3호로 등록된 '공간 정원' 안에 자리한다. 부지 면적은 축구장 다섯 개 크기인 약 4만 제곱미터. 이 거대한 정원은 허춘일 공간 정원 대표가 1998년부터 20년 넘게 손수 조성했다. 150여 종의 수목, 9000주 이상의 나무가 자라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소나무 군락과 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수국이 볼거리다.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도 있어 찬찬히 걸으며 풍경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지역 식재료로 빚은 약주, 장희도가

청주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는 예부터 탄산 약수로 유명하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약수는 조선 시대 세종대왕의 병을 치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을 곳곳에 자리한 샘터에선 지금도 사람들이 약수를 받고, 그 물로 술을 빚는다. 바로 이곳 초정리에 자리한 장희도가는 장정수·김주희 부부가 2011년에 귀촌해 문을 연 양조장이다. 두 사람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장희도가라 이름 지었다. 이 공간에서 부부는 조선 시대 궁중의 술을 현대적으로 재현한다. 세종대왕 재위 시절 어의 전순의가 쓴 <산가요록>의 '주방문(酒方文)'을 바탕으로 복원한 세종대왕 어주(약주, 탁주)가 장희도가의 대표 술이다. 청주에서 나는 쌀과 초정리 약수로 빚은 약주는 맛이 맑고 섬세하다. 산뜻한 단맛과 함께 배꽃과 풋 사과 향이 은은히 감돈다. 목을 타고 흐르는 감촉이 부드럽고, 입안을 채우는 향은 그윽하다. 술이 지닌 깊이와 개성은 철저한 공정 관리에서 비롯된다. 스무 번 이상 깨끗이 씻은 쌀로 고두밥을 지은 뒤 이를 찌고 누룩을 섞어 중저온에서 천천히 발효한다. 이후 60~90일간 저온 숙성을 거쳐야 비로소 한 병의 술이 완성된다. 이 모든 과정을 부부가 오롯이 해낸다. 기계보다 손의 감각을, 양보다 질을 중



1 장희도가 김주희 대표가 발효가 끝난 막걸리를 큰 그릇에 붓고 있다. 2 체험실에는 막걸리 재료인 곡물과 향신료 등이 진열되어 있다. 3 장희도가는 술뿐 아니라 전통 발효 식초도 생산한다. 4 충분히 식힌 고두밥에 누룩을 넣고 손으로 고루 섞은 뒤 1차 발효를 거친다. 5 장희도가에서 생산하는 '세종대왕 어주'와 '쑥'을 넣어 만든 약주 '쑥소리움'.



요시하는 양조법이다. 그러니 연간 생산량은 많지 않다. 장희도가의 술은 언제 마셔도 변함없는 맛을 유지한다. 부부의 오랜 연구 덕분. 양조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원하는 맛의 술을 만들 때까지 탐구와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 부부가 처음 술을 빚을 당시, 살균하지 않은 전통주의 유통기한은 보름 남짓에 불과했다. 이들은 미생물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90일로 늘려도 술맛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맛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결과는 식약처에 제출한 유통기한 설정 시험 성적서를 통해 입증됐다. 장희도가는 술을 통해 배움을 나누기도 한다.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이후 제철 농산물로 빚는 막걸리 체험, 발효 식초 만들기, 체질에 따라 술을 빚는 사상체질 전통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체험실 벽면에는 술의 재료가 되는 곡식과 약재, 허브, 향신료가 빼곡히 놓여 있다. 방문자는 직접 손으로 고두밥과 누룩을 섞고, 술과 지게미를 천천히 분리해 가며 술이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내년에는 장희도가의 이름을 내건 소주도 선보일 예정이다. 술을 사랑하는 부부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Cheongju: The Time of Rice

Cheongju,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has long carried the time of rice within it.

It all began with a handful of ancient rice grains unearthed in the fields of Soro-ri, Cheongwon-gu. Even today, those grains echo through the city's culinary traditions and cultural identity.

A Story That Begins with a Single Grain

The Soro-ri rice grains discovered in Oksan-myeon, Heungdeok-gu, Cheongju, are the oldest known wild rice in the world. Dated to 15,000 years ago, they predate even the grains found in the Yuchanyan Cave in Hunan Province, China, by about 4,000 years. Excavated from the peat layer of Area A at the Soro-ri site, archaeologists found a total of 59 grains—18 ancient rice and 41 similar variants—offering evidence that diverse strains of wild rice once thrived across the Chungbuk region. It's only natural to follow in your steps to Soro Village itself.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is the Soro Rice House, a café that serves baked goods and desserts made with rice harvested from local fields. Another side of rice awaits at Janghee Doga, a local brewery. Here, Cheongju's famous Chojeong mineral water is blended with local rice to craft traditional liquors such as Sejong Daewang Eoju. No exploration of Cheongju's rice culture is complete without a visit to Bakery Café Gonggan. Nestled in a garden the size of five soccer fields, this café specializes in rice-based breads and pastries. After your treat, stroll through the surrounding landscape of pine, maple, hydrangea, and rare ornamental trees.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달간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25개 기관과 180여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국공립 국악관현악단의 공연과 국악버스킹, 30여개국의 해외초청 공연 등 총 200여개의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기 전시 및 제작체험, 무형유산 시연, 주제 전시, 이벤트, 학술 회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과 전통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www.yeongdongexpo2025.or.kr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에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엑스포는 천연물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약초를 활용한 심신 안정 프로그램, 아로마테라피 체험, 자연 재료를 활용한 아트 센터 등 천연물의 치유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한다.

문의 www.jcexpo.kr

나의 여름 은신처, 해남

청신한 숲길과 정원, 그리운 바다를 찾아 남쪽으로 달린다.
초여름, 전남 해남의 가장 눈부신 시절을 누릴 때다.

가는 방법 해남에서 가까운 역은 목포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1, 3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산이정원 풍경. 올 하반기에 추가로 개장하는 권역에는 블루베리, 고구마 등 해남 대표 작물을 식재해 다채로운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2개별 테마 공간은 예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야외 행사를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4 연못 걸 건물 '가든 뮤지엄'에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가 자리한다.



정원 도시 해남

해남군은 남도의 정원 문화, 특색 있는 자연 경관을 활용해 '정원 도시 해남'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올해 하반기 2차 개장을 앞둔 산이정원을 비롯해 해남 최초의 사립 수목원 '포레스트수목원', 해남 민간 정원 1·2호 '문가든'과 '비원', 고산 윤선도 유적지 내에 자리한 '고산 오우가 정원' 등 유려하고 싱그러운 정원 풍경이 여행을 한층 풍성하게 한다.

포레스트수목원 대둔산 서쪽 자락에 자리한 수목원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국가 화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이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다. 400여 종 9000여 그루의 수목이 만개하는 6월이면 '땅끝 해남 수국 축제'를 열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손님들을 반긴다. 봄에는 수선화, 가을에는 팜파스 그라스가 장관을 이룬다.

주소 전남 해남군 현산면 봉동길 232-118
문의 061-533-7220

문가든 해남군이 지정한 첫 민간 정원. 들꽃과 빛바랜 향아리로 꾸민 소박한 숲길, 산책로 그트머리에 정박한 나룻배, 산뜻한 카페 건물이 그림처럼 조화롭다. 옥상 테라스에 앉으면 흑석산과 오류제가 이루는 청량한 풍경이 손에 닿을 듯 펼쳐진다. 정원을 둘러싼 저수지 오류제는 수달이 서식하고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 보고다.

주소 전남 해남군 계곡면 오류골길 64
문의 061-535-5758

비원 덕음산 남쪽에 자리한 카페이자 민간 정원이다. 지난해 '전남 예쁜 정원 콘서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눈길을 끌었다. 102종 6800여 그루의 수목 자원을 보존해 계절마다 색다르게 변화하는 풍광을 보여 준다. 자조빛 해남 고구마의 맛과 향을 그대로 재현한 '고구마뽕'과 함께 티타임을 즐기며 느긋하게 머무르기 좋다.

주소 전남 해남군 삼산면 가재길 171
문의 061-535-1711

1

땅이 된 바다, 정원이 된 산 산이정원

바다처럼 드넓은 영암호를 건너면 연둣빛 구릉과 붉은 황토밭이 이루는 비옥한 풍경을 맞닥뜨린다. 해남 서북부에 펼쳐진 풍요의 땅, 산이반도에 다다른 것이다. 완만하고 부드러운 능선, 간척 사업으로 형성된 호수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활용한 식물 원인 산이정원은 산이면에 개발 중인 스마트 시티 '솔라시도'의 지향점을 보여 주는 랜드마크이자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생태 문화 공간을 꿈꾼다. 청띠제비나비가 서식하는 후박나무 군락지 '나비의 숲', 탄소 저장 수종 2050그루를 식재해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약속의 정원', 산이반도의 지형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어린이 놀이터 '노리정원', 홍가시나무로 조성한 미로를 따라 걸으며 나의 반려 나무를 탐색하게 하는 '생명의 나무' 등 다채로운 테마 정원이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끌어안는다. 그런가 하면 이재효 작가의 지구 모양 철제 조각 '0121-1110=116501'과 이영섭 작가의 '어린 왕자', 거인의 양팔에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유명호 작가의 '브리지 오브 휴먼' 등 시선을 끄는 예술 작품도 여럿이다. 특히 이일호 작가의 코르텐강 구조물 '변형된 큐브'와 수령 150년의 동백나무가 포개지는 장면은 정원의 눈부신 풍광에 방점을 찍는다.

주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664 **문의** 061-536-3001



2



3

4

자연 한 모금, 소리 한 자락 설아다원

산자락에서 흘러내린 바람이 녹나무의 여린 잎을 흔들고, 재잘대는 새소리가 가슴께를 간질인다. 나무 그늘막 아래 돌아난 차있는 싱싱한 향내를 머금은 채 머물어 간다. 두륜산 남쪽에 펼쳐진 작은 별세계, 설아다원의 정경이다. 이곳은 '절기놀이 사랑모임'과 '남천다화'를 통해 초의선사와 한국의 전통차에 대해 공부하고 몸소 해남의 다맥을 이어 온 오근선 대표, 그리고 풍물과 소리에 능한 팔방미인 마승미 대표 부부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땀으로 일군 유기농 차밭이자 문화 공간이다. 우연히 찾아온 객들을 맞이 위해 꾸렸다는 한옥 스테이와 차실은 단출하면서도 온화한 활기가 넘친다. 환대 어린 한 잔의 차와 '녹차아리랑' 한 자락을 음미하고, 춤추듯 넘실거리는 연둣빛 차밭을 감상하며 공감각적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최근에는 '티 마스터스컵'과 '골든티어워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2대 오울림 대표가 합세해 브랜드의 저변을 넓히는 '모먼트해남'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차잎 본연의 맛과 향을 입체적으로 돋워 낸 블렌드 티 '숲의 위로' '오후의 햇살, 땅끝' '깊은 맑음' '싱그러운 산책' 등을 개발하는 한편, 산뜻한 티 페어링 코스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차를 향한 감각을 활짝 열어 준다.

주소 전남 해남군 북일면 삼성길 153-21 문의 061-533-3083



1 설아다원은 '향기 나는 싹의 동산'을 의미한다. 차밭에는 녹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감나무가 우거져 온전한 숲 생태계를 이룬다. 2 다원 안팎에서 오울림 대표의 모먼트해남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 차밭에 딸린 카페에서 그가 개발한 블렌드 티를 음미하거나,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리는 야간 차 체험 프로그램 '도깨비 나-드리'를 즐겨 보자. 3 마승미 대표는 '진도아리랑'을 개사한 '녹차아리랑'을 선보인다. 어느새 찾자리는 작은 콘서트가 된다.



여기도 가 보세요

해창주조장 쌀의 순수하고 담백한 품미와 목직한 양감이 매력적인 해창막걸리. 오랜 세월 애주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술의 본산이 바로 해남 화산면 해창마을이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시바다 히코헤이가 세운 미곡창고에서 출발한 해창주조장은 해방 이후 한국인 사업주의 손에 넘어온 이래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2008년 오병인 대표가 인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전국의 주조 명인을 찾아다니며 막걸리 제조법을 공부한 오대표는 은은한 단맛과 특유의 감칠맛을 살린 프리미엄 막걸리를 선보여 해창이란 이름을 보다 널리 알렸고, 최근엔 증류식 소주 '해창대장경'을 출시해도 한번 주목받았다. 해창주조장을 찾았다면 술맛만큼 아름다운 정원도 함께 즐긴다. 남천, 육박나무, 사스레피나무, 석류나무, 배롱나무 등 40여 종의 수목이 우거진 정원엔 이끼와 자잘한 들꽃이 신비로움을 더한다.

주소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 1

문의 061-532-5152



1

3

걷고 기도하고 헤아리다 두륜산과 대흥사 계곡

태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소백산맥은 해남반도에 다다라 비로소 끝자락을 펼친다. 그곳이 바로 두륜산이다. 삼산면과 현산면, 북평면 등지에 걸친 너른 산은 주봉인 가련봉을 비롯한 여덟 개 봉우리로 유려한 능선을 이룬다. 한낮의 땀약별을 피하고 싶은 날, 두륜산의 싱그러운 품을 파고드는 것만큼 탁월한 선택지가 또 있을까. 서산대사 휴정이 일찍이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으로,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을 땅”이라 점찍은 자리, 맑고 환한 기운이 충천한 명당에 들어선 대흥사에서 때이른 더위를 식히고 안식을 구해 본다. 국보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해 응진전 삼층석탑, 서산대사 부도, 대광명전 등 빛나는 문화유산을 거느린 사찰이니만큼 역사와 건축의 전통을 되새기며 답사하듯 둘러봐도 좋지만, 이 계절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몸을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이 된다. 소나무와 참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그늘에 앉아 누리는 탁족과 명상의 시간. 오가는 이들이 계곡 길에 쌓아 올린 크고 작은 돌탑이 마음을 울린다. 탑 하나 하나에 깃든 간절한 기도를 헤아리는 동안 상념은 가라앉고 어지럽던 머릿속이 환해진다. 돌덩이 같은 번뇌를 내려놓는 순간이다.

주소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대흥사) 문의 061-534-5502



1,2 대흥사 주변 계곡은 수목이 우거진 풍경이 언제나 봄처럼 아름다워 '장춘동'이란 별칭이 붙었다. 3,4 대흥사는 금당천을 경계로 북원과 남원으로 나뉘는 가람 배치가 독특하다. 사찰로 진입하는 길 한편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관 '유선관'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



여기도 가 보세요

달마고도와 도솔암 1500여년전 중국 고승 달마대사는 한반도 끄트머리에 걸친 산자락에 머무른다. 훗날 이 산을 달마산이라 부르게 된 연유다. 17.74킬로미터에 달하는, 걷기길 달마고도는 고려시대 달마산 일대에 지은 12개 암자를 잇는 순례 코스다. 달마대사 또한 이 길을 거닐었다 전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잊힌 길이 새롭게 개통된 것은 2017년 11월의 일이다. 약 1만 명의 인부가 해발고도 489미터의 달마산 자락 7부 능선에 올라 손과 삼, 호미, 곡괭이만으로 길을 닦았다. 달마고도에서 유일하게 복원한 암자인 도솔암은 능름한 돌 병풍에 둘러싸인 채 해남 앞바다를 굽어본다. 새도, 바람도 쉬어가는 이곳에 머무르다 보면 구름을 타고 신선놀음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앞서가니 뒤서거니 자리한 다도해의 섬들, 까마득히 아물거리는 해남의 너른 들녘이 가슴 벅찬 풍광을 이룬다.

주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항사길 164(달마고도 제1코스 시작점),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마봉송종길 355-300(도솔암)
문의 061-532-1330



3



4



4 |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 땅끝관광지 & 송호해수욕장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가 '땅끝'이란 단어에서 묘한 설렘을 느끼는 이유다. 해남 송지면 땅끝마을은 한반도 백두대간과 국토 중주의 시종점이다. 이 압도적인 상징성은 여행자의 모험심과 호기심을 한껏 북돋운다. 북위 34도 17분 32초, 한반도 최남단을 가리키는 땅끝탑의 위도다. 탑이 위치한 갈두산에 다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빠르고 편리한 수단은 땅끝모노레일이다. 마을에서 사자봉 땅끝전망대까지 단숨에 실어다 주는 전기 궤도 차량으로, 395미터 길이의 레일을 약 6분간 오르는 동안 땅끝마을 앞바다의 물빛이 시원스럽게 눈앞에 펼쳐진다. 갈두산 정상에 닿자 햇살을 형상화한 땅끝전망대가 우뚝 서 있다. 10층 전망대에 서면 서남해안의 탁 트인 풍광을 맛볼 수 있다. 누구라도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올 만한 장관이다. 그 래서일까, 예부터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남해를 지나 서해로 조업을 나가는 뱃사람들 또한 여기서 배를 멈추고 징과 북을 울려 칠머리 당할머니에게 안녕을 기원했다고 한다. 갈두산 북쪽 자락에 펼쳐진 송호해수욕장과 송호항은 해님이 명소다. 울창한 숲 사이로 보이는 노을빛 흥건한 바다와 섬들이 하루의 끝, 여정의 마지막을 축복하는 듯하다.

주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60-28(땅끝모노레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100(땅끝전망대)
문의 061-533-4414(땅끝모노레일), 061-530-5544(땅끝전망대)



1, 3, 4 해남반도 남단은 서해와 남해의 경계다. 땅끝점 표지석 근처에 칠머리 당할머니 동상이 있다. 2 땅끝전망대가 햇살을 닮았다면 땅끝탑은 돛 모양을 본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배의 돛을 형상화한 것이다. 탑 정면부에 '여기는 땅끝, 한반도의 시작'이란 문구가 커다랗게 적혀 있다. 5 송호항에서 마주하는 황혼의 시간이 황홀하다.



+ 이렇게 여행하세요

해남으로 가는 꿈카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품은 땅, 해남 구석구석을 살뜰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시티 투어 캠핑카 '해남으로 가는 꿈카'를 이용해도 좋다. KTX 호남선 시종착역인 목포역에 내려 기아자동차 '레이'를 개조한 귀여운 캠핑카를 타고 해남 여행을 시작한다.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황토나라테마촌·땅끝오토캠핑장이 전용 공간을 내주어 마음편히 휴식할 수 있다. 침낭과 베개 등 침구류와 버너, 코펠, 주전자 등 취사도구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주소 전남 목포시 남교동 88-1(대여장소)
문의 1688-1141

푸른 계절, 열린 해남

지난 1월, 땅끝마을과 땅끝탑을 잇는 걷기길 꿈길랜드가 조성됐다.
계단이 없고 경사도가 완만해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열린 여행지다.
이곳에서 만난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고향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달라 청했다.



화산면 사포마을에서 나고 자란 해남 사람이시죠. 지금 해남에 막 도착한 여행자를 위해 놓쳐선 안 될 고향의 명소 세 곳을 꼽아 주세요. 추천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여기,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입니다. 땅끝전망대와 땅끝탑, 땅끝모노레일, 해양 자연사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동안 땅끝에 다다른 짜릿한 기분을 실감할 수 있죠. 두륜산에 있는 천년 고찰 대흥사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남의 자랑입니다. 유구한 역사, 청량한 자연경관이 조화로워 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대흥사가 지닌 치유력, 회복력을 보다 널리 공인 받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열세 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량대첩의 현장을 굽어보는 우수영 관광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거나 울돌목스카이워크에 올라설 때마다 저 바다가 버텨 온 세월을 헤아리곤 합니다. 이미 세 곳을 언급했지만, 세 곳만 더 소개해도 될까요? 지난해 개장한 산이정원, 해남을 대표하는 걷기길 달마고도, 공룡 관련 화석 400여 점과 화귀 전시물을 소장한 해남공룡박물관도 그냥 지나치기엔 아쉽습니다. 특히 해남공룡박물관은 공룡과 익룡,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황산면 우항리에 위치해 더 뜻깊은 곳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우항리 일원에서 열린 해남 공룡대축제가 큰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남에서 또 어떤 축제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테마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여름 축제는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K-팝 콘서트 '한 여름밤의 문화축제'와 순국선열을 기리는 꽃 무궁화를 테마로 한 '육천 무궁화축제'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 서늘해지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명량대첩축제'와 건강한 향토 먹거리 잔치 '해남미남축제', 슬기로운 야외 생활을 권하는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등 본격적으로 축제의 열기가 달아오를 거예요. 남쪽 바다의 따뜻한 겨울을 즐기고 싶다면 '땅끝해넘이·해맞이 축제' '화원오시아노 해넘이축제' '북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를 찾아 주세요. 땅끝에서 한 해의 끝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해남은 전남캠핑박람회를 유치할 만큼 캠퍼들이 사랑하는 여행지로 꼽힙니다. 추천하고 싶은 해남의 캠핑 명소는 어디인가요?

우선 화원반도에 자리한 오시아노 관광단지 를 꼽아야겠습니다. 목포역에서 멀지 않은 데다 닭섬과 고도의 실루엣이 아름다운 화봉리 앞바다를 품고 있거든요. 오시아노해수욕장이 자리한 오시아노캠핑장에 여장을 풀고 물놀이를 즐겨 보세요. 올해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 중인 땅끝관광지의 대표 숙박·휴양 시설인 땅끝황토나라테마촌과 오토캠핑장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리모델링, 캐러밴 존 조성,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더 많은 캠퍼들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해남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 공간도 확대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최근 해남은 '대한민국 농어촌수도'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물 맑고 비옥한 땅에서 길러 낸 맛 좋은 해남의 먹거리, 무엇이 있을까요?

해남이 걸어온 길은 곧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해남군은 한국 최초로 농어촌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농어민 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이끌어 갈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개관할 예정이지요. 감사하게도 해남에는 이미 이름난 농수산물이 여럿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제11호로 등록해 명성과 품질을 지키며 전국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점유해 온 해남겨울배추, 한국소비자단체 최우수 쌀에 선정된 땅끝햇살, 해남 앞바다에서 생산한 물김 원조로 가공해 독특한 풍미를 지닌 해남김... 이뿐인가요. 초당옥수수, 양파, 고추, 세발나물, 미니밤호박, 참다래, 무화과, 블루베리, 새송이버섯도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해남황토구마로 만든 구마빵 또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역 뽕집인 '피당시에' '더라이스' '화산제과점' '몽소베이커리'가 저마다 개성 넘치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니 취향껏 골라 드셔도 좋습니다. 먹거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양질의 농수산물로 요리한 음식도 추천해 드릴게요. 한 상 가득 반찬을 차려 내는 한정식, 싱싱한 닭 회를 포함한 닭 코스 요리, 감칠맛나는 삼치구이와 한우 육회 비빔밥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해남배추묵은지도 꼭 맛보셔야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해남의 크고 작은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2018년부터 해남을 이끌어 온 수장으로서는 해남의 달라진 풍경을 자랑해 주세요.

해남 땅끝마을에서 땅끝탑까지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무장애 걷기길 '땅끝 꿈길랜드'가 열렸습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땅끝관광지는 시설이 노후하고 땅끝탑까지 가는 일부 구간이 가파른 경사로나 계단으로 되어 있어 교통 약자인 방문객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개선 공사로 길이 350여 미터의 보행로를 정비했을 뿐 아니라 쉼터와 포토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땅끝스카이워크가 위치한 지점부터 땅끝탑에 이르는 길이 450미터의 산책로 데크는 바다를 끼고 있어 특히 아름답습니다. 지난해 두륜산 자락 장춘마을과 대흥사천을 따라 이어진 단풍나무 길과 야생 녹차밭을 복원해 '길정원'을 조성한 것도 손꼽을 만한 일이지요. 이 외에 해남 전역을 정원 도시로 조성하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도시의 새 패러다임을 열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Haenam: My Summer Escape

Fresh forest trails, quiet gardens, and the sea I've missed.
Early summer is the perfect time to experience Haenam at its best.



1 Sani Garden

With its gentle rolling ridges and lakes formed by land reclamation, Sani Garden is a botanical garden that draws on Haenam's distinctive landscape. It also serves as a symbol of Solaseado—a smart city currently under development in Sani-myeon—embodying its vision for a future where humans and nature coexist. The garden is home to themed zones like the "Forest of Butterflies," which preserves a grove of Japanese may trees where blue-striped swallowtails live; the "Forest of Promise," where 2,050 carbon-absorbing trees have been planted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the "Tree of Life," a maze of red tip photinia inviting visitors to find their symbolic companion tree. Art installations also dot the landscape, including Yoo Young-ho's Bridge of Human, a sculpture shaped like people standing between the arms of a giant.

Address 664, Guseong-ri, Sani-myeon, Haenam-gun, Jeollanam-do **Contact** 061-536-3001



2 Seola Dawon

A breeze rolls down the mountainside, rustling the tender leaves of camphor trees. Beneath their shade, tea leaves quietly mature, steeped in the fresh scent of the earth. This is the serene landscape of Seola Dawon, a hidden gem nestled on the southern slope of Duryunsan Mountain. Since 1997, this organic tea field and cultural space has been lovingly cultivated by Oh Geun-seon—an expert in Korea's tea heritage—and his wife Ma Seung-mi, a multi-talented artist known for her mastery of traditional music and performance. Together, they've nurtured not just a farm, but a living expression of Haenam's tea culture. Visitors are warmly welcomed with a cup of tea and a performance of "Green Tea Arirang," an experience that blends sound, scent, and taste into a multi-sensory delight. The gently swaying waves of green tea fields complete the enchanting atmosphere. Now, their daughter and second-generation tea master, Oullim—winner of the Tea Masters Cup and Golden Tea Award—joins them to expand the brand through the Moment Haenam project.

Address 153-21, Samseong-gil, Bugil-myeon, Haenam-gun, Jeollanam-do **Contact** 061-533-3083





3 Duryunsan Mountain and Daeheungsa Stream

ridges in the Haenam Peninsula—this is where Duryunsan Mountain rises. Centuries ago, Buddhist monk Hyujeong declared this place “untouched by war or disaster, a sacred land that would remain unspoiled for ten thousand years.” In the heart of this spiritual sanctuary stands Daeheungsa Temple, offering visitors a haven of calm and a welcome escape from the early summer heat. Home to treasures such as the National Treasure Rock-carved Seated Buddha at Bungmireugam Hermitage, the Three-Storeyed Stone Pagoda at Eungjnjeon Hall, the Stupa of Buddhist Monk Seosan, and Daegwangmyeongjeon Hall, the temple is a trove of history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You could wander the grounds as if tracing Korea’s spiritual and artistic heritage—but in this season, simply dipping your feet in the clear mountain stream may be enough to feel completely fulfilled. Beneath the shade of pine, oak, maple, and camellia trees, the time slows.

Address 400, Daeheungsa-gil, Samsan-myeon, Haenam-gun, Jeollanam-do (Daeheungsa) **Contact** 061-534-5502



4 Ttangkkeut Village & Songho Beach

Ttangkkeut Village in Songji-myeon, Haenam, marks both the beginning and end of Korea’s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nd the national trekking route. There are several ways to reach Galdusan Mountain, home to the iconic Ttangkkeut Tower, but the most convenient is the Ttangkkeut Monorail—a 395-meter-long electric rail car that carries visitors from the village to the Sajabong Peak Ttangkkeut Observatory in just six minutes. At the 10th-floor observatory on Galdusan, the vast expanse of Korea’s southwestern sea spreads out before you—so stunning that even the most reserved travelers can’t help but exclaim in awe. Perhaps it’s this overwhelming beauty that led to the local belief: wishes made here are destined to come true. To the north of Galdusan lies Songho Beach and Songho Port, beloved spots for watching the sunset.

Address 60-28, Ttangkkeunmaeul-gil, Songji-myeon, Haenam-gun, Jeollanam-do (Ttangkkeut Monorail), 100, Ttangkkeunmaeul-gil, Songji-myeon, Haenam-gun, Jeollanam-do (Ttangkkeut Observatory) **Contact** 061-533-4414 (Ttangkkeut Monorail), 061-530-5544 (Ttangkkeut Observatory)



라스베이거스 로컬 탐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거의 모든 관광 인프라가 집결한 중심 대로, 스트립 바깥쪽이
궁금해진 건 이 말 때문이다. “라스베이건들은 스트립에 잘 안 와요.”
그럼 그들은 어디서 살고, 놀고, 즐길까? 다운타운과 후버댐의 미드 호수에서 그 답을 찾았다.



가는 방법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ICN)과 미국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LAS)을 잇는 직항 항공 노선을 운항한다. 비행시간은 1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melissavasquezart

라스베이거스의 스트립을 걷다 보면 조금씩 혼돈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자유의여신상에서 파리의 에펠탑, 개선문, 베르사유궁전을 지나 곤돌라가 두둥실 떠다니는 베네치아의 운하가 약 2.6킬로미터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지구 밖에서도 보인다는 거대한 구체가 도시 한복판에 상륙해 이곳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스피어(Sphere)라는 이름의, 한국 돈으로 약 3조 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이 미래형 콜로세움은 눈동자, 토성, 이모지, 미식축구공 같은 물질과 물체로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며 스트립 산책자의 정신을 교란한다.

스트립이라는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달궈진 뇌와 몸을 식히기 위해 오프 스트립으로 통칭되는 지역으로 나가 본다. 전 세계의 온갖 잡동사니가 모여 있는 골동품 가게가 즐비하며 1960~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영화에서 본 풍경이 펼쳐지는 다운타운(DTLV), 그리고 네바다주를 삶의 터전으로 바꿔 준 오아시스, 후버댐의 숨은 매력을 소개한다.

다운타운, 라스베이거스식 ‘쿨’을 만나는 동네

모두가 들뜨고 설레며 상기된 얼굴로 유흥을 즐기는 스트립에 오래 머물다 보면 슬슬 눈과 귀, 뇌가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한다. 눈치 없이 날뛰는 아드레날린 대신 평온과 고요로 이끄는 세로토닌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에서 일하는 크리스틴과 점심을 먹다가 그럴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대부분 다운타운에서 시간을 보내요. 커뮤니티 문화가 발달해서 친절하고 정다운 분위기거든요. 낮에는 빈티지 숍에서 쇼핑하거나 갤러리에 가고, 해가 지면 바나 펌 호핑을 즐기곤 하죠.” 그에게 받아 든 ‘크리스틴의 최애 장소’ 목록을 들고 아츠 디스트릭트(Arts District)를 찾았다.

금요일 오전의 메이커스 & 파운더스(Makers & Founders)에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커피 머신과 원두 몇 봉지, 유리 진열장에 몇 가지 샌드위치와 디저트를 적당히 갖춘 카페인 줄 알았던 이곳에서 마주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아침부터 불을 밝힌 네온사인, 진열장 가득한 각테일 원료, 바리스타보다는 바텐더에 가까워 보이는 직원, 그리고 나초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그 사이에 아보카도와 사워크림, 잘게 찢은 바비큐 소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끼워 넣은 ‘가장 인기 있는 아침 메뉴’. 로컬들이 ‘꼭 가야 하는 맛집’으로 꼽는 메이커스 & 파운더스는 많은 사람이 세련됐다고 여기는 브루클린이나 샌프란시스코식 감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침부터 밤까지 누구나 편하게 들러 식사와 커피, 단 음료와 디저트,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랑방에 가깝다. 20퍼센트 이상의 팁을 받기 위해 꾸민 친절을 베푸는 스트립 레스토랑의 (일부) 서버들과는 다른, 다정하고 여유 넘치는 직원들을 보며 라스베이건이 생각하는 ‘쿨’이란 이런 걸까 생각했다.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에스터스 키친(Esther’s Kitchen)’은 그 쿨의 최전선에 있는 식당이다. 누구보다 다운타운을 사랑하는 셰프 제임스 트리스가 운영하는 이탈



1 라틴아메리카 가정식을 선보이는 메이커스 & 파운더스. 2, 3 벽화와 그래피티로 가득한 거리 풍경. 라스베이거스 다운타운의 아츠 디스트릭트와 프리몬트 스트리트를 다시 부흥시킨 건 예술이다. 4 다운타운 현지인의 사랑방, 에스터스 키친.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맛있는 사워도와 안초비 버터, 장작불에 구운 피자. 놓치지 말자.





1 결혼하러 가는 게 틀림없는 커플. 2 라스베이거스 빈티지 애호가들의 커뮤니티 같은 곳. 더 레드 캣 빈티지. 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는 기쁨을 아는 라스베이건들의 동네, 다운타운. 4 라스베이거스 3대 로컬 카페 중 한 곳인 퍼블릭어스. 5 아츠 디스트릭트에서 가장 발칙한 갤러리, 리사이클드 프로파간다. 부조리에 대항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리아 레스토랑으로, 최근 이전한 후 새 단장을 마쳐 더욱 많은 사람이 찾는다. 맛도 가격도 호화로운 스트림 파인다이닝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반드시 이곳으로 향할 것. 여기서 식전 빵으로 나온, 나홀 동안 발효한 반죽으로 구운 사워도를 이탈리아산 올리브 오일에 듬뿍 찍어 먹은 후 동행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판용 김치 먹다가 우리 할머니가 담근 김장김치 먹은 느낌이에요.”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태어나는 곳

배를 채운 후 산책에 나선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골동품점과 갤러리 투어다. 오래된 물건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싶은 이라면 매장 안에 65개의 점포가 들어선 앤틱 앨리 몰(Antique Alley Mall)이나 책, 레코드판 등 블랙 겔처와 관련된 다양한 컬렉션을 갖춘 아날로그 도프(Analog Dope), 수천 벌의 빈티지 옷과 패션 액세서리, 소품이 가득한 더 레드 캣 빈티지(The Red Kat Vintage)에서 주머니 속 현금을 속절없이 빼앗길 것이다. 그 가게들을 다 둘러보며 쓸모는 없지만 갖고 싶은 것 몇 개를 기어이 산 다음 더 아츠 팩토리(The Arts Factory)로 향한다. 30개 이상의 갤러리와 스튜디오, 공연장, 서점, 카페가 모여 있는 이곳은 다운타운의 부흥을 이끌어 낸 행사 ‘퍼스트 프라이데이(First Friday)’가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블록 파티와 아트워크가 함께 열리는 멋진 동네 잔치를 구경해 볼 수 있을까 살짝 기대했지만 내가 찾았던 날은 아쉽게도 둘째 주 금요일이었다. 퍼스트 프라이데이는 매달 첫째 주에 열린다.

이제 크리스티언 존 목록에 있는 마지막 장소로 향할 차례다. 이스트 프리몬트 거리(E. Fremont St.)에 자리한 퍼블릭어스(PublicUs)는 카페에 심취해 있는 이들을 위한 카페다. 바리스타가 내려 준 플랫 화이트 한 잔과 계핏가루가 득 뿌린 애플파이도 물론 좋았지만 내 마음을 빼앗은 건 창밖 풍경이다. 웨스 앤더슨과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영화 세트장 같은 모텔들, 온갖 화려한 디자인의 네온사인, 결혼하러 가는 게 틀림없는 잘 차려입은 커플과 붉은 캐딜락을 타고 달리는 노인이 섬 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길. 다운타운은 그런 동네다. 머무는 내내 온갖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곳. 노트북을 꺼내 하루 종일 시놉시스 한 편 끄적이고 싶었지만 다음을 기억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 본다.

후버댐 미드 호수, 네바다의 야생 속으로

라스베이거스 가이드북에서 후버댐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남의 나라 댐을 뭐 하러 구경해? 우리나라 소양강댐도 안 가는데.' 물론 미국인에게는 아주 의미가 큰 명소다. 후버댐 안팎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미드 호수(Lake Mead)에서 유람선을 끄는 선장님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고도화된 건축공학 기술이 적용된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구조물, 사막에 자리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소, 대공황 시대를 극복하게 해 준 프로젝트, 거대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홍수를 조절하는 인프라. 후버댐의 대단한 스펙을 과시하는 온갖 수치를 한 귀로 흘려들으며 따분한 얼굴로 뉘를 놓고 있던 그때, 멀리 암흑같이 어두운 절벽의 주상절리 사이로 정체불명의 덩어리가 꿈틀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바짝 당겨 보니 놀랍게도 캠핑 채어 하나 덩그러니 펼쳐 놓고 은둔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이후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저 '댐 안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 불과하다고 알잡아 본 곳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협곡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실시간 번역기 앱을 켜 선장님이 떠발총처럼 내뱉는 얘기에 집중했다. "미드 호수는 콜로라도강(Colorado River)에 속하는 면적 640제곱킬로미터의 세계 최대 인공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둘러싼 저 절벽은 블랙캐니언(Black Canyon)의 한 자락이고요. 약 17억 년이란 세월이 깎고 빗어낸 장대한 협곡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아까는 안 보이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절벽이 겹치는 비좁은 물길 위에서 낚싯대를 드리운 노인, 돌무지에 작은 텐트를 치고 야생 속 캠핑을 즐기는 청년들, 반짝이는 물비늘 위 카약에서 부지런히 노를 젓는 소녀들. "이 물줄기를 따라 쪽 내려가면 윌로 비치(Willow Beach)가 나와요. 저기 보이는 카약들이 대부분 거기서 출발하죠. 카약을 타다 보면 강물이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에메랄드 케이브(Emerald Cave)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모두의 '멍 때리는 시간'을 위해 선장님이 설명을 멈췄다. 시속 20킬로미터로 달리는 고무보트 위로 차가운 강물이 세차게 튀어 올랐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후버댐을 등지고 선미에 자리를 잡았다. 시야에 인간과 인공이 없는 곳에서 아주 잠깐, 자연 속에 혼자 있는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서. 선글라스가 없다면 눈이 멀 것처럼 반짝이는 윤슬, 바위 위에서 날개를 말리는 가마우지, 엉덩이를 허공으로 추켜세우고 물속에 고개를 푹 박아 가며 먹이를 쫓는 물닭의 한때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 오전 11시에 배를 뺐는데 벌써 두 시간이나 지났다고? "아, 이 호수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걸쳐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네바다보다 한 시간 빠른 애리조나에 있어요. 이제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들 준비됐죠?"



1 블랙캐니언에서 야영을 즐기는 현지인.
2, 3 후버댐 건설로 생긴 미드 호수에선
콜로라도강과 블랙캐니언의 절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4 후버댐으로 향하는
길에 자리한 볼더 시티(Boulder City)의
라스베이거스 베이 캠프그라운드.

나를 위한 덜어 냄, 제로 웨이스트 여행



전북 전주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이끄는 '모악산의아침' 숙소 운영자 모아를 만났다.
모험과 순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 믿는 그를 따라 지속 가능한 여행을 떠난다.



제로 웨이스트 숙소 '모악산의 아침', 재능을 교환하는 커뮤니티 공간 '지향집',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장터 '불모지장'. 환경에 관심 있는 이라면 전주에서 수차례 들어 봤을 이름이다. 공통점이라면 모두 모악산의 아침 운영자 모아의 손을 거쳤다는 것. 그중 모악산의 아침은 비건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초식마녀, 쓰레기 없는 일상을 영상에 담은 <쓰레기왕국> 채널 운영자, 국내 최초 리필 스테이션인 알맹상점 직원들, 그리고 환경보호를 꾸준히 실천하는 배우 임세미 등이 방문한 인기 숙소다. 편한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아의 행보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테다. 주인장 모아와 함께라면 지속가능한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 부푼 기대감을 안고 그가 꾸려가는 숙소를 첫 번째 목적지로 정했다.

쓰레기 없는 숙소를 향하여

모아의 삶에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깊숙이 안착한 건 2018년 11월 모악산의 아침 운영을 맡기 시작하면서였다. 일곱 살 때부터 살았던 집을 개조해 독채 숙소를 열

었는데, 손님이 다녀간 뒤 청소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나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지 고민하다 우선 정수기를 들기로 했다. 그 결과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물론 빈 페트병을 일일이 밟아 처리하는 수고도 덜었다. 그다음 투숙객이 사용하는 물품을 자연에 덜 해로운 제품으로 바꿨다. 세제 없이도 기름기가 잘 닦이는 삼베 수세미, 일반 화장지보다 자연 분해 속도가 빠른 대나무 휴지 등을 숙소에 비치했다. 무엇보다 플라스틱을 소비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용기에 든 세정제 대신 고체 형태의 샴푸, 컨디셔너, 보디 워시를 조각내어 욕실에 놓았다. 불가피하게 플라스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재순환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합성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식물성 오일로 세제를 만드는 브랜드 '꽃마리'가 모아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 손님들은 숙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렇게 꼼꼼하게 선택한 친환경 제품을 자연스레 체험하게 된다. 한 번의 경험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주인장의 마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1 숙소 한쪽에 마련한 플라스틱 병뚜껑 수거함. 2 페트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수기를 설치했다.
3 제로 웨이스트 숙소 '모악산의 아침' 외관. 4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 '불모지장'은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린다.
5 책장에 꽂힌 환경 관련 책은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1 지향집에는 방문자들이 기부한 옷이나 물건을 모아 둔 장롱이 있다. 다시입다연구소의 의류 교환 행사 '21프로(%)파티'가 이곳에서 두 차례 열렸다.
2 비건 카페 '채식주의자의 무화과'에서 판매하는 귀여운 모양의 디저트. 3 지향집 내 무인 가게 '초이룩'에 비건 식품과 친환경 브랜드 제품을 함께 진열했다.
티베트 난민과 함께하는 NGO 단체 록빠가 운영하는 '사직동 그가게'의 업사이클링 소품도 그중 하나다.
4 모아를 만나기 위해 지향집을 찾아온 모녀.



“우리가 비건에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면 되니까요.”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자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모아의 첫 번째 활동이 속
소운영이라면, 두 번째는 쓰레기 없는 비건 장터 만들
기였다. 모아는 행사를 기획할 당시, 포장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닐이나 스티로폼 쓰
레기에 불편함을 느꼈다. 게다가 제로 웨이스트 숍이
나 리필 스테이션이 지역마다 생기는 추세였지만 전주
에는 없었기에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는 무포장 제품을 다회
용기에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경험을 더 많은 이
들과 나누기로 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
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했기에 판매자에게는 일
회용 팜플릿과 현수막 사용을 금지했고, 참여자에게
는 텀블러 또는 다회 용기를 필수로 지참하라고 안내
했다.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자'
는 뜻을 담아 이름 붙인 불모지장은 2020년 9월 모아
산의 아침 앞마당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매년 봄
과 가을에 장소를 바꿔가며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 열린 열 번째 불모지장에는 채식 김밥
과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집 '콩알네', 비건 너깃을 안
주 메뉴로 내는 수제 맥줏집 '노매덕 브루잉 컴퍼니', 전
주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숍 '늘미곡' 등 전주거점 상점
을 포함해 서른 개 부스가 참여했다. 비가 내려 실내로

장소를 옮겼는데도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고쳐 쓰는 일을 지향하는 우산수리팀 '호우호우'는 뜻
밖의 비 소식에 오히려 화창한 날보다 많은 손님을 맞
았다. 불모지장으로 가는 동안 우산이 고장 나도, 도
착하면 바로 맡길 수선공이 있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꽤 흥미로운 포인트였다.

더 이상 비건 불모지가 아닌 전주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육
식을 끊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모아의 경우 불
모지장에 참여한 판매자의 챌린지에 동참한 일이 계
기가 되었다. 한 달 동안 우유와 육류를 먹지 않았는
데, 이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전주에서 비건 옵션이 있는 식당을 찾아 스티커
를 붙이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이들이 다
녀간 후 주변에 비건을 위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가게
가 더러 생겨났다. 특히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귀
리로 만든 대체유로 변경할 수 있는 카페가 늘었다. 모
아는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모은 정보를 정리
해 전주비건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는 모아가 운영하
는 두 번째 공간 지향집에서 직접 확인했다. 지향집 내

QR코드에 접속해
전주의 비건 가게
정보와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부를 촬영하기 위해 입구에 들어섰을 때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모녀를 만났다. 비건을 지향하는 딸은 모아가 만든 전주 비건 지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아 님 아니었으면 굶을 뻔했어요.” 동행한 엄마는 채식이 자연스럽다는 듯 음식이 입에 잘 맞았다고 덧붙였다. 방문한 식당 이름을 제대로 알려 주고 싶은 마음에 카드 결제 내역까지 살펴보는 모녀의 모습에 잠시 미소가 스쳤고, 모아의 노고에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벅차기까지 했다.

짧지만 강렬한 만남이 이루어진 이곳은 재능 교환과 자율 기부를 기본으로, 다소 독특하게 운영되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요가, 커피내리기, 청소하기 등 어떤 것이라도 교환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지향집밥’ 시스템이 가장 흥미로울 테다. 지향집 냉장고에는 모아가 채워 넣은 식재료와 누군가가 기부한 반찬이 들었다. 3000원을 내고 식권을 구매하면 냉장고 속 재료를 활용해 비건 집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모아의 제안으로 모인 지향집밥 지킴이들은 지향집 카페에 레시피를 공유하고, 남은 식재료를 기재할 뿐 아니라 “냉장고 속 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록 날짜를 적어 두자”는 등 댓글로 활발히 의견을 나눈다. ‘지향하는 것들을 모은 곳’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비슷한 가치를 중시하는 친구를 만나기 쉬운 장소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와 함께라면 유별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지 않고 제로 웨이스트나 비건을 지속할 용기를 얻기 쉬울 테다.

모아가 기획한 일련의 활동을 나열하고 보니 시간적 효율성이나 경제적 이득을 고려했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미래를 완벽하게 그리기보다 현실과 부딪히며 한계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나 얻은 정보를 아낌없이 주변에 나눴고, 함께 움직일 동료를 모았다. 두려움 없이 뚝뚝뚝 걸어나가는 그의 뒤를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주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는 점차 몸집을 늘려 갔다. 모아는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점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비건에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면 되니까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자 동료들을 위한 응원이며, 모르는 이들에게 당길 바라는 외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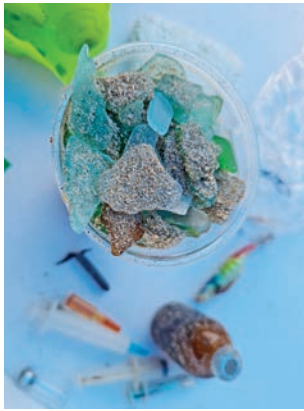
1 지향집밥 식권을 구매해 냉장고에 든 식재료나 반찬으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2 초이록에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소스, 만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한다.

made in

강원도 고성읍의 일곱 가지 변화

GOSEONG

no.06



1



2

1 해변에서 모은 유리 조각.
2 주기적으로 해변 플로깅 활동을 주최하는 빛나르고.
3 명파마을의 아티스트 한 달살이 프로젝트 '아트케이션'의 설치물.
4 최북단 마을 명파마을에 조성한 귀여운 표지판.
5 해변 플로깅에는 지역 주민과 여행자들이 참여한다.



3



4



5

interview

빛나르고 정미현 대표

‘빛나르고’는 전신인 ‘쓰담속초’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속초에서 했던 플로깅이나 축제 기획이 고성까지 확장된 건가요? 맞아요. 2021년 친구 둘과 함께 세 명이 시작했어요.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이었죠. 1인 여행자를 위해 ‘자연도, 마음도 쓰다들자’라는 콘셉트로 속초 영랑호에 ‘힐링 플로깅 코스’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어요. 초반에는 속초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고성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1~2년 전부터는 고성문화재단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별한 브랜드가 생기고 크리에이터들이 모여들자 여행자들도 자연스럽게 고성을 찾고 있어요. 대구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후 고성에 정착했어요. 타지 출신인 만큼 처음엔 여행자의 시선으로 고성을 마주했을 텐데, 기획자로 자리 잡은 지금 고성에는 어떻게 변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행자로서는 여유롭고 기획자로서는 여백이 많아요. 어떤 입장이든 매력적인 건 마찬가지죠. 속초와 고성엔 불과 몇십 분 거리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관광도시로 익숙한 속초는 유동 인구가 많고, 그에 비해 고성엔 훨씬 사람 손이 덜 탄 자연을 느낄 수 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성에는 청년이 적고 문화 콘텐츠도 거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조용함이 기획자에게 기회처럼 느껴졌죠. 저희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해변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최근 고성에는 속초에서 넘어온 브랜드가 많아졌어요. 고성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곳도 늘어났죠. 예전엔 “고성에는 뭐가 없어”라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서 해 볼 수 있는 게 많아”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찾아 고성을 찾아온 여행자들이 “고성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놀라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2022년에 꾸린 ‘빛나르고’는 고성을 찾는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를 접하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 감성을 담아 플로깅에 재미를 더하고, 쓰레기를 화폐처럼 사용해 굿즈와 교환하는 ‘쓰레기 상점’을 열었다. 바다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굿즈를 만드는 청년 모임도 운영했다. 2023년 여름에 열린 ‘에코바캉스’는 빛나르고가 처음으로 축제 전체를 기획한 사례다. 단순히 무대와 부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축제장을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어 해변에서 주운 유목과 버려진 서프보드, 팔레트와 페인트를 조합해 포토존을 설치했다. 해변에서 주운 탄피로 병뚜껑 키링을 제작하거나 맨몸 운동 커뮤니티와 협업해 철봉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빛나르고는 에코바캉스를 계기로 ‘환경’을 콘텐츠로 확장하기도 했다. 이후 고성문화재단과 함께 문화도시 포럼을 기획했는데, 행사장을 모두 재활용 소재로 조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여름 명파마을에서 개최한 아티스트 한 달살이 프로젝트 ‘아트케이션’도 빛나르고의 손에서 탄생했다. 마을을 꾸민 나무를 재활용한 이정표, 팔레트를 이용한 포토존 등은 그동안의 노하우가 함축된 아이디어다. 가장 최근엔 동해안 지역 창업자와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는 전시 <Light Light>를 열었다. ‘빛(light)’과 ‘가벼움(light)’의 중의적 의미를 담아 빛의 다섯 가지 성질에 창업가의 다섯 가지 정신을 연결했다. 냉동창고의 어둠을 활용해 조명과 파이프만으로 구성했는데, 목재 가벽 없이 가공되지 않은 공간을 그대로 살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빛나르고는 이 전시를 통해 환경 중심에서 로컬 중심, 시각예술로까지 기획의 외연을 넓혔다.



© Portraitby Ethan Yang

- 1 광화문 현판을 복원한 무형유산 이창석 장인이 작업한 어부의 낚술 간판.
- 2 엄경환 대표의 미각과 감각이 응축된 술.
- 3 예술가의 공간답게 곳곳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 4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잠시 쉬다 가기 좋은 막걸리 상점.
- 5 어부였던 아버지의 배 위에서 포즈를 취한 엄경환 대표.

1



2



4



5

어부의 낚술 예술가가 만든 막걸리

고성에서도 유난히 고요한 바닷가 마을 초도리. 오래된 부동산 상가 건물이 막걸리와 전시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곳을 연 사람은 전직 기획자이자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술을 빚는 예술가 엄경환 대표.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속초로 진학하던 시절, 당연한 수순처럼 속초로 유학을 떠났다. 대학에 진학한 이유도, 정치·외교를 전공한 이유도 그저 '큰 곳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지내며 오전 2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된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살다 금방 죽을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껴 회사를 그만뒀다. 엄 대표는 험난했던 그 시절을 지내며 퇴사하지 못한 직장인에게 전하는 그림책 <반쪽 인간>을 출간했다. 이후 미술을 전공한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미술 입시 학원을 운영했지만, 예술을 향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고민 끝에 2021년 고향으로 내려와 그림을 그리고, 좋아하는 막걸리를 만들어 브랜드를 론칭했다. '어부의 낚술'은 어부였던 아버지에게서 영감을 얻은 브랜드명이다. 어부는 오전 3시에 출항해 오전 11시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다. 그들의 퇴근 시간은 늦은 오전으로, 일 끝내고 마시는 한잔이 남들 눈엔 낚술로 보이기 마련이다. 어부의 낚술에서 만드는 막걸리는 바다의 짭짤과 대척점에 있는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그 맛에 반해 입소문을 탄 어부의 낚술에는 한낮에도 여행자의 발걸음이 줄을 잇는다. 어부의 낚술은 엄 대표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직접 쓰던 낚시 도구로 꾸몄다.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111



3



1



3



- 1 동해형씨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공간.
- 2 바다와 생선 비늘을 형상화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 3 연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프리미엄 간식.
- 4 싱싱한 횡감을 그대로 건조해 원형을 보존했다.
- 5 그물을 표현한 동해형씨 쇼핑백.

4



5

반려동물들을 위한 싱싱한 횡감

동해형씨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항. 작은 항구 마을을 걷다 보면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한 하얀색 건물이 보인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팬덤을 확보한 펫푸드 브랜드, '동해형씨'의 본거지다. 동해형씨는 고성 바다에서 나는 자연산 수산물로 반려동물용 수제 간식을 만든다. 대구, 연어, 송어, 방어 등 지역 어부들이 잡아 올린 수산물이 주재료다. 동해형씨는 수산물을 잡은 직후 보존을 위한 염장 처리 과정도 과감히 생략한다. '사람이 먹을 횡감을 가져와 반려동물 간식을 만든다'는 것이 김은율 대표의 원칙이다. 고성에서 잡은 수산물을 원형 그대로 건조해 만든 간식은 겉으로 보기엔 마치 사람이 먹는 생선구이처럼 생겼다. 하지만 반려동물에게 해로운 염분은 0.1퍼센트 이하로 최대한 줄이고, 인공 첨가물도 일절 넣지 않는다. 식감과 영양을 고려해 생선 껍질도 그대로 살린다. 제품군은 반려동물의 체질과 기호를 고려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고등어와 갈송이 풍부한 전어, 저칼로리·고단백 식품인 도미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동해형씨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한다. 간식 외에도 펫 전용 기저귀와 식기, 간단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갖추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머물 수 있는 미니 카페 공간도 있어 여행 중 반려동물과 함께 들르기에 그만이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길 64

interview

동해형씨 김은율 대표

서울에서 산업디자인과 브랜드업무를 했습니다. 수산물의 가능성은 어디서 감지했나요? 아메이코리아, 스타트업, 식품 기획 등을 거치며 브랜드화된 수산물의 가능성을 감지했습니다. 정육·채소 시장은 이미 온라인화되어 있었지만, 수산물은 유통이 까다로워 브랜드 없는 수산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반려동물 시장은 점점 프리미엄을 원했고, 수산물을 이용한 반려동물 간식은 미개척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고향 고성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횡감의 간판을 내리고 동해형씨 스토어로 재단장했죠.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어요.**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 과정에서 동해형씨는 동결건조도, 레토르트도 아닌 '원물 건조'라는 독자적 건조 방식을 구축했습니다. 60도 이하의 저온에서 수분을 천천히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실온 보관이 가능한 반건조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죠. 기술은 국내 특허를 넘어 해외에도 출원했고, 현재는 싱가포르, 대만 등지로 수출하며 브랜드의 국제화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서 연 팝업 스토어는 완판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Save the Sea with Pets'란 슬로건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바다를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반려동물 식품을 단순한 소비재로 보지 않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는 매개체로 보는 겁니다. 지역 어민이 잡은 제철 수산물을 그대로 이용해 생계를 돕고, 제조 공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있어요. 고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비치코밍(beachcombing, 해변 쓰레기 줍기)을 진행하고, 수산 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워크숍을 열기도 합니다.





1



3



4



2

일과 여행의 완벽한 조화 맹그로브 고성

토성면 교암리에 자리한 워크 & 스테이(work & stay) 맹그로브 고성. 교암해변과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입지적 장점 덕에 바다를 눈앞에 두고 일과 숙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맹그로브 고성은 워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엠지알브이의 첫 워크 & 스테이 지점이다. 4층짜리 건물은 고요한 해안선과 잘 어울리도록 단순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구조로 완성했다.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외관. 공유 오피스 형태의 라운지 1층에는 오션 뷰 데스크와 6인 회의실, 화상회의 부스, 프라이빗 폰 부스, 커뮤니티 키친, 명상 공간 그리고 고성의 독립 서점 '북끝서점'의 큐레이션으로 채운 서가가 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전 객실이 오션 뷰인 숙박 공간이다. 1인실, 2인실, 4인실 모두 깔끔한 화이트 톤과 원목 가구로 꾸몄다.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혼자 또는 함께여도 부담 없이 시간을 보내기 좋다. "맹그로브 고성은 고성을 여행지라기보다 '살아 보는 곳'에 가까운 장소로 느끼게 해 줘요. 송지호, 능파대, 아야진해수욕장이 가깝고 맛집과 카페 등 생활 시설도 풍부하죠. 긴 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한다면 이곳에서 실험적인 삶을 살아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박승재 디렉터의 이야기다. 동네나 인근 해변을 돌아보기에 유용한 자전거와 헬멧을 대여해 주고, 가까운 맛집과 자연 속 산책 코스를 담은 고성 가이드 맵도 제공한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길 20

- 1 한적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맹그로브 고성의 루프톱.
- 2 자연과 어울리는 절제된 미감의 내부.
- 3 맹그로브 고성의 깔끔한 외관.
- 4 교암리의 작은 해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숙소.
- 5 몰입감을 높이는 워크 라운지.

© Mangrove



5



1



2



3

- 1 천진해변은 동해 바다를 사랑하는 서퍼들의 아지트다.
- 2 카페 패들 내부 모습.
- 3 이국적인 글라스 하우스 외관.
- 4 카페 썬크림의 시그너처 메뉴 메밀젤라토.
- 5 번투드웍스의 감각적인 공간.



4



5

고성 문화를 주도하는 바다

천진해변

천진해변은 요즘 고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맞고 있다. 한적한 피서지로만 인식되던 이곳에 감각적인 공간이 잇따라 들어서며 고성을 찾는 여행자들의 목적지가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엔 카페 '글라스 하우스'가 있다. 해변을 마주한 건물이 바다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이 인상적이다. 로컬 브랜드들과 함께한 전시나 토크 프로그램, 음악이 있는 주말 행사까지, 글라스하우스는 고성에서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한다. 브런치와 팝업 스토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번투드웍스'도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레스토랑과 팝업 공간이 중정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캠핑장이 연상되는 인테리어가 여행 무드를 더한다. 시그너처 메뉴는 육즙 가득한 햄버거와 특제 소스를 넣은 샌드위치. 이 외에도 강원도 감자를 이용한 수프와 제철 채소를 넣은 브런치 등을 주기적으로 개발한다. 팝업 스토어에선 서핑 티셔츠와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세라믹 오브제 브랜드 등과 협업도 한다. '썬크림'은 고성의 여름을 시원한 젤라토로 옮겨 놓은 가게. 시그너처 메뉴는 메밀젤라토다. 고성에서 재배한 메밀가루에 들깨를 볶아 올리고 들기름을 부어 만들어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 계절마다 딸기, 블루베리, 바질 등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레시피에 반영해 '로컬을 디저트화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좀 더 한적한 풍경을 원한다면 천진해변 구석에 자리한 카페 '패들'을 추천한다. 통창으로 탁 트인 천진해변을 조용히 감상할 수 있다. 별관에선 신생 로컬 브랜드가 공간을 빌려 자체 팝업을 열기도 한다.

● 글라스하우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43 썬크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토성로 148-1 번투드웍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5길 12 패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토성로 140



1



2



3

테일 조용한 바닷가 마을 카페



4

고성에는 바닷가 풍경만큼이나 아름답고 예술적인 공간이 많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미감을 발산하는 곳들. 그중 하나는 가진 해변 근처에 자리한 한옥 카페, 테일이다. 초록 지붕을 얹은 시골집 같은 외관과 달리 내부는 섬세한 감각이 느껴지는 소품으로 가득하다. 광용인 대표가 빛은 도자기가 카페 곳곳에 놓여 있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공간이다. 커피 잔 하나, 찻잔 하나에도 광 대표의 정성과 애정 어린 손길이 묻어나 있다. 테일은 광용인·길고는 부부가 반려견과 함께 고성에 정착해 만든 카페다. 내부는 전통 한옥 구조를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아늑하고 따스한 분위기다. 테일은 메뉴에서도 특별함이 느껴진다. 질 좋은 핸드 드립 커피와 스키타테, 테일라테, 지역에서 생산한 옥수수를 이용한 타르트 등을 선보이는데, 감각적인 도자기에 담아내 눈과 입이 즐겁다. 테일에선 피크닉 세트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음료와 마들렌, 매트, 바구니로 구성된 피크닉 세트를 대여해 가진해변에서 바다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선착순으로 대여 가능하며, 날씨에 따라 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길 40-5

- 1 카페 테일의 시그니처 메뉴 옥수수 타르트와 테일라테.
- 2 바리스타가 내리는 신선한 브루잉 커피.
- 3 직접 만든 도자기로 내부를 꾸몄다.
- 4 구옥을 개조한 테일 외관.
- 5 때때로 로컬 작가들의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 6 가진해변의 낭만을 더하는 피크닉 세트.



5



6



1



2



3

조명 오브제 제작 스튜디오

오로라댄스



4



5

1 빛의 향연을 표현하는 오로라댄스의 작업물.
2 구획 공간을 오로라댄스만의 미감으로 덧칠했다.
3 레트로한 느낌의 실내 조명.
4 오로라댄스를 운영하는 임연경·박종복 부부.
5 직접 그린 그림에 조명을 입힌 작품.
6 자유로움이 묻어나는 오로라댄스의 작업물.

6



고성의 한적한 골목,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공간에서 독특한 빛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 스튜디오가 있다. 조명 오브제 제작 스튜디오, 오로라댄스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외부인을 거의 받지 않지만, 마치 공장 같기도 한 고성의 작업실에선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아크릴 간판, 드림캐처 조명, 꽃다발 오브제가 탄생한다. 문구와 도안을 받아 맞춤 제작하는 작업은 손과 기계가 끊임없이 맞물리는 리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때 서울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파티 기획을 했던 임연경·박종복 부부가 고성으로 이주해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만 되면 어디든 괜찮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작업 때문에 꼭 도시에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로라댄스의 작품은 단순히 조명을 넘어 공간 분위기를 완성하는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드림캐처 조명은 전통적인 드림캐처에 현대적 조명 기술을 접목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꽃다발 오브제는 생화를 그대로 보존한 듯한 섬세한 표현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작업실 한편을 소규모 전시장으로 만들 구상도 하고 있다. 오로라댄스의 다양한 작품을 직접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로라댄스의 작품 제작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돌고개길 37

no.06

GOSEONG



KTX MAGAZINE

빛나르고

어부의 낚술

동해형씨

맹그로브 고성

천진 해변

테일

오로라댄스

지금 여기

종이를 겹겹이 쌓아 인간 형상을 만드는 신민 작가 | 강릉시립미술관 술을 풀르게 채운 김환기 특별전
온전한 심을 경험하는 온천 호텔 유원재 | 서울 연남동과 연희동의 이색 책방 | 초록빛 가득한 경기도 판교 여행



분노 어린 종이 인간, 신민

신민 작가가 만든 종이 인간은 하나같이 성난 눈썹을 가졌다.
그를 닮은 작품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약자를 향한 위로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지난 3월 28일 미술계를 들썩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시아 최대 아트 페어 '2025아트바젤 홍콩'에서 전 세계 신진 작가 중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MGM 디스커버리즈 아트 프라이즈 첫 수상자로 한국 작가의 이름이 불린 것이다. 주인공은 신민. 수상작은 '유주얼 서스펙트'와 '세미(世美)' 시리즈다. 작가는 과거 생계를 위해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카페에서 일하며 느낀 감정을 작품에 담았다. 검정 머리 망을 쓴 조각품들은 한국의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를 상징한다. 아무리 뽕뽕 싸매도 머리 망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머리카락까지 막을 순 없다. 결국 머리카락을 떨어뜨린 범인을 찾기 위해 다 같이 모여 CCTV를 돌려 본다. 이러한 상황을 담은 작품 '유주얼 서스펙트'에선 '누구야?' '너 아니야?' 서로를 의심하는 불편한 시선이 가로지른다. 작가의 쓸쓸한 경험은 국내를 넘어 머리 망을 쓴 채 일하는 아시아 여성 노동자들에게 공감을 샀다. 18년간 정직하게 세상을 비추던 신민 작가의 작품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분노를 동력으로

신민 작가가 만든 커다란 종이 인간 작품에서 가장 먼저 시선이 멈추는 곳은 '눈'이다. 하늘을 찌르듯 뻗어 올라간 눈썹과 금방이라도 흰자위가 튀어나올 듯한 날카로운 눈동자. 그 안엔 분노가 서려 있다. 신민 작가

의 작업도 분노에서 출발한다. 그는 약자에 대한 수많은 혐오 범죄에도 숨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점사와 가해자를 열심히 변호하는 변호사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분노를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표출할 방법을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미술이다. 자신이 만든 형상에 메시지를 담아 일종의 퍼포먼스 형태로 보여 준다. 구멍을 낸 소녀상들의 눈 속에 향을 피워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당당히 'No'를 외치자는 의미로 'No'라고 적은 유토 원형 두상 300여 점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애환, 동정,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녹여 내고 있다. "익숙하지만 당연시하고 지나쳤던 분노의 여러 지점을 포착하고 질문하려 노력해요." 신민 작가에게 작품은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투명한 언어다. 분노로 시작한 작업은 부당한 현실을 알리며 질문을 던지고, 비슷한 분노를 느끼는 이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건넨다.

종이 인간 속 겹겹이 깃든 염원

여성, 노동자, 약자의 이야기를 계속 수면 위로 떠올리기 위해 신민 작가가 택한 재료는 종이와 연필이다. 쉽사리 버려지고 찢기는 종이와 금세 지워지는 연필은

힘없는 소시민과 약자의 이야기를 표현하기에 좋은 소재였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죠. 약한 종이라도 겹겹이 쌓으면 견고해진다는 점에 위안을 얻어요. 쉽게 목살되는 이야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귀 기울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 믿어요." 단단한 인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은 기도에서 출발한다. 학창 시절 친구들의 시험 합격을 빌며 부적을 그려 주던 그는 작가가 되어서도 기도하며 작업을 이어 간다. 종이에 기도문이나 소원을 적고 구조물에 붙이기를 반복하는 식이다. 2022년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전시 <조각충동>에서 선보인 작품 '우리의 기도'는 동료들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껴안는다 나는 연대한다'는 머리 망을 쓰고 저임금·고강도의 감정 노동을 하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 달라 기도하며 완성한 작품이다. 작가의 정성 가득한 손길과 간절한 염원이 깃든 종이 인간은 불굴의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당당히 태어난다. 종이 인간의 존재감 넘치는 자태는 작가 자신을 닮았다.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음료 나가기 전에 이 물 체크 또 체크'라는 작품명을 보고 공감하며 웃음을 터뜨리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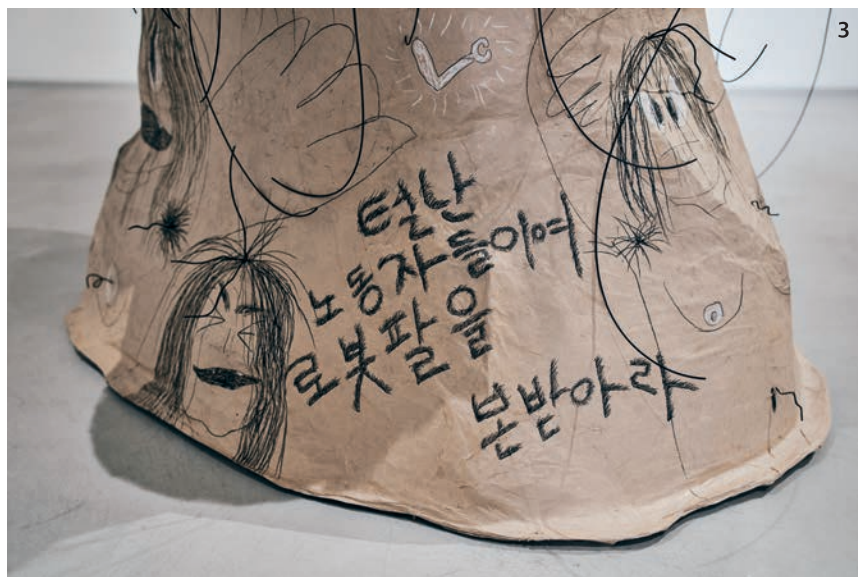




1 작품 '유주얼 서스펙트-민정(검은 머리 짐승들이여 두피에 힘줘 안 빠지게)'의 머리 망 속 머리카락을 연필로 그리고 있다.
 2 신민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 3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계와 인간이 다른 점 중 하나는 '탈'임을 위트 있게 표현했다. 4 작품 '우리의 기도-나는 동료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꺼안는다 나는 연대한다'(2022). 같은 처지의 힘든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5 2025 아트 바젤 홍콩에 출품한 작품 '유주얼 서스펙트'와 '세미(世美)' 시리즈. 신민 작가는 종이를 세미의 얼굴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며 표정에 번주를 주었다. 전시 기간 동안 세미는 웃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했다. 6 MGM 디스커버리즈 아트 프라이즈를 수상한 신민 작가.



“약한 종이도 겹겹이 쌓으면 견고해진다는 점에 위안을 얻어요.
 쉽게 묵살되는 이야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귀 기울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 믿어요.”





2025 아트 바젤 홍콩의 MGM 디스커버리즈 아트 프라이즈 수상을 축하합니다. 매일 바뀌는 작품 설치가 화제였어요.

작업 초기부터 자유롭게 작품 배치를 바꾸는 걸 재미있어했어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입체적인 작품은 각도에 따라 분위기와 맥락이 달라져요. 작품 '세미(世美)'의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분노와 슬픔이 느껴지지만, 후면을 보면 머리 망이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거든요. 다양한 맥락을 전달하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아트 바젤 홍콩에서도 작품 '유주얼 서스펙트'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 배치를 매일 바꿨어요.

신민 작가에게 미술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또 다른 언어라고 느껴져요. 분노를 미술로 표현한 첫 순간이 기억나나요?

중고등학생 시절 학교의 주입식 학습 방식이 불편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학교가 마치 감옥 같았죠. 어느 날 가정통신문 뒷면에 목이 졸린 채 숨이 막혀 가는 여학생을 그렸어요. 답답하고 해소되지 않는 분노를 미술로 표현한 첫 순간이었죠. 내재된 분노가 배설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껏 치켜뜬 눈과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날카롭고 거센 눈동자. 종이 인간의 표정이 하나같이 살아 있어요.

종이를 스무 겹 이상 붙이다가 마음 놓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지면 그때부터 숨을 참고 눈, 코, 입을 거침없이 그렸어요. 작품의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까지 표정을 이리저리 바꾸죠. 그제야 작품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아요. 관객도 제 작품의 눈과 마주했을 때 코에서 나오는 바람을 같이 느끼면 좋겠어요. 작품에 바리게이드를 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 작품의 생생함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거든요.

민주, 평화, 정의, 미진, 유진, 민정, 한미 등 사람 형상의 작품을 만들 때마다 한자한자 정성스럽게 이름을 지어요.

소설 <82년생 김지영>처럼 보편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서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이름도 나름의 뜻을 고심해서 지어요. 미진은 '아름다움 미(美)'에 '보배 진(珍)', 유진은 '흐름 유(流)'에 '보배 진(珍)'자를 썼죠. 각각 '우주의 아름다운 보배' '우주를 흐르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작품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진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도 친구처럼 "미진아" "유진아"하고 불러요.

손에 잡히는 크기부터 전시장 천장에 닿을 정도의 크기까지 크고 작은 인간 형상을 만들어요.

작업을 할 때마다 이 작품을 누가 볼지 생각해요. 2022년 개인

전 때 선보인 작품 '세미(世美)'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봐 줬으면 했어요. 세미는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닥네임이라 비슷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으면 했죠. 언제든 침대 머리맡에 놓거나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한 손에 잡히는 크기로 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대형 미술관에 작품을 설치할 때는 강렬한 메시지와 오라를 전하기 위해 크게 만들고요. 각각 매력은 있지만 규모가 큰 작품이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요. 늘 작게만 표현됐던 노동자가 서비스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자처럼 서 있으니 위계가 전복돼서 통쾌하더라고요.

작품을 보면 통쾌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성찰까지 하게 만들어요. 전시 <으쌔! 음식에서 머리카락!>에 선 노동자들이 당연시하는 머리 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죠. 어느 정도 의도된 부분인가요?

작업을 하며 이런저런 맥락을 섞다 보니 성찰까지 나아간 것 같아요. 한때 미술 비평계에서 "은유가 드러나지 않고 일차원적이다" "미술적 언어가 결여되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이야기는 직설적으로 전달해야 했어요. 지나가던 어르신이 봐도 단번에 작품의 의도를 알아채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저만의 전략이에요.

드래그 아티스트 모어(모지민)와 함께 했던 서비스 노동자의 애환을 춤과 연기로 펼치는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직접 퍼포머가 되어 작품과 연계된 퍼포먼스를 계속 선보여요.

연극과 무용을 좋아해요. 조각 작품은 정제되어 있고 시간성을 보여 주기 어렵지만, 몸을 움직이고 대사를 읊으면 조각 작품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맥락을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퍼포먼스는 조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화난 표정의 조각 작품을 보기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대사를 격정적으로 내뱉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를 마주할 때 '정말 화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렬하게 남아요.

작품을 만들고 발표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작가가 되는 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과 향후 계획이 궁금해요.

처음으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작업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지금은 기도와 관련한 작업을 준비 중이에요. 기도문과 경전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지금 시대에는 어떤 모습과 존재로 바뀌어 있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혐오'를 주제로 한 어린이 전시 <아이스크림 똥>이 10월 26일까지 열리니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다가면 좋겠어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여름의 첫 자락, 길어진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김환기의 그림을 만난 강원도 강릉은 사방이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동해 물과 '환기 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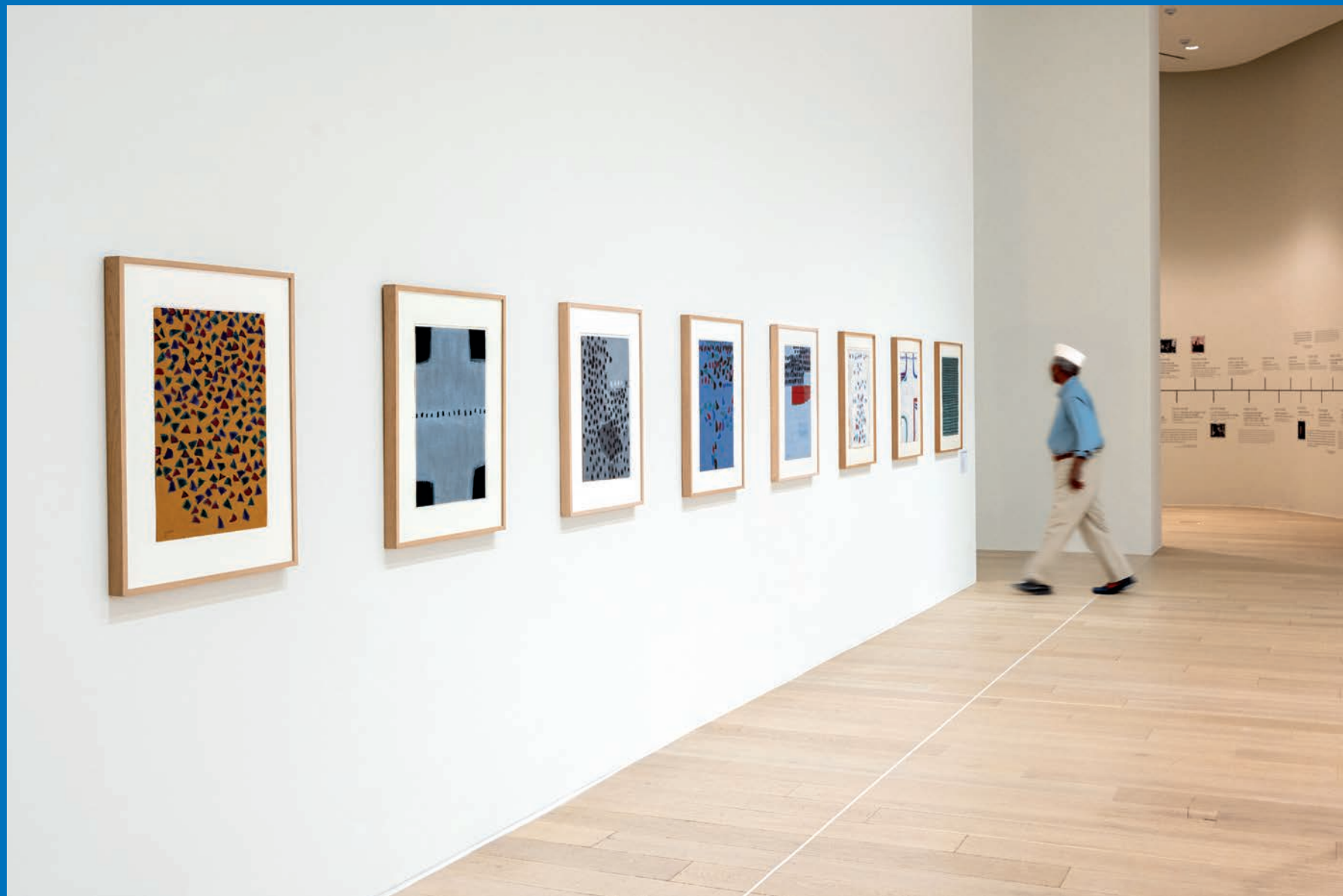
김환기의 표현에 따르면 동해는 “지독히 푸르고 맑아서, 흰 수건을 적시면 푸른 물이 들 것 같은 그런 바다”다. 1957년 프랑스 니스에서 개인전을 열었을 때, 그곳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말이다. 강원도 강릉역에서 차로 7분 남짓, 김환기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술은 동해의 안목해변, 경포대와도 가깝다. '소나무가 많은 고을'이라는 뜻의 '솔골'로 불리던 지역의 옛 이름을 딴 이 신상 미술관은 교동 언덕에 위치해 강릉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백색 건축'으로 유명한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 팀, 마이어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아 2024년 개관 직후부터 강릉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술은은 강릉시립미술관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지난 4월 2일 재개관했다. 외부의 빛과 풍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커다란 유리창이 인상적인 건물은 갓 꺼낸 캔버스처럼 새하얗다. 로비에는 1950년대 전후 공간주의(spatialism) 예술운동을 이끈 루치오 폰타나의 백색 네온 작품이 천장 조명 대신 걸려 있다. 폰타나가 캔버스를 뚫거나 베어내는 식으로 회화가 지닌 평면성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극복해 나갔다면, 김환기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회화의 공간 개념을 확장시킨 작가다. 기존의 사각 틀 안에 만경창과 우주를 집어넣은 그 무한의 세계는 놀랍게도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된다.

전시실은 총 세 곳으로 김환기의 전시는 1·2층 전관에서 진행된다. 전시의 부제는 '김환기의 뉴욕시대'다. 흔히 김환기의 작품은 그가 머물렀던 장소로 구분되곤 한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서구 미술의 신경향을 수학한 동경 시기(1933~1937), 한국의 자연과 달항아리 등을 주요 소재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 서울 시기(1937~1956), 20세기 추상미술의 최전선인 유럽에서 한국적 추상을 실험한 파리 시기(1956~1959), 귀국 후 두 번째 서울 시기(1959~1963), 그리고 별세하기 전까지 11년간의 뉴욕 시기(1963~1974)다. 뉴욕 시기에 이르러 그의 작품에서 구체적인 형체는 완전히 사라진다. 1층 1관에서는 드로잉과 스케치북 작업을 통해 점화에 도달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2층의 2관과 3관에서는 '환기 블루'로 알려진 푸른 점화 작품과 작가의 유작이 전시된다.

김환기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층 전시실의 작가연표를 꼼꼼히 읽어 보자.



강릉시립미술관 술은 전시 공간이자 전망 좋은 예술 공간이다.



미술관 안뜰 예술마당에는 강릉의 시화 백일홍(베를너루)이 자라고 있다.



“다정한 보름달, 보고 싶은 얼굴, 점경(點景)처럼 까마득히 멀지만 선명하게 남은 풍경들.
여러 나라와 도시를 떠돌아도 그의 마음이 머문 장소는 늘 이곳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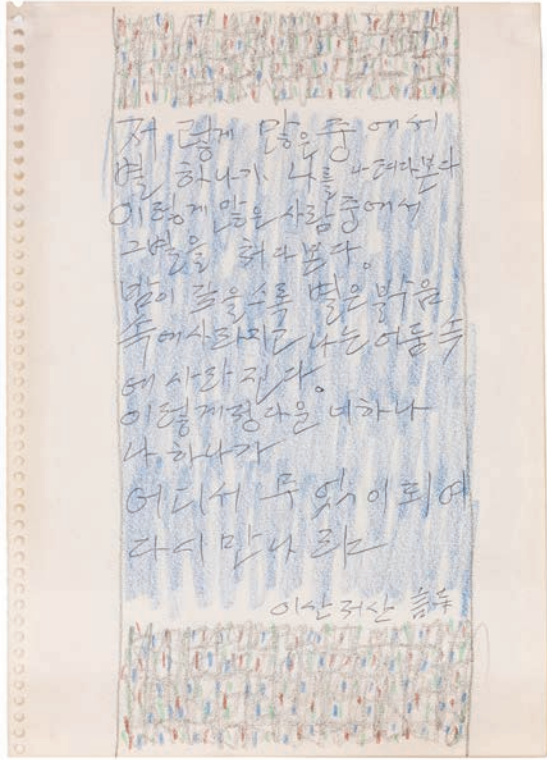
고요한 피소리 같은 리듬이 느껴지는 작품 'Sounds of Calm 16×73 #323'.

한 점 한 점 그리움을 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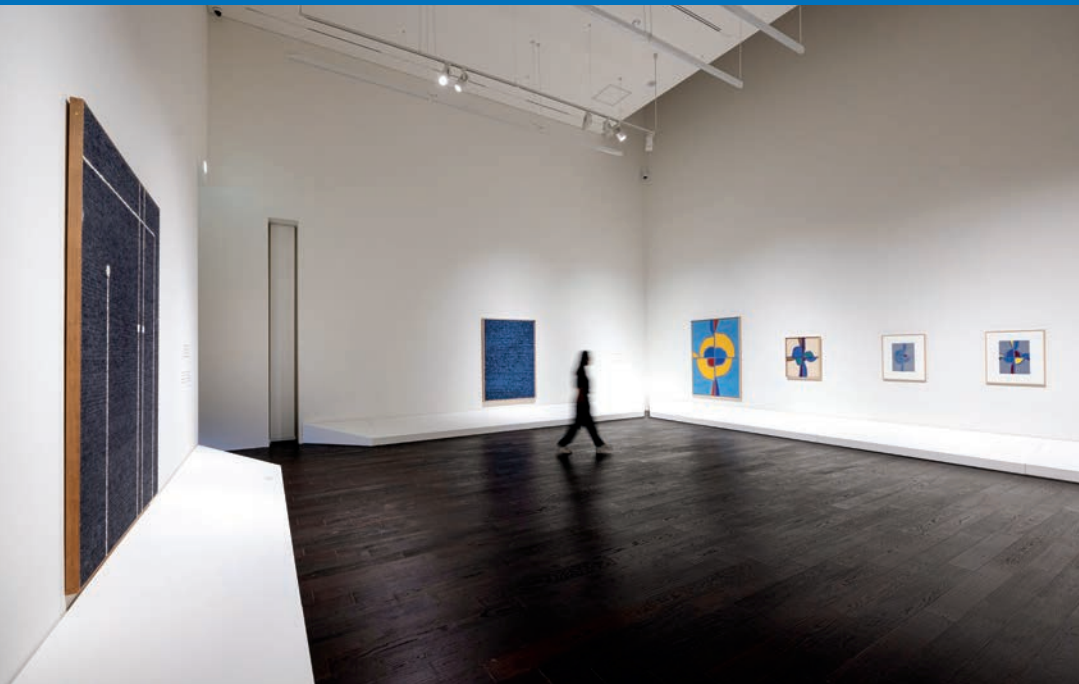
그의 일기에서 '점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65년이다. “아침부터 백설(白雪)이紛紛(紛紛) … 종일 그림 그리다. 점화가 성공할 것 같다. 미술은 하나의 질서다.”(1965. 1. 2.) 눈송이가 쌓이듯 화폭에는 물기를 머금은 점들이 찍혔고, 그송아리 얼룩 옆엔 하얀 오솔길 같은 여백의 선이 생겼다. 또 다른 일기에서 그는 “서울을 생각하며 오만가지 생각하며 적어 가는 점”(1970. 1. 8.)이라 말하기도 한다. 산마루 한옥집 감나무와 대추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열매, 그리운 하늘과 바람, 다정한 보름달, 보고 싶은 얼굴, 점경(點景)처럼 까마득히 멀지만 선명하게 남은 풍경들. 여러 나라와 도시를 떠돌아도 그의 마음이 머문 장소는 늘 이곳이었던 셈이다. 작가의 그림에 점점이 찍힌 그리움의 정체는

1962년 3월 5일 그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내 고향은 전남 기좌도. 고향우리 집 문간에 나서면 바다 건너 동쪽으로 목포 유달산이 보인다. 목포항에서 백마역 똑딱선을 타면 호수같은 바다를 건너서 두 시간이면 닿는 섬이다. 그저 꿈같은 섬이요, 꿈속같은 내 고향이다. … 순하다순한 마을 안산에는 이름드리 청송이 숨 막히도록 총총히 들어차 있고 … 낙락장송이 울창하게 들어찬 산을 바라보며 또 그 산속에서 자란 나에게겐 고향 생각이란 곧 안산 생각뿐.”

이번 전시 타이틀이 된 작업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눈물방울 같은 그리움이 빼곡하다. 뉴욕에서 시인 김광섭의 부고를 듣고 슬픔 속에서 완성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성북동 비둘기로 잘 알려진 김광섭은 그와는 성북동 이웃사촌이자 가까운 친구였다. 다행히 그 소식은 오보였고, 작품은 서울로 보내져 같은 해 열린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쉽게도 해당 작품을 볼 수 없다. 다만 그와 유사한 초기 점화의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 ‘17-IV-71 #201’과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적은 메모지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를 연필로 적고 색연필과 마커로 색을 채웠다.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시기의 작품들이 전시된 3관.



크기의 색연필 태생이 공개된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을 쳐다본다. (중략)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나 하나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정작 먼저 세상을 떠난 건 김환기였다. 1974년 7월 25일, 그는 고층 빌딩이 밀집한 포트체스터의 한 병원에서 뇌일혈로 눈을 감았다. 3관에 전시된 '7-VII-74'는 수술을 받으러 병원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손을 보았다는 마지막 작품이다. 자세히 보면 밑그림의 흔적이 희미한 연필 선으로 남아 있다. 참고로 수수께끼 같은 이 숫자들은 뒤에서부터 작품을 제작한 연도(1974년)와 월일(7월 7일)을 뜻한다.

점점이 찍힌 선율, 여름밤의 소리

김환기의 호는 '수화(樹話)'다. 좋아하는 글자를 모아 작가가 직접 붙인 이름이다. 나무와 초목을 뜻하는 한자 '수'는 근본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사물의 본질이 하는 말, 자연의 속삭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이야기. 184센티미터, 마르코 경충찬 키의 예술가는 태생적 고독 속에서 아득한 고향의 산과 들, 물과 바람의 음파를 화폭에 새겼다. 무수히 많은 점이 색의 공간을 채우면 낮고 희미했던 가락이 점차 뚜렷해진다. 넘실대는 파도의 흥겨운 선율, 굽이굽이 산을 넘는 바람의 울림, 맑

고 명랑한 여름밤의 두런거림. 소리는 작품 활동 초기부터 그가 주목한 주제이기도 하다. 신안 섬마을 풍경을 경쾌한 리듬의 추상 화면으로 구성한 '론도'(1938)부터 물결처럼 새파란 화면의 상·하단에 작은 오색 점들이 군집한 '여름밤의 소리 7-III-70 #163'(1970), 동심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산울림 19-II-73-73 #307'(1973) 등 제목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는 작품이 여럿 있다. 2관 전시장 중심에 놓인 'Air and Sound I 2-X-73 #321'(1973)은 이번 전시의 포스터이기도 하다. 공기의 움직임, 마음의 파동과 같은 비가시적 대상을 무수한 점으로 옮긴 그의 그림은 시공간을 잇는 마법의 포털처럼 경이롭다.

미술관을 나와 바다로 향하는데 문득 악동뮤지션의 '뱃노래'가 떠올랐다. “꺾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낀다/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향해하는 법을 알아”. 만약 김환기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이들의 노래를 좋아했을까? 그럼만큼이나 시를 사랑했던 그는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한다.<현대문학>, 1957년 1월호, ‘파리 통신’” 고 말했다.

그가 부르던 노래는 지금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멀리 파도 소리에 더욱 피치를 올리는 푸르른 노래. 온 세상이 파랗게 물드는 지금, 수화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이번 김환기 특별 전시는 작가가 뉴욕에 머물던 시기(1963~1974)의 주요 작업을 소개한다.

+ 한 걸음 더

강릉시립미술관 솔울은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 볼 만하다. 마이어 파트너스가 강릉 씨마크 호텔에 이어 선보인 기하학적 형태의 이 백색 건축물은 방문자에게 건축적 산책을 제안한다. 미술관은 교동 7공원의 산책로와 연결되며, 경사로를 오르면 마주하는 탁 트인 전망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배롱나무가 자라는 안뜰 예술마당에는 알고 넓은 연못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가운데 중정이 자리하고, 한옥처럼 세 개의 파빌리온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주 출입구와 카페가 위치한 중앙의 투명 파빌리온은 내·외부가 모두 훤히 드러난다. 본래 있던 자연 속에 건물이 자연스레 스며드는 구조다. 김환기 특별 전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열린다. 하반기에는 '핑크 팬더' 시리즈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국 팝아트 작가 캐서린 번하드의 전시가 이어진다.

비움과 채움의 시간 유원재

마당과 차실, 노천탕을 갖춘 16개 객실, 건강한 식재료로
정성껏 차린 9코스 다이닝과 13첩 조식,
그리고 숲에 둘러싸여 즐기는 온천욕. 우아하고 프라이빗한
여름 휴가지를 찾는다면 유원재가 정답이다.



1 유원재의 객실 4개 타입 중 하나인 수정. 객실마다 약 165제곱미터(50평)의 정원을 품고 있다. 2 객실 유순의 노천탕. 정원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3 객실 수정의 침실. 장응복 디자이너의 벽지 작품이 인상적이다. 4 유원재 파티시에가 손수 만든 숲 아이스크림. 하루 두 번 카페에서 창의적인 디저트와 음료를 선보인다. 5편하고 맛있는 유원재 생활복.



유원재가 자리한 곳은 197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신 혼여행지로 각광받은 충북 충주의 수안보 온천 관광 특구. 유서 깊은 온천 호텔과 충주의 명물 꿩고기 요리 전문점들을 지나, 아래로 남한강 줄기가 흐르는 온천 교를 건너자 드디어 돌담을 낮게 드리운 유원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오후 2시. 유원재 로비에 들어서자 체크인을 도와줄 담당자가 '라운지 수로' 일행을 안내한다. 따스한 굴피차와 양갱을 음미하며 라운지의 통유리 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온통 물 세상이 펼쳐진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느낌. 라운지 수와 건너 편카페, 그 사이를 연결하는 회랑과 돌담 안쪽으로 물의 정원을 만들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물결의 일렁임을 바라보게 한 것이 이채롭다. 첫인상부터 돋보이는 섬세함. 유원재가 더욱 궁금해진다.

정원을 품은 섬과 사색의 집

2023년 9월에 문을 연 유원재는 한옥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객실 16개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각각 독립된 객실 7채와 9채가 2열로 나란히 자리한 모습이다. 검은색 지붕을 얹은 건물들이 각기 다른 높이로 물결치듯 이어져 주변 산세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객실 사이사이엔 담을 두어 사적 공간을 확보하고, 모든 객실에 개별 정원과 노천탕을 설치해 섬과 사색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청마루와 디딤돌, 격자무늬 창 등 한옥의 건축적 요소를 객실 곳곳에 적용한 것도 멋스럽다. 유원재의 객실 타입은 유순, 겸화, 청심, 수정 네 종류. 퇴계 이황의 마음을 다스리는 서른 가지 비법에서 이름을 따왔다. 크기는 20평형과 30평형 두 종류로, 기본 2명부터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 중 에디터가 묵은 객실은 유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짙은 고동색과 금색으로 마감한 인테리어가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실 앞 통창 너머로 보이는 흙 마당 정원. 살구나무와 노각나무가 서 있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돌이 얹아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기 좋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 거실 안쪽, 디딤돌과 대청마루로 꾸민 공간은 차실 겸 침실. 욕실을 통과해 밖으로 나가면 마당 풍경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비밀스럽게 자리해 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공간들. 서둘러 짐을 풀고 노천탕에 몸을 담그니 긴장된 근육이 스르르 풀리며 머리가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숲에 안겨 예술을 먹다

온천욕으로 몸의 피로를 풀었다면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에너지를 채울 차례. 유원재가 야심 차게 준비한 다이닝을 즐기러 레스토랑 미션으로 향한다.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꽃말을 지닌 미션나무는 유원재의 마음을 담은 상징. 레스토랑 이름도 미션이다. 유원재 객실에는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체크인 당일 저녁 식사와 이튿날 조식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루 두 번 카페에서 파티시에가 준비한 디저트와 음료도 제공해 유원재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배가 출출할 틈이 없다. 레스토랑 미션의 룸은 객실 수와 동일한 16개. 한 칸의 공간이 하나의 객실을 위해 오롯이 준비돼 기다리는 일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2

1 유원재 카페. 물의 정원을 바라보며 디저트와 시그너처 음료, 생맥주 등을 즐길 수 있다.
2 온천을 표현한 해산물 플레이트. 맛은 물론 보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3 '왕의 밥상'이 부럽지 않은 13첩 조식. 4 레스토랑 미선의 룸. 통창 밖으로 싱그러운 정원이 보인다. 5 유원재에서 직접 만든 사과주에 4종의 안주를 곁들인 맛이 차림.
6 김유재 총괄 셰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창조적 레시피를 선보인다.



4



5



6

레스토랑 미선의 문을 열자,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돌과 이끼,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꾸민 정원이 감탄을 자아낸다. 숲속 만찬에 초대받은 기분. 상큼한 사과주에 한 입 거리 안주 4종을 곁들인 맛이 차림을 시작으로 최고 등급 한우와 싱싱한 해산물, 충주에서 난 제철 채소와 과일 등으로 차린 9코스 요리가 2시간 동안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가장 인상적인 코스는 온천을 표현한 해산물 플레이트. 도미와 참소라로 만든 물회와 매실에 절인 문어 숙회 등 4종의 요리가 유리 접시에 담겨 나오는데, 접시 아래로 파인 불에 온천수를 부으니 하얀 김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마무리 코스는 충주 앞새버섯 술밥에 간장과 기버터를 넣고 비벼 주는 술밥. 졸깃한 버섯에 늘 은밥의 오독한 식감,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간장과 버터의 조화가 먹을수록 입맛을 당긴다.

경북 문경에서 9대에 걸쳐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빚어 온 조선요, 수작업 특유의 자연스러운 질감이 돋보이는 거창유기 등 음식을 담은 그릇에서도 품격이 느껴진다. 유원재의 식탁을 책임지는 사람은 김유재 총괄 셰프. 미국과 캐나다, 남미, 일본에서 정교한 이탈리아 요리와 프렌치, 일식 요리를 섭렵한 실력자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창조적 레시피를 선보인다.



3



1

1 대중탕의 실내 온천탕. 수질이 부드럽고 경쾌한 수안보 온천수는 피부병과 신경통, 피로 해소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유원재에선 몸의 기운을 북돋고 피로를 풀어 주는 테라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3 숲속에 둘러싸여 온천욕을 즐기는 대중탕. 4 불명을 하거나 책을 읽기 좋은 라운지 온.
5 로비의 전시관 겸 갤러리. 영상을 통해 유원재의 사계절을 볼 수 있다.
6 자연석과 정원수로 꾸민 노천 온천탕.



2



3



6



4



5

가는 방법 경기도 출발을 기준으로 판교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수안보온천역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유원재란 이름의 안식처

저녁을 먹고 나니 졸음이 밀려오지만 한밤에 즐기는 온천욕도 포기할 수 없다. 유원재에는 객실별 온천 외에 노천탕이 포함된 남녀 대중탕과 대여탕도 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대중탕을 모두 경험하도록 매일 남탕과 여탕을 바꾸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중 자연석과 조경수로 꾸민 대중탕에 몸을 담그니 깊은 산속 천연 온천탕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대중탕 옆에는 4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여탕도 있다. 돌담과 정원으로 둘러싸인 넓은 노천탕에서 연인이나 가족이 프라이빗한 온천을 즐기기에 좋다. 유원재에서 온천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피부가 매끄러워진 느낌이 드는데, 이는 부드러운 수질의 수안보 온천수 덕분이다. 수안보 온천은 지하 250미터에서 용출되는 수온 53도, 산도 8.3의 약알카리성 온천 원액으로, 인체에 이로운 각종 광물질이 함유되어 피부병, 신경통, 피로 해소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이성계가 악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수안보 온천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수안

보 온천을 '왕의 온천'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25년에 개발한 이래 국내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수안보 온천수는 현재 충주시에서 중앙 집중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원재에서의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노천탕을 찾았다. 따스한 물에 몸을 담그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호사라니. 조식은 또 어떤 감동을 줄까 기대하며 레스토랑 미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버터헤드 상추 샐러드에 이어 사과와 당근, 요구르트를 넣어 만든 디톡스 주스로 시작되는 13첩 반상은 가히 '왕의 밥상'이 부럽지 않은 구성이다. 전복과 닭, 능이버섯을 넣고 맑게 끓인 유원재 시그너처 보양탕에 장어구이와 향정살 수육, 미역과 톳으로 쏘문과 보리굴비 등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맛과 차림새에 절로 감동이인다. 결코 만만치 않은 숙박료에도 오픈 런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프리미엄 온천 호텔. 유원재에서의 1박 2일은 비움과 채움, 쉼과 사색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소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문의 043-820-8100

6월, 밤이 더 즐거운 춘천 여행

성큼 다가온 여름의 정취가 여행자의 낭만을 자극한다.
밤의 호숫가가 빛으로 흥건할 때, 형형한 야시장의 열기가
도시의 어둠을 밝힐 때, 강원도 춘천으로 야행을 떠나자.

2021년에 문을 열었는데, 삼천동에서 삼악산으로 이
어지는 3.61킬로미터 길이의 코스 내내 그윽한 호숫가
풍광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기 좋다. 특히 일몰 직
전에 의암호 정차장을 찾으면 해가 뉘엿거리는 기암절
벽을 병풍 삼아, 케이블카 조명이 호수 수면에 부딪혀
반짝이는 영원 같은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

북한강 물길을 따라 좀 더 북쪽으로 향하면, 레고랜드
가 위치한 하중도 맞은편으로 '근화수변 문화광장숲'
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말 강원도 춘천시가 의암
호의 수생태계를 관람하며 각종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옛 물양장(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자리에
조성한 따끈따끈한 신상 공간이다. 1만 제곱미터 부지
에 잔디 마당과 공연장, 야생 화원, 전망대 등이 들어
서 있는데, 그중 구름다리 형태의 전망대는 한낮의 경
관도 수려하지만 밤에 꼭 한번 걸어볼 것을 권한다. 전
망대를 빙 둘러싼 조명 덕분에 마치 빛과 함께 산책하
는 듯 색다른 정취가 느껴진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망대가 춘천대교 야경을 감상하는 데에도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 55미터 높이의 원형 주탑이 뿜
어 내는 색색의 조명부터 다리 상판에서 시작되는 272
미터 규모의 분수 쇼까지, 전통의 야경 명소로서 춘천
대교의 입지는 매년 쉼 없이 등장하는 도시의 랜드마크
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공고하다.

형형한 춘천대교 불빛을 끼고 20분가량 산책하다 보
면 북한강과 소양강이 맞닿는 물줄기 위로 새로운 빛
의 이정표가 나타난다. 춘천을 대표하는 포토존 '삼악산
강스카이워크다. 전체 길이 174미터 중 156미터 구간
이 투명 강화유리 텍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교량 끄트

1야경이 눈부신
춘천대교.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로도 입소문이
났다. 2아름다운 석양
아래서 운행하는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3소양강스카이워크가
춘천의 밤을 밝힌다.

1

어떤 여행은 도시의 어둠과 함께 시작된다. 때론 아스
라한 가로등 불빛이, 적요를 깨우는 바람의 흔적이 낮
선 여정의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야행의 매력은 밤바
람에 온기가 맺히는 이 계절에 더욱 무르익는다. 여름,
호수 그리고 야경. 이만큼 여행자의 낭만을 일깨우는
조합이 또 있을까. 올여름 첫 야행지를 고심하다 끝내
춘천으로 향한 이유다. 삼면이 호수에 감싸인 이 청청
한 물빛 도시는 일몰을 기점으로 한층 깊은 빛과 어둠
의 층위를 드러낸다.

빛이 이끄는 길, 춘천 야경 산책

여정의 출발점은 의암호 상공을 가로지르는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다. 활과 부메랑을 모티브로 설계해



2



3

머리의 원형 광장에서 감상하는 탁 트인 풍경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낮에는 모험심을, 밤에는 낭만을 채워 주는 다채다능함 역시 여행객들이 손꼽는 매력 포인트. 일몰 뒤 스카이라이프 전체에 조명이 켜지면 물과 하늘 사이를 파고드는 오색 불빛이 여행자의 밤을 황홀하게 만들어 준다.

좀 더 높은 지대에서 호수와 강이 어우러진 전경을 한 눈에 담고 싶다면 도시의 동쪽 전망대 격인 '구봉산 카페 거리'로 향한다. 1992년 춘천외곽도로가 구봉산 중턱까지 연결되면서 일대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춘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야경 맛집 중 상당수가 이곳에 모여 있다. 멸찍이 봉의산 너머로 떨어지는 붉은 석양과 검푸른 산수 병풍 아래 펼쳐지는 도심부의 야경은 커피 한 잔 값으로 즐기기에 지나치게 근사하다.

야시장에서 마주친 '낭만 춘천'

호수와 산을 오가며 춘천의 야경 명소를 섭렵했다면 이제 진짜 이 도시의 밤을 맛볼 차례다. 현재 춘천에는 총 일곱 곳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 풍물시장과 후평시장에 여름 내내 야시장이 선다. 어두운 골목 어귀를 밝히는 휘황한 불빛과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맛깔스러운 안주, 가판대 천막 사이로 새어 나오는 훗훗한 온기까지, 과연 야시장은 여름 낭만 야행의 정점이라 할 만하다. 특히 지난 4월 말 빠르게 개장한 후평어울야시장은 소박하면서 정겨운 분위기와 인심 두둑한 먹거리 덕분에 이미 여행객들 사이에서 춘천 야행의 필수코스라 떠오르는 중이다.

신기루 같은 노란 불빛에 이끌려 느지막이 후평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도시의 어둠 아래 숨어 있던 뜨거운 풍경이 돌연 모습을 드러낸다. 인파로 들쭉이는 골목 양쪽의 매대마다 서로 다른 장르의 메뉴가 가득하다. 전이며 국수 같은 전통적인 노포 음식부터 닭꼬치, 치킨, 족발, 떡볶이, 육회, 해산물 구이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주전부리, 여기에 생맥주와 막걸리, 하이볼까지 더해지니 어디 하나 거를 타선이 없다. 사실 후평어울야시장은 문 닫힌 상점 골목에 외부 인력이 들어와 가판을 여는 일반 야시장과 달리, 시장 상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 축제와 같다는 점에서 한층 의



1

미가 깊다. 새우 꼬치 하나, 오징어회 한 접시에도 수북이 쌓이는 상인들의 이야깃거리가 골목 전체에 살기운 정서를 더한다. 덕분에 지난해만 해도 약 2만 8100명의 방문객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위축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편 풍물시장의 꼬꼬야시장 역시 지난해 '춘천 핫플'로 SNS를 뜨겁게 달구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1980년대부터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 온 풍물시장을 터로 삼은 만큼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야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각종 콘텐츠 강화에 주력하는 중이다. 상점가 아케이드 안쪽으로 테이블이 콕콕 들어찬 후평어울야시장과 달리, 널찍한 잔디밭 광장에 먹고 마시는 공간을 조성해 한결 탁 트인 야장 감성이 느껴진다. 참고로 꼬꼬야시장은 풍물시장 장날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후평어울야시장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운영한다.



2

1 폭넓은 연령대의 인파로 불비는 꼬꼬야시장 잔디밭 중앙광장.
2, 4 후평어울야시장의 다양한 주전부리. 간단한 안주부터 본격적인 식사 메뉴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3 금요일과 토요일 밤마다 후평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는 시민과 여행객.



3



4

+

에코투어

수려한 숲과 호수의 풍광을 그저 눈에 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면 춘천시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기획한 '에코투어'에 주목할 것. 춘천의 자연을 보다 깊이 만끽할 수 있는 힐링 레저관광 프로그램으로, 자전거 라이딩과 의암호 카누링, 봉어섬 둘레길 트레킹 등 세 가지 체험 투어가 결합돼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모집 인원은 500명, 운영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문의 010-7439-9411





1, 2 지난해 춘천영화제 개막식 풍경. 올해는 과거 기무부대 관사로 사용하던 춘천예술촌 잔디마당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3, 4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하지감자의 매력을 만끽하고 싶다면 2025 춘천 감자 페스타를 놓치지 말 것. 5, 6 다양한 거리 공연이 열리는 춘천연극제.



+ 춘천투어패스

모바일 티켓 한장만 있으면 48시간 동안 마음껏 춘천 '갯성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레고랜드와 애니메이션박물관, 플레이징글 춘천엔터테인먼트, 박사마을곰핫도그 등 총 11곳의 인기 시설 및 명소 이용권을 콕콕 눌러 담은 '춘천투어패스' 48시간권' 덕분이다. 단, 이들을 알게 보낼 만큼 일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앞선 혜택을 합리적으로 압축한 '춘천투어패스 라이트권'을 추천한다. 첫 입장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레고랜드와 플레이징글을 제외한 모든 제휴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다. 48시간권은 4만 9900원, 라이트권은 1만 5900원이다.

문의 070-4263-7790



여름의 문을 여는 축제

춘천의 여름을 알리는 건 무르익은 밤의 정서만이 아니다. 풍경의 농담이 짙어지는 6월,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 온갖 축제가 개막 준비에 한창이다. 가장 먼저 '춘천사이로248(With사이로게임)'이 포문을 연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 축제는 '누구나 와서 즐기는 사이로 놀이터'를 테마로 14일과 15일 공지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추억의 단체 게임을 비롯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의 미션 프로그램,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만드는 체험 부스 등이 준비돼 있다. 버블 아트 쇼와 마술 퍼포먼스, 마임 쇼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역시 다양하다. 제철 먹거리의 가치를 아는 여행객이라면 21일부터 이들 동안 신북 샘밭장터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춘천 감자 페스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춘천이 자랑하는 하지감자를 단순한 판매 상품이 아닌 문화 체험 소재로 활용하는 행사다. 감자빵의 원조로 유명한 디저트 브랜드 '감자밭'과 감자로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감자아일랜드', 핫도그 맛집으로 꼽히는 '박사마을곰핫도그', 감자 테마의 이색 소품을 선보이는 '포테이토교' 등 트렌디한 로컬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도 이제 막 오픈 준비에 나섰다. 명랑 감자 운동회, 감자 슬라임 만들기,

감자 요리 쿠킹 클래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 하반기부터는 문화도시 춘천의 면모가 한층 강하게 드러난다. 도시 이름을 내건 간판급 문화 예술 축제가 26일과 27일, 나란히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발 먼저 출발하는 건 2014년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선구자인 고(故) 이성규 감독을 기리며 시작한 춘천영화제. 많은 지역 영화제가 그러하듯 규모가 크진 않지만, 춘천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그리고 독립 영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실험의 장으로 그간 성실하게 기반을 다져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의 봄'을 슬로건으로 삼아 영화인과 관객이 '자유롭고 흥겹게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춘천영화제가 차근차근 성장 중인 지역 기반의 영화 플랫폼이라면, 올해 27회째를 맞는 춘천연극제는 이미 국내외로 명성이 높은 대규모 공연 예술 이벤트다. 6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장장 128일간 도시 곳곳을 돌며 펼쳐지는데, 단순한 축제를 넘어 웃음과 메시지를 함께 담은 코미디 연극을 통해 많은 이들과 교감한다. 이 여름, 우리가 춘천을 찾아야 하는 이유 역시 계속 늘어날 거란 이야기다.

해수욕과 축제의 계절 여름 강릉의 낭만

성큼 다가온 여름, 강원도 강릉의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을 앞두고 있다.
6월과 7월엔 수제 맥주와 버스킹,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축제도 열릴 예정이다.



1

워터파크로 변모한 경포해수욕장

강원도의 여름 피서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역시 경포해수욕장이다. 질푸른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 색색의 파라솔이 늘어선 경포해수욕장은 상상만으로도 설렘을 안긴다. 경포해수욕장은 사시사철 수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강릉의 대표 관광지. 강릉 시내에서 북쪽으로 6킬로미터, 경포대에서 1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경포호와 동해 바다 사이 6킬로미터에 걸쳐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수심이 1~2미터 정도로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본격적인 해수욕의 계절, 6월 28일 경포해수욕장이 개장한다. 경포해수욕장 개장을 손꼽아 기다린 이유는 여느 해수욕장에선 볼 수 없는 역동적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7일까지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유아·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춘 해수풀장을 마련한다. 특히 가족 단위 피서객이 신나는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해수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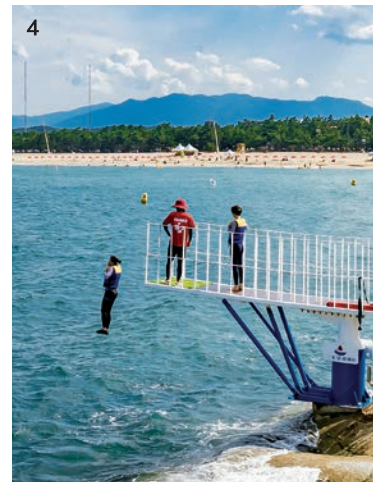
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편히 쉴 공간도 확보했다. 40년 만에 부활한 추억의 오리바위 다이빙대도 흥미롭다. 바다 가운데 솟은 오리바위까지 부교를 밟고 걸어가면 바위 끝에 설치된 높이 2.4미터의 다이빙대가 보인다. 바다가 두렵지 않은 용자는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 수심 5.8미터의 동해 바다에 풍덩 뛰어들면 한여름 더위가 저만치 물러난다. 7월 4일에는 안목 해변, 주문진 해변, 소돌 해변, 송정 해변 등 강릉시 읍면동에 자리한 해수욕장들도 일제히 개장한다. 이 중 카페 거리가 있는 안목 해변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자도 이용 가능한 펫 비치다. 커피 향 가득한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거나 반려동물과 백사장을 거닐며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주문진 해변은 BTS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급부상한 곳. 드라마 <더 글로리> 촬영지인 소돌 해변과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송정 해변도 강릉의 여름 여행지로 빼놓을 수 없다.

제2지원 강릉시정



3

1여름이면 거대한 워터파크로 변모하는 경포해수욕장. 2수제 맥주와 강릉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 3전국의 뮤지션들이 재능을 겨루는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440년 만에 부활한 추억의 오리바위 다이빙대.



4



2

강릉의 여름, 축제와 낭만의 시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바다의 열기를 한층 높여 줄 축제가 경포해변 일원에서 열린다. 6월 27일 강릉 여름 축제의 포문을 여는 행사는 '제5회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이다. 전국 각지의 수제 맥주와 강릉의 지역 먹거리를 즐기며 여름 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수제 맥주 부스와 함께 지역의 수공업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부스도 마련하고, 라이브 밴드와 디제잉 파티, 버스킹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한다. 맥주에 진심인 사람이라면 맥주 만들기 체험에 도전해 볼 것. 바닷바람을 맞으며 비치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경포해변을 뜨겁게 달굴 또 하나의 축제는 '2025 경포 썸머페스티벌'이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푸른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록, 힙합, 발라드, EDM 파티 등 매일 다른 테마로 경포의 밤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해양 스포츠와 버스킹,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제2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가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음악에 자신 있는 뮤지션들이 모여 재능을 겨루는 흥미진진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대회 기간 중 매주 금·토·일요일에 본선 무대가 펼쳐지고, 이를 통해 선발된 8개 팀이 8월 16일 결승 무대에 오른다. 매주 목요일에는 실력 있는 버스커들이 강릉 바다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이는 프리버스킹을 선보인다.



걸으며 즐기는 라벤더축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무릉별유천지에서 라벤더축제가 열린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롤루랄라 라벤더 트레일'도 마련한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라벤더 향 가득한 강원도 동해의 무릉별유천지에서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2025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가 열린다.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나태주·박군의 <태곤 노래자랑> 시즌2 결승전, 초대형 버블 쇼, 보라색 테마 플래마켓, 라벤더 트레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축제 기간 중 14, 15, 20, 21, 22일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롤루랄라 라벤더 트레일'을 운영한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청옥호부터 라벤더 정원, 금곡호와 잔디밭을 걷는 2시간 코스로, 아름다운 호수를 감상하며 향긋한 라벤더 향기에 취할 수 있다. 특히 석회석을 채굴하고 난 구덩이에 금곡계곡의 물이 흘러 내려와 형성된 2개의 호수 청옥호, 금곡호가 이 구덩이의 하이라이트다. '롤루랄라 라벤더 트레일' 참가자에겐 기념품으로 가방과 손수건, 배지 등을 제공한다.

무릉별유천지는 동해 소금길 세 코스 중 하나인 제3코스 금곡동 옛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동해 소금길은 과거 선조들이 동해시 북평장터에서 구입한 소금을 백두대간 고갯길을 따라 정선의 임계장터를 비롯한 영서 지역으로 옮길 때 이용했던 옛길. 중요한 경제활동을 이어나갔던 삶의 터전이자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길이다. 무릉별유천지의 탄생 배경도 흥미롭다. 1968년부터 쌍용C&E가 40년간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3지구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1만 8100제곱미터(약 5500평) 규모로 조성한 라벤더 정원은 6월부터 7월 초까지 절정을 이뤄 푸른 호수와 대비되는 보랏빛 세상을 선보인다. 국내 최초의 4인승 스카이글라이더와 최대 속도 시속 40킬로미터의 알파인 코스터, 총길이 1.5킬로미터의 오프로드 루지와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짜릿한 어드벤처 체험 시설도 마련되어 동해시의 떠오르는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2025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기간 6월 14일~22일
장소 강원도 동해 무릉별유천지 일원
문의 033-532-1945(동해문화관광재단)

제작 지원 동해문화관광재단



2025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

2025. 6. 14.(토) ~ 6. 22.(일)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일원

야간개장

운영시간 **09:30 ~ 22:00**

(입장마감 21:00)

롤루랄라, 라벤더 트레일

- **행사내용** 무릉별유천지와 연계한 트래킹 프로그램
- **행사기간** 2025년 6월 14일(토) ~ 22일(일)
- **모집대상** 초등 1학년(2018년생) ~ 성인
- **참가비** 10,000원 (입장료 포함, 물·간식제공)
- **신청방법** 홈페이지 사전예약 (www.동해소금길.kr)
※ 선착순 마감, 당일 현장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동해소금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청하기



동해시
DONGHAE CITY



동해문화관광재단
Donghae Culture & Tourism Foundation



읽을 맛 나는 이색 책방

서울 연남동과 연희동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책방 투어.
머무르기만 해도 책 한 권 펼쳐 보고 싶은 독특한 콘셉트의 책방을 찾았다.

1 | 파랑에 관한 모든 것 쏘블루

지난해 2월 14일 파랑에 진심인 공간이 생겼다. 이름도 쏘블루. 표지가 파란 책과 제목에 '파랑'이 들어간 책 등 파랑과 관련된 책이 모두 모인 곳이다. 책만 파란 게 아니다. 서점 앞을 지키는 자전거부터 스피커, 위스키 라벨, 텐테이블, 심지어 찻잔 테두리까지 파랗다. 블루와 관련한 재즈 감상회도 진행한다. 이름은 재즈 앨범명에서 따온 'Blue Hour'. 물감과 색연필로 나만의 블루를 만드는 경험도 특별하다. 메뉴마저 파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음료로 준비했다. 깊고 진한 블루가 떠오르는 드립 커피 '올드 블루'와 싱그러운 하늘색이 생각나는 덴마크 티 '쿨 허벌'이 대표적이다. 또 어떤 블루가 등장할까.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쏘블루만의 파란 세계가 궁금해진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7 문의 @sobblue_official

2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마법 같은 공간 달걀책방

개성 넘치는 표지와 역동적인 타이포그래피가 담긴 그림책들이 정면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책방. 갖고 싶은 책을 신중히 고르는 마음이 달걀을 소중히 다루는 행동과 닮아 달걀책방이라 이름 지었다. 명유미 대표는 자유분방하고 따뜻한 시선이 담긴 그림책을 비롯해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일러스트레이터 책도 소개한다. 매달 열리는 그림책과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전시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아동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배열하는 등 명 대표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전시 기간에는 작품과 관련한 재미있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그림책 <열치 다듬기> 속 죽방멸치와 디포리가 겨루는 장면처럼 팀을 나누어 육수 맛 대결을 펼치고 잔치국수를 만들어 먹는 식이다. 책 속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재현해 보는 경험이 색다르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9길 43-35 문의 @egg.bookshop



3

읽고 쓰는 손님들의 사랑방 페이퍼

서울 연희동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페이퍼는 김민정 대표가 연남동과 상수동에서 운영하던 만화 카페 '즐거운작당'과 그림 책방 '달달한작당'을 합쳐 새롭게 만든 공간이다. 독특한 점은 회원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 아는 사람만 오는 비밀스럽고 안전한 공간을 지향하는 김 대표의 뜻이 담겼다. 책장엔 주인공의 취향과 사심이 가득한 책 2만여 권을 엄선해 채워 넣었다. 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도 있다. 5주간 최대 50권까지 빌려 갈 수 있는 '테이크아웃 북클럽', 평소 미뤄 왔던 단짓을 하는 '미래 배도 워크샵' 등 모임 내용도 이색적이다. 어느 만화방이나 카페처럼 라면과 음료도 준비되어 있어 출출해진 배를 채울 수도 있다. 페이퍼만의 특별한 메뉴를 맛보고 싶다면 매주 목·금요일에만 선보이는 가정식 요리를 놓치지 말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5안길 32-7 문의 @paperr.bookshop



4

필름 사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엘리브러리

300여 권의 필름 사진책을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도서관 엘리브러리는 아날로그 필름의 따뜻한 감성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천국 같은 곳이다. 영국 유학 중 필름 사진의 매력에 빠진 강혜원 대표는 2017년부터 전 세계 카메라 숨을 돌아다니며 필름 카메라와 필름 사진집을 수집했다. 영국 가정집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내부는 패종시계, 서양 유화 등이 앤티크한 감성을 물씬 풍긴다. 런던, 옥스퍼드 등 영국 도시로 테이بل 이름을 명명하고 그 위에 도시 풍경이 담긴 필름 사진집을 놓아둔 점이 재밌다. 사울 레이터, 비비안 마이어 등 사진계 거장들의 작품은 물론, 일반인의 희귀한 1950~1960년대 필름 사진집도 있다. 엘리브러리의 모든 필름 사진책에는 그 시절의 역사와 추억이 깃들여 보지만 해도 영감이 샘솟는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길 52 문의 @allybrary

5

여행자를 반기는 책방 체크인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체크인에서 기분 전환을 하는 건 어떨까. 여행책과 와인으로 가득 찬 공간, 체크인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의 체크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진다. 여행의 낭만을 더하는 예술 서적은 기본이고 특정 도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에세이나 인문서도 갖췄다. 큐레이션 코너인 '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책'에는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녀도 부담 없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일본 도쿄와 교토에만 있는 연꽃 인센스 같은 지역 특색이 뚜렷한 로컬 상품도 판매한다. 체크인의 또 다른 묘미는 와인과 함께 즐기는 독서다. 와인 선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와인 셀프 체크인 가이드'도 마련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여행을 원한다면 알바리뇨를, 나무 냄새와 흙의 감촉을 만끽하고 싶다면 리슬링을 추천한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9안길 29 문의 @checkin_books



판교에서 발견한 초록빛

지난해 11월 30일, 중부내륙선이
개통하며 경기도 판교와 경북 문경이
훨씬 가까워졌다. 판교역 근처에서
여행자의 눈이 맑아질 만한 싱그러운
빛깔을 찾아 여섯 곳을 탐방했다.



가는 방법 경기도 출발을 기준으로 판교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충주역까지 1시간 5분,
문경역까지 1시간 35분 정도 걸린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



판교역에서 3분 정도 걸으면 그림책과 전시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나온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 작가 이수지, 신화나 고전문학을 재해석하는 아르헨티나 작가 파비안 네그린 등 그동안 여러 작가의 원화를 선보이며 그림책의 매력을 알려 온 곳이다. 7월 6일까지는 환경 그림책 전시 <내일도 만나 See You Again>로 국내외 작가 22명의 작품 170여 점을 공개한다. “나무에서 한없이 베푸는 사랑을 느껴 보세요” “부드럽게 날고 있는 꿀벌을 찾아 보세요” “그림에서 사라지는 색과 점점 많아지는 색은 각각 무엇인지 자세히 감상해 보세요” 같은 그림 아래 적힌 문장이 관람 방향을 안내한다. 열린 서재에는 영유아용 그림책부터 성인용 그림책까지 6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소셜 속 문장을 따라 걸어가는 이야기의 여정도 즐겁지만, 그림과 짧은 문장 사이 여백을 채워 보는 모험도 짜릿하다. 그 상상의 시간은 오토이 독자의 몫이다. 빈백에 편히 몸을 기대어 앉아 그림 속 풍경에 빠져 보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문의 031-5170-3700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쉽고 재밌게 배우는 생태계 이야기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논하려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강조해야 한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어린이가 마을 콘셉트의 공간을 거닐며 자연을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다. 먼저 1층에 위치한 초록마을에서는 멀가치, 얼레지, 호제비꽃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야생화 표본이 시선을 끈다. 초록마을과 이어진 실내 온실에 들어서면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비슷비슷하게 느껴던 식물들이 각자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를 생생하게 눈에 담는 시간이다. 2층 파란마을에서는 하늘과 물에 사는 동물의 생김새를 보여 주고, 하얀마을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뒤에는 일상에서 실천할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해 준다. 전시관 건물 밖으로 나오면 화랑공원과 이어진다.

화랑공원

도심 속 맑은 공기를 마시다



판교에서 점심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화랑공원이다. 평일 낮, 산책로를 따라 양산이나 부채를 들고 햇빛을 피해 동료들과 걷는 직장인이 빼곡하다. 공원을 채운 무성한 초록 잎과 잔잔한 호수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곳곳에서 들리는 작은 물소리에 집중하는 시간도 특별하다. 귀로 하는 ‘물멍’이라고 할까. 그늘 아래에서 쉬고 싶다면 화랑정에 오르길 권한다. 정자를 지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판교의 회색 건물이 비친 호수,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그 호수를 스쳐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도 꽤 흥미롭다. 갑작스럽게 비가 올 경우 화랑공원 내에 위치한 판교크린타워 전망대 북카페에서 한숨을 돌려도 좋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눈앞의 이야기에 집중할 차례다.



사계절 변함없이 10월을 외치는 브런치 가게가 있다. 바로 백현동 카페문화거리에 위치한 카페 악토버(영어로 10월). 대표 메뉴는 칠리 에그와 포카치아로, 튀르키예에서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터키시 에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브란치다. 리코타 치즈와 그리스 요구르트 베이스에 수란, 튀긴 채소, 칠리 버터가 들어가는데 노릇하게 구운 콜리플라워와 알감자의 짭조름한 맛이 매력적이다. 소스가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고소하고 담백한 수란이 맛을 중화해 준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완두콩 후무스와 그레이н 샐러드 등 초록빛이 가득한 메뉴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싶은 사람은 수프를 추가해도 좋다. '오늘의 커피' 주문 시 따뜻하게 한 번 리필이 가능하고, 라테의 경우 우유를 오트 음료로 변경할 수 있다. 가족 단위 손님을 고려해 아이 전용 의자를 구비해 둔 점도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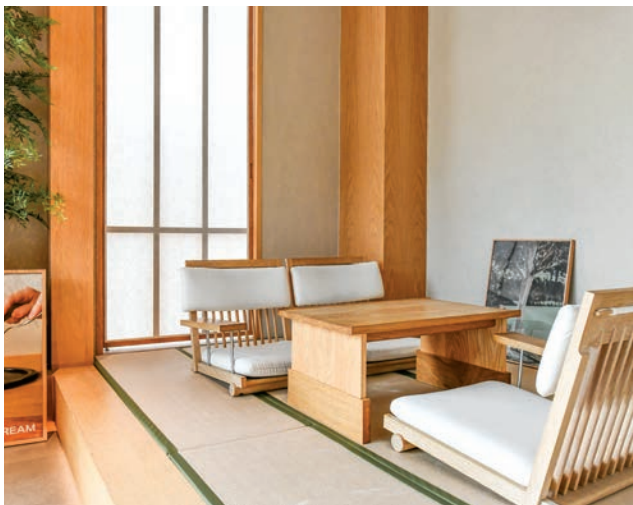
카페 악토버

10월이 아니라 10월이든 브런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번길 15 문의 0507-1480-1265



사진 ©



차는 추운 계절에만 어울릴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다. 초등학교 동창인 허모현·석철 공동 대표는 차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씹새콤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말차를 빙수, 맥주, 모히토와 결합해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메뉴를 개발했다. 그 덕에 겨울보다 여름에 오브차를 찾는 손님이 많다. 디저트는 차와 어우러지도록 당도를 적절히 조절했다. 바닐라 향이 입안을 부드럽게 채우는 달콤한 커스터드 푸딩과 직접 만든 우롱·라벤더·말차 아이스크림을 찹쌀피 사이에 넣은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가장 반응이 뜨겁다. 이틀간 절인 사과 슬라이스에 우롱차를 부으면 꽃처럼 퍼지는 애플 티도 인기 메뉴다. 내부는 아늑하고 편안한 좌식 테이블과 혼자서도 조용히 머무르기 좋은 바 테이블로 구성했다. 선별한 원두로 내려 주는 커피 메뉴도 있으니 언제나 커피를 고수하는 사람이 은은한 차를 선호하는 친구와 같이 방문하기 좋은 찻집이다. 여름에는 무조건 빙수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도 빼놓지 말고 데려가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문의 @gutofficial



곳곳에 진열된 와인병, 치즈와 샐러드를 장식한 꽃, 그리고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권하연 대표의 모습까지, 구우트에 들어서면 초대받은 느낌이 든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치즈에 빵과 구운 채소 등을 곁들여 내는 스위스 요리 라클레트다. 또 다른 인기 메뉴 울릉라이스는 권 대표가 아이에게 자주 만들어 주던 음식을 보완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부지깥이나물을 넣은 볶음밥에 듬뿍 얹은 들깨 크림소스가 담백하고 고소해 취향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긴다. 특별한 날에 방문한다면 생일 빵을 눈여겨볼 만하다.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세 종류의 상큼한 베리, 레드 와인을 졸여 만든 잼을 넣은 빵이 기분을 확 끌어올려 줄 것이다. 독일어로 좋다는 의미의 'gut'에서 따온 가게 이름처럼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오브차

말차의 색다른 변신

구우트

기쁘게 와 반가워 그 레스토랑

슬기로운 AI 생활

인간의 삶 속 어디에나 존재하는 생성형 AI. 누구나 창작하는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AI의 명암이 분명한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사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줘!” 이 한마디만 입력하면 금세 멋진 결과물이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챗GPT를 위시한 생성형 AI의 등장 덕분이다. AI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단지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는 기술에 머물러 있었다. 숫자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포착하고, 미래를 점치거나 현재를 진단했다. 금융권에선 AI가 주가를 예측하고, AI를 활용한 쇼핑물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했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열풍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클로드(Claude), 제미니(Gemini), 수노(Suno), 소라(Sora) 등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는 것뿐 아니라 글, 그림, 음악, 영상 등을 모사하고 창작한다. 기술적 차원에서 이전의 분석형 AI와 지금의 생성형 AI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수많은 데이터 조각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에서 출발해 정보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과정이 동일하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창작의 동반자 역할로 확장하고 있다. 요청만 하면 블로그 포스팅, 여행 일정표, 사업 기획서, 캐릭터 그림까지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도출해 낸다. 전문가 영역이던 디자인과 글쓰기 작업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유튜버, 자영업자, 학생 모두 어렵지 않게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개발 지식이 없어도 커서 AI 같은 코드 어시스턴트 AI를 활용하면 나만의 앱과 서비스를 바로 제작할 수 있는, 일명 바이브코딩(vibecoding) 시대가 열렸다.

기업에서도 생성형 AI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다. 고객 상담이나 마케팅, 보고서 작성처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 자동화되고, 한층 정교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산업에서 AI가 창의적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은 AI가, 창의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 덕분에 인간은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계발과 여가에 쏟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AI도 오류를 범한다. 가장 큰 문제는 ‘هل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다. AI가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든다는 것. 겉으로는 정답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믿는 것은 위험하다. 최근에는 많은 AI 서비스가 외부 검색 기능을 지원하지만, 검색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생성형 AI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생성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AI가 만든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면 의료 진단에서 부정확한 처방을 유도하거나, 법률 자문 과정에서 잘못된 법령 해석을 제공하고, 금융 상품 추천 시 투자자에게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졌다. 무심코 입력한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피싱 이메일, 가짜 콘텐츠, 각종 온라인 사기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는 추세다. 저작권, 책임 소재, 차별이나 편견 같은 윤리적·법적 고민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AI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문제와 결과물을 명확히 가려 내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에 각종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은 기본,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중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AI의 결과물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는 인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과 허구를 판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더 나아가 AI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 활용하는 동시에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책임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양해야 할 AI 리터러시의 자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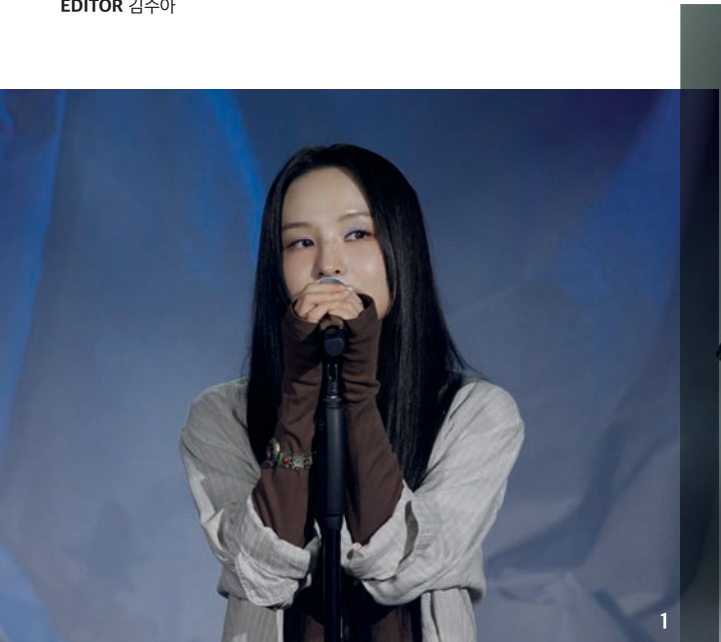
그렇다면 생성형 AI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열쇠는 ‘프롬프트(AI에 제시하는 지시문)’에 있다. 프롬프트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롬프트는 어떤 목적, 형식, 톤의 결과물을 바라는지 구체적인 조건을 덧붙여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마케팅 전략 알려 줘”보다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의 SNS 마케팅 전략을 세 가지 제안해 줘. 각 전략마다 구체적 실행 방안과 예상 효과도 함께 설명해 줘”라고 제시하면 훨씬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맥락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AI의 답변이 만족스럽

지 않다면 질문을 다시 정교하게 다듬거나 단계적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프롬프트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직업군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는 늘 새로운 기술 앞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책을 두고 ‘사람들이 글에만 의존해 정보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책의 탄생은 인류의 지식과 문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성형 AI도 비슷한 전환점에 있다. AI 덕분에 인간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동시에 스스로 정의 내리고, 지시하고, 검증하고, 판단하는 힘인 비판적 지성을 갖추는 일도 더없이 중요해졌다. 인류 역사가 늘 그러했듯 어떤 태도로 신기술을 맞이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돌고 돌아 한국의 흥

사람들은 옛것을 귀하게 여겨도 궁금해하지는 않았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예술가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다.
우리를 놀라게 한 음악가와 무용수를 소개한다.

“마음을 놓아/ 이곳에서 날 불러/ 눈물은 닦고/ 달려온 나의 저 길을 바라 봐”. 가사로는 전해지지 않는 청아한 목소리와 자유로운 몸짓 ‘국악 소녀’라고 불리던 송소희의 미발매곡 ‘Not a Dream’의 라이브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환호했다. 민요 대신 영어가 섞인 자작곡, 전형적인 국악은 아니지만 국악 창법이 섞인 독특한 가창 등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그의 음악에 많은 이가 매료되었다. 송소희의 목소리를 해금, 대금 등 국악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두 달 뒤 음원이 정식 발매되고, 실내 뮤직 페스티벌 ‘더 글로우 2025’와 올해 20회를 맞는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라인업에도 송소희의 이름이 올라 공연 마니아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래 내가 바란 거야”라고 노래하며 관객을 향해 환하게 웃는 그에게 팬들은 국악 소녀라는 수식어 대신 ‘해답을 찾은 소녀’라는 별명을 안겨 주었다.

국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음악가들

사실 대중이 국악인에게 열광한 건 처음이 아니다. ‘국악의 대중화’를 언급할 때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를 빼놓을 수 없다. 2020년에 발표한 곡 ‘범 내려온다’는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캠페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서울’ 영상에 사용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날치는 판소리의 매력을

밴드로 가져오되 색다른 인상을 주고자 과감히 기타를 빼고 베이스 두대와 드럼만 활용했다. 판소리보다 박자를 빠르게 바꾸고 강약을 주었으며, 멜로디를 단순하고 반복되는 형태로 만들었다. 판소리 ‘수궁가’ 중 별주부가 호랑이를 만나는 대목을 편곡한 이 노래에서 우리는 판소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전에도 국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에 도전한 사례는 많다. 국악과 록을 결합한 밴드 잠비나이는 기타, 피리, 태평소, 해금, 거문고, 드럼, 베이스 등 음향 밸런스가 안 맞는 악기를 모아 맹렬한 소리를 만들어 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를 장식했을 뿐 아니라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 같은 대규모 행사에 초청받는 등 국내외로 사랑받고 있다.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요 록 밴드 쌍쌍은 미국 공영방송 NPR이 제작하는 콘서트 영상 시리즈 ‘타이니 데스크’에 한국 가수 최초로 초대됐다.

2023년에 등장한 신예 뮤지션 삼산도 주목할 만하다. 한 손에는 가야금을, 다른 손에는 해금을 쥐고 노래하는 그는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신인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일곱 살 무렵 가야금을 시작했고 초등학생 때 사물놀이를 배운 후 중학생 때 해금을 전공했다. 국악고를 다니면서는 작곡에 뜻을 품었다. ‘아니, 그 돈을 벌써?’ ‘줄줄

줄 짹짹’ ‘모르겠어’ 등 노래 제목에서 얼핏 느껴지듯 삼산은 본인의 생각과 고민을 가사에 풀어내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거기에 위트도 놓치지 않는다. 말하듯이 노래해 장기가 떠오른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줄줄 줄 짹짹’의 간주에 흐르는 구슬픈 해금 소리는 현대인의 고달픈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전통 의복의 발칙한 변신

이처럼 전통의 소리를 변주한 음악이 있는가 하면, 전통 의복을 재해석해 시선을 끄는 무용 공연도 있다. ‘범 내려온다’의 퍼포먼스 영상에서 귀를 사로잡은 건 이날치의 목소리와 연주였지만,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를 꼽으라면 단연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안무와 의상이다. 춤이 하나의 언어가 된다고 믿는 현대무용단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관객이 무용수의 얼굴이 아닌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도록 모든 단원이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거기에 정장부터 운동복까지 통일되지 않은 의상에 털 조끼를 겹쳐 입거나 다양한 종류의 갓을 쓰는 등 시대와 상황을 구별하지 않은 착장이 낯선 느낌을 준다. 8월까지 이어지는 전국 투어 공연 <Fever>의 메인 포스터에 나오는 색동을 활용한 웃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갓을 소재로 한 공연도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별발레컴퍼니의 <갓>은 한국 전통 의복인 갓과 서양 무용인 발레를 결합한 작품이다. 신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패랭이, 삿갓, 족두리 등을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머리에 쓰고 무대에 오른다. 사극에서 수없이 갓을 봤더라도 갓을 쓴 무용수가 곱감대를 문 채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은 색다른 게 느껴질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투어를 진행한 <갓>은 서바이벌 TV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한 강경호, 김유찬, 정성욱 무용수의 인기에 힘입어 티켓을 발매하자마자 빠르게 매진됐다.

1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의 ‘Not a Dream’ 라이브 영상.
2 한국 전통 의복인 갓과 서양 무용인 발레를 결합한 공연 <갓>.
3 국립무용단의 신작 <미인> 중 탈춤을 추는 장면.
4 가야금과 해금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신예 뮤지션 삼산.
5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Fever> 공연 의상.

국립무용단의 신작 <미인> 또한 화제였다. 양정웅 연출가, 정보경 안무가, 서영희 스타일리스트, 장영규 음악감독, 신호승 아트 디렉터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제작진이 협업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모든 좌석이 매진된 후 추가 예매 문의가 많아 최종 드레스 리허설까지 공개했다. 정보경 안무가는 나비춤, 부채춤, 칼춤 등 한국 춤을 재해석해 여성 무용수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극대화

했다. 30여 년간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에서 활동한 서영희 스타일리스트는 삼베, 모시, 실크, 벨벳 등 소재와 색채를 폭넓게 사용해 의상과 오브제를 디자인했다. 강강술래에서 둥근 원을 그리며 돌다가 한 명씩 앞으로 나오는 장면은 패션쇼 런웨이의 일부 같았고, 여러 색깔의 가발을 쓰고 추는 탈춤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참여해 재치 넘치는 안무로 사랑받은 흑크루를 연상시켰다.

전통 예술의 색다른 변신에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일각에서는 신선함을 추구하려다 본질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중화라는 명목 아래 기술을 모방하거나 흥내 내는 예술가들이 출현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어떤 장르든 소위 ‘입문용’ 작품이 있듯 관심을 높일 틈이 필요하다. “국악에는 정답이 존재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저마다 추구하는 톤이나 개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중음악처럼 개인의 주관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지만 송소희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전통을 계승하길 원했고, 국악원을 나와 광범위한 장르를 흡수한 끝에 대중 앞에 다시 나타나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전통 예술을 이어 가려면 더 넓은 연령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HIBITION

〈비밀정원〉
자연을 보고 느낀 감각을 회화로 풀어내는 정인혜 작가와 관계에 대한 통찰을 다양한 매체로 전개하는 갑빠오 작가가 2인전을 연다. 두 작가는 '비밀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기억과 감정이 담긴 세계를 펼친다. 정인혜 작가는 우직한 선인장과 야자수에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갑빠오 작가는 기쁜 듯 슬픈 듯 아리송한 표정의 조각품으로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표현한다.
기간 6월 15일까지 문의 051-731-9845(부산 카린갤러리)

〈그림 속의 자연 畫中自然〉
일평생 자연을 탐구해온 석난희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제자인 작가는 무질서하게 가로지르는 선과 획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자연의 생명력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2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작품 60여 점을 아우른다. 특히 조형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1980년대 작품을 다수 선보여 그만의 독창적인 미학을 엿볼 수 있는 귀한 기회다.
기간 7월 6일까지 문의 02-737-7650(서울 성곡미술관)

BOOK

〈망할 토마토, 기막힌 가지〉
글 쓰는 요리사 박찬일의 에세이 <뜨거운 한입>의 개정 증보판. 토마토, 감자, 달걀 등 흔한 식재료부터 해외 곳곳의 별미까지, 공간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작가 특유의 재치로 그려낸 음식 이야기가 추억을 소환하고 침샘을 자극한다.
박찬일 지음 창비 펴냄

〈우리가 몰랐던 우리 곁의 그 숲〉
숲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여행작가 정태겸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만난 34개의 아름다운 숲을 소개한다. 작가도 미처 몰랐던 비밀스러운 숲의 발견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숲 주변 볼거리와 추천 맛집 정보도 알차다.
정태겸 지음 꽃길 펴냄

〈기차를 타고〉
일본 도교 근교를 운행하는 코미나토 철도의 여정을 그린 그림책. 단순하고 귀여운 미니어처 같은 세계에 기차, 버스, 자전거와 카누, 카약까지 온갖 탈것이 등장한다. 실제 기차 모습을 섬세한 스케치와 포근한 색감으로 표현해 미소 짓게 한다.
오카모토 유지 지음 진선아이 펴냄



VIDEO

〈잔챙이〉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호평받아 정식 개봉까지 하게 된 영화. 무명 배우이자 낚시 유튜버로 살아가는 호준, 그를 오디션에서 떨어뜨린 남 감독, 그리고 단역에서 촉망받는 주연으로 떠오른 희진. 낚시터에서 만난 세 사람은 서로에게 계속 '떡밥'을 던지며 잔챙이에서 대물이 되기 위해 몸부림친다. 6월 18일 개봉.
감독 박중하 출연 김호원, 임채영

〈28년 후〉
최초로 '달리는 좀비'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영화 <28일 후> 속편이 23년 만에 개봉한다. 분노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28년 후, 참혹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존자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원작의 감독과 각본가가 다시 의기투합한 만큼 한층 진화한 공포가스크린을 채울 예정이다. 6월 개봉.
감독 대니 보일 출연 조디 코머, 애런 존슨

SHOW

〈디 이펙트〉
향우울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코니와 트리스탄, 시험을 감독하는 박사 로나 제임스와 토비 실리 네 명의 복잡한 감정을 다룬다. 저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인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관객은 지금껏 내려온 수많은 결정을 돌아켜 본다. 배역의 성별을 바꾸는 '젠더 밴딩' 캐스팅을 시도해 주목받는 연극이기도 하다.
기간 6월 10일~8월 31일 장소 서울 NOL 서경스퀘어 문의 02-764-8760

〈킬리안 프로젝트〉
모던 발레의 거장이라 불리는 안무가 이아리 킬리안의 명작 세 편을 한 무대에서 만난다. 먼저 인간의 부주의로 파괴된 땅을 소재로 한 '잊힌 땅(Forgotten Land)'으로 시작해 여성 무용수 여덟 명이 대결을 펼치는 '낙하하는 천사들(Falling Angels)'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삶의 고난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여섯 개의 춤(Sechs Tänze)'으로 끝맺는다.
일시 6월 21일~22일 장소 대구 문화예술회관 문의 053-430-7667~8

〈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
오렌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마녀의 저주를 들은 후 왕자와 어릿광대는 운명의 짝을 찾아 떠난다. 정치극부터 로맨스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리듬감과 통통 튀는 멜로디로 풀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받은 거대한 과일 바구니를 연상시키는 무대도 인상적이다.
기간 6월 26일~29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1588-2514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2회 철도안전공모전 입상 '하늘로 가는 열차' © 박문환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필리핀 도시철도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2026년에 개통하는 필리핀 도시철도, 마닐라 메트로 7호선(MRT-7)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7월부터 28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투입해 현지 직원들과 함께 개통을 준비한다. 향후 10년간 관제, 운전, 차량 등 분야별로 총 17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애플페이로 승차권 결제



전국의 역 창구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로 결제하는 애플페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의 역 창구 단말기를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이 가능한 기기로 모두 교체했다. 또 자동발매기도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애플페이는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역 '집 보관·배송' 서비스 인기



지난 3월 25일 서울역에 문을 연 '집 보관·배송' 매장이 국내외 여행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장 오픈 후 한 달간 서비스 이용 수는 8000여 건에 달했다. 역에 짐을 보관하거나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송해 주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장 접수하거나 코레일톡 앱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전국 13개 주요 KTX 역에서 매장을 운영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철도공사가 대국민 서비스 캐치프레이즈를 새롭게 선보였다. '코레일... 있다'는 기존 슬로건인 '마음을 잇다'와 연계한 문구로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로고는 철도 선로를 형상화한 직선 구조로 디자인했다. '...'의 빈칸은 '세상을' '추억을' '만남을' 등 여러 메시지를 담아 철도의 다양한 역할을 표현한다.

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지역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이용방법

전국 지역축제를 한 눈에! 기차여행을 편리하게 예약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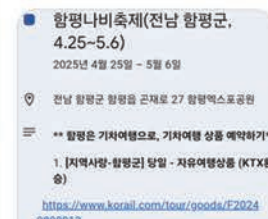
★ 구독하기 (캘린더 오른쪽 하단 +를 클릭)를 통해 내 캘린더에서 언제 어디서나 "지역축제 기차여행" 확인 가능 ★



① QR코드 인식



② 캘린더 확인



③ 지역축제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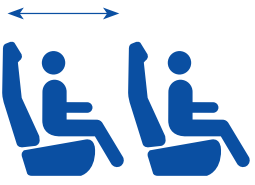


④ 기차여행 상품 확인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5호차와
KTX-산천 3·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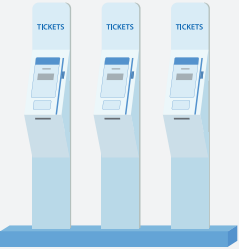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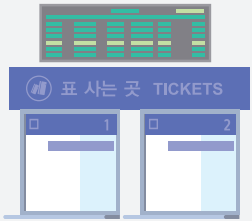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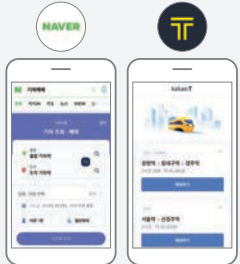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기한	출발 전		기한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개월~출발 1일 전	무료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20분까지	15%
당일~출발 3시간 전	무료	5%	20분 경과 후~60분	40%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5%	10%	60분 경과 후~도착	70%
			도착 시각 이후	환불 불가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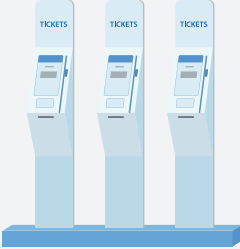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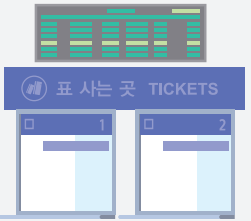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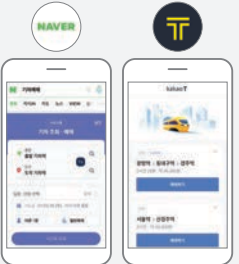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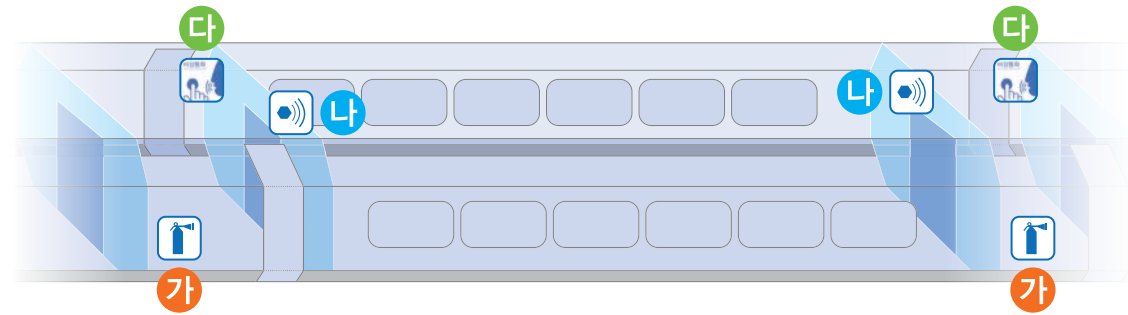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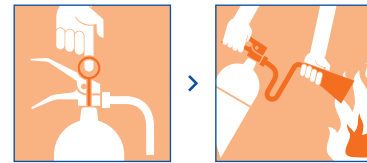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Mon-Thu	Fri-Sun, holidays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Free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Up to 20 minutes	15%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Free	5%	20-60 minutes	40%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5%	10%	60 minutes-arrival time	70%
			After arrival time	No refund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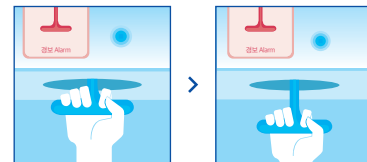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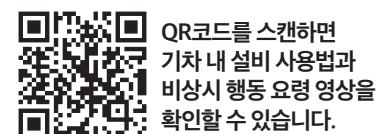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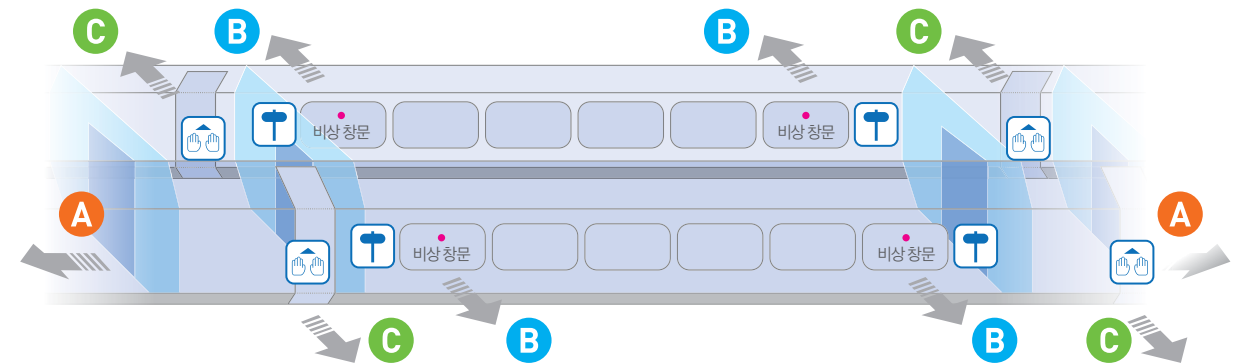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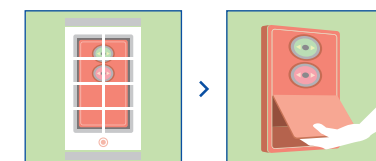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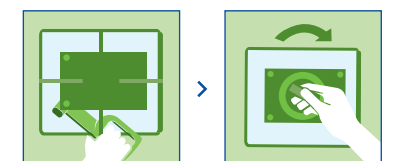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허회경과 떠나는 음악 여행

담담하게 위로를 전하는 싱어송라이터 허회경이
오늘 당신의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다. 기차에 오른
여행자의 하루를 떠올리며 어울리는 노래를 골랐다.

하루의 기분을 책임지는 플레이리스트



이상해 허회경

빨간 풍선이 떠오르는 통통 튀는 음악이에요. 마냥
가벼운 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노래가 흥을 돋우면
좋겠어요. 여행 가는 길이니깐요!



습관(Bye Bye) 롤러코스터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아서 습관처럼 듣게 돼요.
날마다 감상이 달라지는 게 신기해요. 기분 좋을 땐
더욱 신나고, 울적할 땐 노래가 서글프게 느껴져요.



7번 국도 정미조

언제나 행복을 안기는 곡이죠. 빠르게 변하는 풍경과
유독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버스나 기차의 차창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간 마주하는 장면 말이에요.



I Will 비틀스

비 내리는 날 자주 들어요. 기차에 올랐을 때 빗방울이
떨어진다면 이 노래를 골라 보세요. 멜로디를 흥얼거리다
보면 왠지 모르게センチ멘털해지는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Wasted on You 앤디 사우프

아침에 기차를 타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도입부에
나오는 악기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강하지 않은 연주로,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길 바라요.



Right Side of My Neck 페이 웹스터

담백하고 드라이한 음악이 취향에 맞다면
만족할 거예요.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근심 걱정을 덜어내고 싶은 사람에게도 제격이죠.



음악 듣기



허회경

스스로를 솔직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싱어송라이터. 2021년 디지털
싱글 '아무것도 상관없어'로 데뷔한 후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낸 가사로 대중의 공감을
얻는다. 감정에 멜로디를 입히는 과정에서
해방감을 느낀다고. 가수, 배우, 소설가 등
많은 예술가가 즐겨 듣는 곡으로 허회경의
노래를 언급했다. 대표곡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김철수 씨 이야기' 등이 있다.

사진: 김민준



